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교육학석사학위논문

저소득층 명문대생의 진학 포부 형성과정 연구

2020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평생교육전공

이 혜 지

저소득층 명문대생의 진학 포부 형성과정 연구

지도교수 오 헌 석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7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평생교육전공

이 혜 지

이혜지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0년 7월

위 원 장 김 동 일 (인)

부 위 원 장 오 헌 석 (인)

위 원 신 종 호 (인)

국 문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저소득층 명문대생의 진학 포부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살펴보고, 이를 통해 저소득층 대학생들의 진로과정에 대한 제도적 지원 및 교육적 개입에 관한 시사점을 얻는 것이다. 이에 저소득층 명문대생의 대학 생활경험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이들의 진학 포부가 형성되는 과정을 질적 사례 연구 방법을 통해 탐구하였다. 진로 탐색 시기에 진로를 대학원이나 전문대학원으로 설정한 저소득층 명문대생 9명을 면담하였으며, 진학 과정에서 작성한 자기소개서 및 학업 계획서를 보조자료로 수집하였다. 이를 통해 이들의 대학 생활경험에 드러난 진로포부 형성과정을 밝혔으며 형성과정의 양상을 분석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저소득층 명문대생의 대학 생활경험을 학업 경험과 학업 외 경험 그리고 가족과의 상호작용 경험으로 나누어 각 경험에서 드러나는 진로포부 형성과정을 살펴보았다. 먼저 이들은 사교육 및 선행학습 부재로 인한 학업적 어려움을 겪었으나 성장마인드셋을 바탕으로 학업성취를 이루었다. 또한 보고서 작성, 연구 참여, 교수와의 상호작용 등의 경험을 통해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인 성장을 이루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진학 포부를 형성하게 되었다.

둘째, 학업 외 경험에서 드러나는 저소득층 명문대생의 진학 포부 형성과정을 살펴보았다. 이들은 중산층 위주의 명문대학교에서 소속감 형성에 어려움을 느꼈으나, 원만한 교우관계를 바탕으로 소속감을 형성하기 시작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진학 포부를 형성할 수 있었다. 셋째, 가족과의 상호작용 경험에서 드러나는 저소득층 명문대생의 진학 포부 형성과정을 살펴보았다. 참여자들은 가족들로부터 기본적으로 친밀감을 느끼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얻을 수 있었지만 재정적 지원이나 진로에 관한 조언 등 실질적인 지지를 전혀 받을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은 가족들과 깊이 상호작용하기보다는 오히려 일정 수준의 거리감을 유지함으로써 진학 포부를 형성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저소득층 명문대생 진학 포부 형성과정의 양상을 분석하였다. 첫째, ‘자기 스스로에 대한 허락의 과정’이었다. 참여자들은 높은 성취동기를 바탕으로 더 성장하고 싶다는 열망이 있었으며 대학 생활 동안 객관적으로 우수한 성취를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상황으로 인해 쉽게 진학 포부를 지닐 수 없었다. 이에 이들은 자신의 진학에 대해 스스로 정당화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했다.

둘째, ‘사회공헌 의지의 실현 과정’이었다. 특히, 어린 시절에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든 경험을 했었던 참여자들에서 더 두드러지는 점이었다. 그들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자신과 비슷한, 혹은 자신보다 더 좋지 않은 상황에 있는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빈곤과 사회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진로를 선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셋째, ‘중도가 없는 전개과정’이었다. 이들의 진학과 그 이후 진로에 대한 계획은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느린 전개 과정을 보여주었다. 이들은 가정 경제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진학 경로를 선택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인적 네트워크의 부족으로 인해 구체적인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 없이 막연하고 추상적인 수준에서 진학 포부를 형성하여 진로과정이 지연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넷째, ‘내 삶의 지속가능성과 이상적 포부의 줄다리기 과정’이었다. 이들은 삶의 경험에서 비롯한 사회공헌 의지와 자기 성장에 대한 자신의 목소리를 따라 진학에 대한 포부를 지녔지만 자기 자신과 가족들의 현실적인 삶의 압박은 생각보다 강력한 것이었다. 이러한 줄다리기는 진학 전, 진학 중, 진학 후에도 계속되는 것이었으며 참여자들은 줄다리기의 적정선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닌다. 우선, 기존의 국내연구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었던 연구 대상인 저소득층 명문대생의 진로과정을 조명했다. 특히, 기존의 저소득층 대학생의 진로과정 연구와 달리 이들이 처한 어려움뿐만 아니라 성장 경험을 함께 포착함으로써 좀 더 실질적인

교육적 개입의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저소득층의 진로과정에서 대학교육의 효과와 책무성 대한 관심을 환기할 수 있었다.

주요어: 저소득층 대학생, 저소득층 명문대생, 진학 포부
학 번: 2016-21538

차 례

Ⅰ.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문제 ····· 5

Ⅱ. 이론적 배경 ····· 6
1. 저소득층 명문대생 ····· 6
2. 4년제 대학 졸업자의 진로과정과 대학원 진학 ····· 16

Ⅲ. 연구방법 ····· 23
1. 질적 사례 연구 방법 ····· 23
2. 연구참여자 ····· 26
3. 자료의 수집 및 분석 ····· 33

Ⅳ. 연구결과 ····· 42
1. 저소득층 명문대생 진학 포부 형성과정 ····· 42
2. 저소득층 명문대생 진학 포부 형성과정의 양상 ····· 86

Ⅴ. 논의 및 결론 ····· 102
1. 요약 ····· 102
2. 논의 및 제언 ····· 106

<참고 문헌> ····· 111

<Abstract> ····· 119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고등교육은 개인에게 자신의 가치, 흥미, 삶의 목표, 재정적 필요 등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는 데 필요한 기회와 사회문화적 자본을 제공한다(Blustein, 2006). 이러한 고등교육 기회는 일찍이 사회계층이동과 관련하여 사람들의 열렬한 관심을 받아왔으며, 그 기회가 사회적 위계에 따라 분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의 경우 1990년대 이후 급등한 대학진학률로 인해 단순한 대학 진학 여부보다는 어떤 대학에 들어갔는지가 중요한 지표로 자리 잡았다. 최근의 경험적 연구들은 한국사회의 대학 서열과 부모의 사회 경제적 배경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교육 불평등의 구조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실제로 부모의 교육 수준, 직업 지위와 같은 사회적 요인의 영향력이 크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방하남, 김기남, 2002; 장미혜, 2002; 김위정, 김양분, 2013).

특히, 명문대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가정배경은 대부분 중산층 이상이며 점점 더 부모의 소득 및 교육 수준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에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확보한 소득분위자료에 의하면 소득 하위 1, 2분위에 속하는 저소득층 출신 가정 비율의 전국대학 평균값이 23.3%인데 반해 서울의 중요 명문대는 10%~12% 정도로 절반에 미치는 수치를 보여주었다. 대학의 서열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과의 관계에 관한 경험적 연구들 또한 부모의 교육 수준, 직업 지위의 영향력을 확인하고 있다(방하남, 김기남, 2002; 장미혜, 2002; 김위정, 김양분, 2013).

이에 교육기회의 불평등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를 완화하기 위해 정

부와 대학 그리고 기업들까지 다양한 정책 및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7년에 입학사정관 전형제도를 도입하여 객관적인 성적 자료뿐만 아니라 학생이 처한 상황을 고려할 수 있게 하였으며, 「고등교육법시행령」 제 34조에 따라 시행되는 특별전형에서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기준에 의한 전형으로서 '사회통합 전형', '사회적 배려자 전형', '기회균형전형' 등의 이름으로 학생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많은 민간 기업들이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업성취 향상을 위한 양질의 멘토링 수업을 제공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더 나은 고등교육 기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여하는 데 힘쓰고 있다.

그러나 높은 학업성취를 달성하여 좋은 대학에 들어간다고 해서 저소득층 학생들의 삶이 더 개선될 수 있을까? 고등학교까지 학교라는 따뜻한 울타리 안에서 성공적으로 학업을 수행했던 학생들은 대학에서 새로운 도전을 마주하게 된다. 고등학교와 달리 대학에서는 학업뿐만 아니라 자기계발 및 진로와 관련된 다양한 역량과 변화가 요구된다(김창환 외, 2014). 뿐만 아니라 각종 자격증 준비, 주거비, 생활비 등 기본적인 재정부담이 갑자기 늘어난다. 이에 저소득층 학생들은 초중고 시절 자신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환경적 제약을 뛰어넘어 대학교에 성공적으로 입학했지만 학업 이외의 생활도 자력으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서 많은 제약에 부딪히게 되며 쉬이 대학생활에서 부적응을 경험한다(김미란, 2014; 성문주, 2015; 이지혜, 윤형주, 2015; 이지혜, 채재은, 2013).

위와 같이 대학 간 서열과 사회계층 간의 연관성에 대한 높은 관심에 비해 내학 내에 존재하는 사회계층 차이에 대한 국내연구는 미흡하다(김미란, 2014). "서울대 학생 70% 고소득층 자녀", "SKY엔 '금수저'들이 산다", "특목고·자사고 '서울대 합격률' 10년 새 18%→44% 급증"과 같이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 사이에서 명문대에 다니고 있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존재는 그리 주목받지 못한다. 대입결과가 발표될 때마다 매년 미디어에서 소위 개룡남 혹은 개룡녀로 잠깐 주목을 받을 뿐이다.

이들은 교육기회와 사회이동성(social mobility)에 관한 양질의 정보를 지닌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경험과 학습에 관한 국내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반면 대학 내 사회계층, 인종 간 차이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된 미국의 경우 저소득층 명문대생에 관한 경험적 연구도 비교적 많이 이루어졌으며 그들의 고충과 장애물뿐만 아니라 그들의 학습과 성장과 관련된 심리적, 맥락적 변인에 대한 연구도 다수 이루어졌다(Betts & Hackett, 1983; Chemers, Hu, & Garcia, 2011; Gable, 2016; Granfield, 1991; Granfield & Koenig, 1980; Hsieh, Sullivan, and Guerra, 2007; Jack, 2016; Khanh, 2002; Zajacova, Lynch, & Espenshade, 2005).

한편, 대학생 시기에는 여전히 진로에 대한 혼란과 갈등을 경험하는 중등시기 청소년의 특성을 보유하고 있으며(하문선 외, 2014), 경제위기의 여파로 대학생들이 진로 문제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학생의 진로발달에 관한 연구가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기존의 대학생 진로발달 연구에서는 진로발달 정도를 파악하는 데 진로성숙도, 진로결정수준, 진로준비행동 등의 변인들이 사용된다(조규형, 2018). 즉, 진로가 확실히 결정되고 그에 따라 구체적인 구직행동을 하는 것을 가장 바람직한 진로발달 상태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시장 진출 지연이 더 나은 일자리를 얻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여겨지는 상황 속에서, 저소득층 대학생의 진로과정에서 목격되는 현실적이고, 효율적이고, 신속한 진로 결정이 단순히 그들의 뛰어난 진로 역량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하기는 힘들 것이다(변금선, 2015; 이지혜, 황매향, 2017). 이들의 진로발달과정을 다른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성이 요청되는 것이다.

또한, 기존의 저소득층 대학생의 진로에 대한 연구에서는 이들의 가정배경에서 기인하는 사회 구조적인 제약과 그것의 부정적인 효과를 드러내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이러한 연구는 해당 집단이 처한 사회문화적 맥락을 밝히고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드러냈다는데 큰 의의가 있지만, 저소득층 대학생들의 성장을 위한 적극적인 교육개입의 가능성을 탐색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 해당 연구들에서는 주로 사회경제적

배경의 효과로 인해 포부가 제한되는 현상에 초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듯 국내의 저소득층 진로 경험에 관한 연구들은 빈곤이 청소년의 진로에 직, 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보여주고 있으나 취약한 가정배경에도 불구하고 주체적으로 진로 결정을 내리는 이들, 다시 말해 환경의 제약을 넘어서서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는 이들에 대한 관심으로까지는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다(송효준 외, 2016; 홍미소, 2017).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저소득층 명문대생의 대학 생활 동안의 경험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이들의 진학 포부가 형성되는 과정을 탐구하였다. 이를 위해 진로를 대학원이나 전문대학원으로 설정한 저소득층 명문대생 9명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진학 과정에서 작성한 자기소개서 및 학업 계획서를 보조자료로 수집하였다.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진학은 상위권 대학생 그리고 중산층 이상의 학생들이 주로 선택하는 진로로서, 특히 명문대학교 학생들에게 비교적 흔한 진로 대안이다[1]. 그러나 동시에 기존의 저소득층 대학생의 진로 과정에 대한 연구에서는 이들의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포기'되는 진로 대안으로 드러났다(변금선, 2015; 이지혜, 황매향, 2017; King, 2011; Havering & Roberts, 2011). 이러한 조건 속에서 진학 포부를 형성했던 저소득층 명문대생의 대학 생활경험을 살펴봄으로써 해당 집단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1) 일반적으로 명문대라고 여겨지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학교의 대학원 진학률은 2015년 기준, 33.2%, 23%, 23.5%로 이공계 특성화 대학과 종교계열대학을 제외하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교육통계조사, 2015).

2. 연구문제

본 연구는 저소득층 명문대생의 진학 포부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살펴봄으로써 저소득층 대학생들의 성장과 진로과정에 대한 제도적 지원 및 교육적 개입에 관한 시사점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질문은 “저소득층 명문대생의 진학 포부는 어떻게 형성되는가?”이다.

첫째, 저소득층 명문대생의 진학 포부는 어떠한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가?

저소득층 명문대생의 진로과정에 대한 선행연구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들의 대학생활 경험에서 드러나는 진학 포부 형성과정을 총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저소득층으로서 중산층문화 위주의 명문대학교에서 겪는 어려움과 명문대라는 교육 환경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기회를 다방면으로 살펴보고, 그 안에서 이들의 진학 포부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 지 살펴보았다.

둘째, 저소득층 명문대생 진학 포부 형성과정의 양상은 어떠한가?

저소득층 명문대생의 진학 포부 형성과정은 이들이 처한 고유한 사회문화적 맥락으로 인해 다른 집단과 구별되는 양상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해당 집단의 진학 포부 형성과정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본 연구는 저소득층 명문대생의 진학 포부 형성과정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1장에서는 연구대상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였으며, 이들의 대학에서의 경험에 대한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정리하였다. '저소득층 명문대생'이라는 특정 집단에 대한 국내의 연구가 부족했기 때문에 저소득층 대학생 일반을 대상으로 한 국내 연구를 다수 포함하였으며, 명문대라는 맥락을 반영하여 진행된 연구는 주로 해외 연구를 참조하였다. 다음으로 2장에서는 4년제 대학 졸업자의 진로과정과 대학원 진학에 대한 논의를 제시하였다. 먼저 사회문화적 맥락에 대한 이해를 위해 일반적인 4년제 대학 졸업자의 진로과정에 대한 연구를 제시하였으며, 다음으로 4년제 대학 졸업자의 대학원 진학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았다.

1. 저소득층 명문대생

본 절에서는 저소득층 명문대생의 특성과 그들이 처한 사회문화적 맥락, 학습경험, 그리고 진로발달 특성에 대한 선행연구를 정리하였다.

가. 저소득층 대학생 대학생활 경험

Coleman(1988)의 연구 이래로 학생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강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연구는 꾸준히 지속 되어 왔다. 대학생의 경우에도 학생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학습에 대한 참여와 시간 활용 양상이 달라지고 이에 따라 이들의 최종적인 학습 성과에도 영향을 미친다. 특히, 고등학교 때와는 달리 대학에서는 학생들에게 학업 이외에 요구되는 사안이 많아 저소득층 대학생들은 보통 이중고를 겪고 있으며

대학이 제공하는 기회를 잘 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강기수, 2011; 노경란, 윤수정, 2012).

이들이 처한 경제적 상황의 부정적인 효과가 다방면으로 드러나고 있다. 우선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학생들은 집안일과 학업과 근로 활동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다(성문주, 2015). 자연스럽게 학업에 쏟을 수 있는 절대적 시간이 부족해지며 이 때문에 대학 내의 수업 외 활동 및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가 제한된다(배상훈, 한송이, 2015). 특히 학자금 조달 및 생활을 위한 생계형 근로 경험은 대학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낮은 학점을 받을 확률이 높아지고, 재학 기간 또한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안준기, 배호중, 2011). 저소득층 대학생들이 필수적인 의식주를 충족하기 위한 근로에 시간을 쏟는 반면에 중산층 이상 가정 출신의 대학생은 필수적인 소비뿐만 아니라 여가 및 사교육에 추가적인 소비를 한다. 이들은 투자하는 사교육비 규모 자체가 달랐으며, 부모가 전문가이거나 가계소득이 높은 대학생들은 생활비 중 학원비, 교통비, 문화비를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천세영, 이석렬, 이선호, 2004). 또한 부모의 소득과 학력 수준이 높은 중산계층 학생들은 외국어 사교육, 자격증 취득, 해외 어학연수, 유학, 교환학생 등에 대한 참여율이 높다. 반면, 하위계층 학생들은 학자금 대출, 생계형 근로활동으로 인해 기본적인 학업 활동에도 몰두하기 힘들다(김수혜, 김경근, 2010; 심경섭, 설동훈, 2010).

위와 같은 경제적 상황뿐만 아니라 가정으로부터 학업적, 사회적 지원도 받기 어렵다. 대부분 대학에 진학은 저소득층 학생들은 대학 진학 첫 세대인 경우가 많아서 가정으로부터 대학 생활과 관련된 지원을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김은경, 2010; Engle & Tinto, 2008; Owens et al., 2010; Seay, Lifton, Wuensch, Bradshaw, & McDowelle, 2008; Whiston & Keller, 2004).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가정의 대학생들은 가정으로부터의 지원을 바탕으로 대학의 정규 교육과정뿐 아니라 추가적인 학업적, 사회적 성장 기회에도 적극적이다. 반면 저소득층 학생들은 다양한 사교육 경험 뿐 아니라 대학에서 제공하는 고효과 학습 프로그램(High Impact

Practices)과 같은 선택적 학습 활동에 덜 참여하는 경향이 있다(Horn et al., 1995; Kinzie, 2015; Swaner & Brownell, 2009).

고효과 프로그램(high impact practices)이란 대학생의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학습 성과에 상당한 향상을 가져오는 구체적인 교육 활동으로 2008년 미국대학협의회(Assoication of American Colleges and Universities, 이하 AAC&U)에 의해 명명되었다. 고효과 프로그램은 학생들로 하여금 단순한 정규 교과 이상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도록 하고 학습 몰입과, 학습 성과를 향상시킨다. 또한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 주제에 대한 반성적, 통합적 사고를 통해 심층적인 학습을 하도록 촉진한다. 마지막으로 학생 혼자가 아니라 공동의 학습 주제에 대해 학우, 선배, 교수진들과 상호작용하는 능동적인 학습을 포함하여 학생의 사회, 정서적 학습에도 기여한다(Kilgo, Sheets, Pascarella, 2015). 구체적으로 해외 연수, 실험실 인턴, 교수의 지도 아래 연구활동 참여, 장기 연구 프로젝트 완성, 최소 20쪽 이상의 분석적이고 창의적인 보고서 작성하기 등을 포함한다(Kuh, 2008).

미국 대학을 배경으로 한 선행 연구에 따르면 주로 저소득층이나, 대학 진학 첫 세대, 흑인 등의 소외된 학생(underserved students)들은 고효과 프로그램 참여율이 떨어졌다(Finely, 2011; Finely, McNair, 2013; Kinzie, 2015). 이들은 대학에서 수학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으로부터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생계형 근로 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프로그램에 참여할 여유가 상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이다(Engle & Tinto, 2008; 안준기, 배호중, 2011). 고효과 프로그램을 통한 교수와의 지속적인 교류, 학습 공동체 참여와 같은 수업 외 활동에 참여하는 경험은 특히 저소득층 대학생의 학업 지속 및 학습 성과를 향상 시키는 데 효과적이었다는 사실(Filkins & Doyles, 2002; Garcia, 2010; Lohfink & Paulsen 2005; Pascarella et al, 2003, 2004)을 고려했을 때 이들이 보여주는 낮은 참여율은 문제적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은 대학 생활에서의 적응은 물론 미래 계획에 대한 태도와 기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김미란, 2014). 이에 고등교육기회를 얻은 저소득층 학생들은 자신이 지금까지 이룬 성과에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경제적 조건으로 마주할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불안한 긍정”을 경험한다(이지혜, 윤형주, 2015). 이러한 불안 속에서 저소득층 대학생들은 전공 수업을 따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직업 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자기계발과 경험을 ‘혼자서’ 이루어 나가야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에 저소득층 대학생들은 자신의 성공기대를 쉬이 낮추게 되며 자신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김미란, 2014; 이지혜, 윤형주, 2015).

한편, 취약한 환경과 고충에도 불구하고 주도적으로 대학 생활을 이어나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저소득층 대학생의 대학 생활 연구에서 비슷한 맥락에 처해 있지만 학생들은 ‘도망자’, ‘안주자’, ‘개척자’의 유형으로 서로 다른 적응 양상이 나타났다(전홍주, 권현조, 조미숙, 2017). 해당 연구에서 비슷한 환경적 제약 조건에서도 학생들이 다른 적응 결과를 보여주는 것은 자신의 현실을 얼마나 객관적으로 직시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었다. 본인에 대한 인정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관점 변화와 순응이 일어나는 것으로 분석된 것이다. 다음으로 순응이 일어난 후 멈추면 ‘안주자’가 되고, 그 이후에 적극적인 삶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개척자’가 된다. 그러나 이러한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만으로는 ‘도망자’와 나머지 유형을 설명할 수 있었지만 왜 어느 학생들은 ‘안주자’가 되고, 또 다른 학생들은 ‘개척자’가 되는지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전홍주 외, 2017). 또한 대학 생활 중 문제 상황을 직면했을 때 단순히 타협하거나 순응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지원과 기회를 탐색해나가는 ‘선구자형’과 ‘지원요구형’등의 모습도 나타났다(노경란, 윤수정, 2012). 위의 연구들은 저소득층 대학생이 단지 수동적으로 여러 가지 제약을 받아들이거나 부적응하는 것만이 아닌 주체적으로 대학 생활을 이어나가는 측면을 일부 보여주기는 했지만 적응 양상이 학생 간에 왜 다르게 나타났

는지에 대한 설명은 부족했다.

기존의 저소득층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진로 연구에서는 이들이 처한 사회구조적 요인들과 그것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드러내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이러한 연구는 해당 집단이 처한 사회문화적 맥락을 밝히고 이들에게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드러냈다는데 큰 의의가 있지만 해당 연구에서는 개인배경요인과 같이 고정된 요인들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교육적 개입의 가능성을 탐색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 저소득층 학생들의 진로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실제적인 지원 방법을 마련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에서는 주로 사회경제적배경의 부정적 효과로 인해 진로과정이 제한되는 현상에 초점이 있었기 때문에 낮은 성취를 보이거나, 부적응을 호소하는 학생들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e.g. 이지혜, 황매향, 2017). 특히 국내의 저소득층의 진로경험에 관한 연구들은 빈곤이 청소년의 진로에 직, 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보여주고 있으나 취약한 가정배경에도 불구하고 주체적으로 진로 결정을 내리는 이들, 다시 말해 환경의 제약을 넘어서서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는 이들에 대한 관심으로까지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다(송효준 외, 2016; 홍미소, 2017).

나. 저소득층 명문대생 대학생활 경험

과거 저소득층 명문대생에 대한 연구는 주로 이들이 어떻게 명문대학교에 성공적으로 입학할 수 있는지에 관심이 있었다(Landers, 2018). 불리한 사회경제적 조건에 있는 학생들의 질 높은 고등교육 기회에 대한 접근성 향상이 목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낮은 사회경제적 배경의 학생들의 높은 중도 탈락율[2], 대학생활 부적응 문제 등이 보고되면서 점차

2) 우리나라의 경우 고등교육 중도탈락률이 매우 낮기 때문에 해외와 맥락이 다르다. 2016년 대학알리미 사이트에 공시된 전국 4년제 대학 253곳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약 7.4%의 학생들(247만명 중 18만명)이 자퇴, 미등록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했다. 또한 상위 명문대의 경우 약 1%로 가장 낮은 중도탈락률을 보이기도 했다.

대학 입학 후 이들이 겪는 경험에 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Engle, Tinto, 2008). 앞에서 살펴본 국내 저소득층 명문대생에 관한 연구는 주로 그들의 처한 경제적 어려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지만 대학 내 다양한 사회경제적배경을 지닌 학생들의 학습경험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된 해외의 경우 재정문제뿐만 아니라 정체성 문제, 문화적응 문제 등 그들의 대학 생활을 다방면에서 조명하였다.

중산층이 주류를 이루는 명문대에 입학한 저소득층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소수자가 되며(김효진, 2011), 사회경제적 배경으로 인한 제약이 더 두드러지는 모습을 보여준다(류주희, 2015). 그들은 불리한 조건에서 대학에 성공적으로 진학하여 고등교육의 기회를 얻었지만, 출발선 격차로 인해 대학 생활에서 부적응을 경험할 확률이 높으며(이지혜, 채재은, 2013), 남다른 성취동기와 의지를 지니고 대학교에 입학했지만 대학에 와서는 그 성공 경험을 잘 이어가지 못한다(이지혜, 채재은, 2013).

우선 중산층 이상 및 엘리트 계층 중심의 명문대의 환경에서 저소득층 학생들은 정체성에 혼란을 겪는다. 저소득층이지만 전통적인 연구결과와는 달리 우수한 학업성취를 달성해 명문대에 입학한 소수의 학생들이기 때문에 저소득층 집단과 엘리트 집단 두 공간 중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정체성의 혼돈 상태를 경험하는 것이다(Wildhagen, 2015). 이들은 스스로의 정체성을 '이도 저도 아닌(betwixt and between)' 상태로 묘사하며 이러한 정체성 혼란은 대학생활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대학 생활 성공에서 소속감(Sense of belonging)은 주요한 요인(Tinto, 2008)으로 손꼽히는데 이들은 쉽사리 그들의 대학에 소속감을 지니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체성 혼란은 그들이 속해있던 집단과 지역의 문화와 대학의 그것과의 간극으로 주로 발생하며 주로 문화 자본의 차이로 설명된다. 가정에서 이미 대학의 문화양식을 전수받은 학생들은 입학 후 '물만난 고기(a fish in water)'가 된다(Bourdieu & Wacquant, 1992; 김미란(2014)에서 재인용). 반면 저소득층 학생은 익숙하지 않은 문화에 잘 적응하지 못하며 소외감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이러한 계층 간 문화자본의 차이가 대학생활에 가져오는 효과에 대한 연구가 진척되면서 저소득층 명문대생을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 시도도 있었다(Jack, 2014; 2015; 2016). 같은 저소득층 대학생이라도 대학 입학 전에 수준 높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중등 교육 기관에서 수학을 했는지 여부에 따라 대학 생활의 양상이 달라졌다. 연구자는 이들을 '혜택받은 저소득층(Priviledged poor)'과 '이중고를 겪는 저소득층(doubly disadvantaged)'으로 저소득층 명문대생의 유형을 나누었다. 저소득층 대학생들 중에서도 명문 고등학교를 다닐 기회를 얻었던 학생들은 고등학교에서 얻은 문화 자본, 사회적 지위,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학업과 교수, 교우들과의 관계 형성 등 학업 외 활동에서도 중산층 학생들과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며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는 경향이 있었다. 반면 대학입학 전까지 상대적으로 교육 여건이 열악한 환경에서 자란 학생들은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일종의 문화적 충격을 경험하고 자신이 이곳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의심하며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였다.

국내연구에서도 명문 고등학교가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보여주는 사례가 있었다(이지혜, 채재은, 2013; 류주희, 2015). 특목고 및 지역 우수고 출신 저소득층 명문대생들은 고등학교가 제공하는 풍부한 학습자원 및 밀착형 관리시스템 하에서 자신의 재능을 더 발휘할 수 있었다. 학업 성취가 최고의 덕목이 되는 중등학교라는 공간 안에서 높은 성취를 보이는 저소득층 학생들은 가정에서 제공받지 못하는 풍부한 자원과 보살핌을 충분히 제공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고등학교 때까지의 경험이 대학 생활과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는지 그 효과를 면밀하게 살펴본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더불어 이들은 대학에서 은연 중에 혹은 대놓고 낙인 문제를 경험하기도 했다. 대학이라는 공간의 특성 상, 취약 계층과 사회 정의에 관한 담론을 다루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이론적 지식에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은 주로 거대한 사회구조에서 무력하고 수동적이고 무능한 존재로 그려지

며, 자신들이 왜 성공하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배운다. 자신의 삶을 능동적으로 그리고 주체적으로 살아가려는 학생들은 이러한 이론적 지식에서 괴리감 그리고 가끔은 일종의 모욕감을 느끼기도 한다(Gable, 2016). 이러한 모욕감은 학생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데, 많은 이론에서 이들의 부모는 게으르고, 선생님은 무관심하다고 묘사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낙인 효과를 피하기 위해 학생들은 자신의 출신 배경 정보를 관리하면서 대처하는 양상이 드러났다. 이들은 자신의 배경을 소극적으로 드러내지 않거나 적극적으로 재구성하는 모습(Making it by faking it)을 보여주었다(Granfield, 1991).

저소득층 명문대생의 성취와 관련하여 가정의 영향력도 다방면에서 연구되어 왔다. 사회경제적 지위, 가족 구성원의 지지 등의 개념이 연구되었으며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이 모두 보고되고 있으며 가족과 학생의 사회경제적 지위 간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경험이 드러났다. 대학교육 경험이 없는 가족에게 대학 생활의 힘든 점을 토로하고 적절한 지지를 받을 수 없거나(Tate, Fouad, Marks, Young, Guzman, 2015; Gable, 2016; Landers, 2018), 자신이 가족들에 비해 더 좋은 교육적 기회를 얻고 성취를 이룬 것에 대해 죄책감(family achievement guilt)을 느끼기도 한다(Covarrubias & Fryberg, 2015).

한편 기존의 연구들이 저소득층 출신의 학생들이 피할 수 없는 구조적 어려움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그들의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나 전략에 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것을 지적하며(Pike &, Kuh, 2005), 저소득층 명문대생의 고충과 부적응적 측면이 아닌 그들의 성공적인 대학 생활과 그 원동력을 탐구한 연구들이 시작되었다.

먼저 저소득층 학생들을 포함한 취약계층 학생들의 대학 생활을 다룬 다양한 연구에서 여러 가지 긍정 심리자본이 대학 생활 동안의 성취 경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밝혀왔다. 대학 생활을 성공적으로 이어나가고 있는 저소득층 명문대생들은 높은 자기효능감(Betts & Hackett, 1983; Chemers, Hu, & Garcia, 2011; Zajacova, Lynch, & Espensha

de, 2005; Hsieh, Sullivan, and Guerra, 2007)과 자신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자각이 있었다. 또한 성장마인드셋을 지닌 학생들은 이를 기반으로 동료와 교수와의 관계를 통해 학습하고 성장했다(Gable, 2016). 이들은 현재 자신이 다른 학생들에 비해 부족하더라도 거기서 좌절하지 않고 자신이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총동원하여 괄목할 만한 성취를 이루었다. 이러한 성장마인드셋은 저소득층 명문대생뿐만 아니라 일반 대학생들의 성취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지만, 특히 빈곤이 학업 성취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긍정심리자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Claro, Paunesku, Dweck, 2016).

또한 이들은 진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문화적, 경제적 장벽에 쉬이 부딪힐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대처할 수 있다는 대처 효능감(coping efficacy)이 높을수록 성공적으로 그들의 진로를 개척하는 경향이 있었다(Guzman & Williams, 2015). 이러한 대처 효능감은 진로 과정에서 맞닥뜨리는 진로장벽(career barrier)을 뛰어넘을 수 있는 지지요인이 되기 때문에 특히 구조적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학생들의 진로발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Hackett&Byars, 1996; Luzzo&McWhirter, 2001; Guzman & Williams, 2015).

위와 같은 심리학적 변인과 함께 이들의 성취와 진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적 변인에 대한 연구 또한 이루어졌다. 자금 대출이나 장학금 지원과 같은 직접적인 재정적 지원은 학생들의 학습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져 왔다(류주희, 한유경, 2015; 이지혜, 윤형주, 2015). 또한 이들은 다른 학생들에 비해 학우들과의 원할한 교류와 수업 및 수업 외 활동에 대한 높은 참여를 통해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었는데, 교류 정도와 참여율이 높을수록 비판적사고, 학위취득계획, 학업성공에 대한 내적 귀인, 자기 이해, 고등인지과제에 대한 선호가 더 높은 경향성을 보였다(Pascarella, Pierson, Wolniak, & Terenzini, 2004; Garcia, 2010).

이들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면서 동시에 대학 생

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졌다. 학내에 같은 배경을 가진 학생들의 커뮤니티와 학교 차원에서 형성되어 있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커뮤니티를 통해 성공적으로 대학 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모습을 보였다(Gable, 2016; Landers, 2018). 또한 자신과 비슷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지닌 저소득층 커뮤니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봉사활동 연계 방식의 수업(service learing)에 참여하면서 이들은 학업적 성장뿐만 아니라 회복탄력성을 기르고, 삶의 의미를 찾는 등 내적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Yeh, 2010).

요컨대, 저소득층 명문대생에 관련된 연구는 초기에는 주로 이들의 대학 접근성을 향상시키는데 초점이 있었으며, 이후 이들이 대학에 입학 후 겪는 부적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가 촉발되었다. 이들의 대학생활 경험에 관한 연구는 처음에는 이들이 경험하는 구조적 차별, 정체성 혼란 등 부정적 요소에 초점이 있었지만 이후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통해 성장하고 자신의 진로를 개척하는 학생들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져 어떠한 심리적 요인과 맥락적 요인이 이들의 성취를 이끌었는지 밝혀 더욱 실질적인 조언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2. 4년제 대학 졸업자의 진로과정과 대학원 진학

이번 장에서는 4년제 대학 졸업자의 진로과정에 대한 연구 및 4년제 대학 졸업자의 대학원 진학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저소득층 명문대생의 진학 과정에 대한 사회문화적 맥락을 살펴보았다.

가. 4년제 대학 졸업자의 진로과정

직업 세계로의 이행(school to work)과 경제적, 사회적 자립이 20대 후반이나 30대로 이전되고 있으며, 대학교육의 보편화 및 교육 수준 향상, 세계적인 경제 침체로 인한 실업률 증가 등의 사회변화와 맞물려 나타나게 되었다. 특히, 이러한 이행 지연 현상은 4년제 대학 졸업자의 진로과정에서 두드러지는 양상이며 관련 연구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4년제 대학 졸업자의 진로는 크게 진학, 취업, 교육훈련 중인 비경제활동, 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로 나뉠 수 있다(채창균, 2007). '2014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GOMS)'자료를 활용한 연구에서 국내 4년제 대졸자의 약 66%가 취업, 약 18%가 교육훈련 중인 비경제활동 혹은 NEET, 그리고 약 16%가 진학을 선택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영민, 임정연, 2017). 다시 말해서, 4년제 대학 졸업자의 약 34% 졸업 후 취업을 바로 하지 않고 추가적인 교육이나 훈련에 참여하거나 NEET 상태에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졸업요건을 채우고 나서도 졸업을 미루는 졸업유예까지 고려했을 때, 대학 정규과정을 마치고 바로 취업현장에 뛰어드는 학생들의 비율은 더 적다고 볼 수 있다. 국내의 4년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약 절반 정도가 휴학 또는 졸업유예 경험이 있었으며, 그 기간 또한 더 길어지고 있는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채창균, 2016).

그런데 위와같이 대학 졸업자들의 노동시장 진출 지연이 두드러지는

추세 속에서, 경제적 독립이 지연될수록 부모로부터 받는 경제적 지원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가정배경에 따라 노동시장에서 성과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Fingerman, Kim, Davis, Furstenberg, Birditt, and Zarit, 2015). 한국고용정보원의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자료를 활용한 연구에 따르면, 저소득층 대학생들은 경제적인 압박으로 인해 구직기간이 매우 짧거나, 임금이 낮은 2차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안재희, 2005; 안중기, 배호중, 2011). 가정의 소득이 높을수록 오히려 미취업 상태에 있을 확률이 다소 높게 드러났으며 이러한 현상은 충분히 만족할 만한 대안이 있지 않을 때는 취업을 미룰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이찬영, 2013). 후기 청소년의 노동시장 이행 과정에 관한 연구에서도 사회경제적 배경이 높을수록 그 기간이 더 길어지는 경향이 드러났다(변금선, 2015). 해외 연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노동시장 이행에서 계층 간의 차이가 드러났다. 영국의 'Gap year'나 뉴질랜드의 'working holiday'에 참여하는 학생들에 관한 연구에서도 불안정한 노동시장에서 안정적이고 더 나은 고용을 위해 중산계층의 학생들은 '전략적인 이행 지연 활동'을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King, 2011; Havering & Roberts, 2011). 그에 비해 저소득층 학생들은 경제적 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가장 효율적인 진로를 물색하고 서둘러 구직하고 소득을 확보하는 데 비중을 두는 것이다.

4년제 대졸자 사이에서 졸업유예, 대학원 진학, 구직활동 등의 다양한 노동시장 지연 활동이 실제로 노동 시장에서 유의미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는 지에 대한 연구 결과는 상이하지만(이전이, 유지현, 강영민, 2017),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더 나은 일자리를 얻기 위한 일종의 '전략'으로 기능한다는 데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대학생 시기에는 여전히 진로에 대한 혼란과 갈등을 경험하는 중등시기 청소년의 특성을 보유하고 있다(하문선 외, 2014). 특히 국내에서는 대학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청소년들이 중등교육 단계에서 자신의 진로에 대해 충분히 숙고할 시간을 가지지 못하고 대학 진학 후에 본격

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는 대학생들이 많다(안선영, 장원섭, 2009; 한미희, 2011; 선혜연, 이제경, 김선경, 2012). 이에 기존의 대학생 진로발달 연구에서는 진로발달 정도를 파악하는 데 진로성숙도, 진로결정수준, 진로준비행동 등의 변인들이 사용된다(조규형, 2018). 즉, 진로가 확실히 결정되고 그에 따라 구체적인 구직행동을 하는 것을 가장 바람직한 진로발달 상태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노동시장 진출 지연이 더 나은 일자리를 얻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여겨지는 상황 속에서, 저소득층 대학생의 진로과정에 대한 연구에서 목격되는 현실적이고, 효율적이고, 신속한 진로 결정이 단순히 그들의 뛰어난 진로 역량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하기는 힘들 것이다(변금선, 2015; 이지혜, 황매향, 2017). 이들의 진로발달을 다른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나. 4년제 대학 졸업자의 대학원 진학

대학원은 학제 상 가장 최상위 단계에 위치하며 고등인력 양성의 기능을 하는 교육기관으로 설립되었다. 도입 초기에는 교수 요원 양성을 위한 엘리트 교육기관으로 기능하였으며 소수의 인원에게만 주어진 제한된 기회였다. 1990년대 이후 전문대학원 제도 도입을 시작으로 매우 빠르게 팽창하기 시작하였으며 2000년대 이후에는 약 30만명에 달하는 규모로 성장하였다. 이는 대학원 제도의 개혁을 통해 양적으로 공급 규모가 팽창한 것과 동시에 국내의 산업구조가 점점 고도화되면서 고급인력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한 결과로 볼 수 있다(이정미, 2013).

대학원의 유형은, 고등교육법 제 29조 2항(대학원의 종류)에 따르면, 교육목적에 따라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으로 구분된다. 일반대학원은 학문의 기초이론 및 학술연구를, 전문대학원은 전문직업 분야의 인력양성에 필요한 실천적 이론 적용 및 연구를, 특수대학원은 직업인을 포함한 일반 성인을 위한 계속교육을 목적으로 설치되고 운영되

고 있다[3]. 일반대학원의 1차적인 설립목표는 학문후속세대 양성에 있지만(신현석 외, 2005), 고등교육이 보편화된 시점에서 일반대학원은 연구인력 양성기능뿐만 아니라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양성기능을 담당하고 있기도 하다는 측면에서 전문대학원과 그 기능적 역할을 공유하고 있다(엄미정 외, 2012)[4].

위와 같은 국내 대학원의 성장 및 기능적 다양화와 함께 국내의 대학교육이 보편화되면서 대학원 진학은 4년제 대학 졸업자에게 유의미한 진로 대안 중 하나로 자리잡았다(오창환, 정철영, 2009). 이러한 연구는 주로 교육과 노동시장에 관한 이행연구의 일환으로 패널데이터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대학원 진학은 직업의 안정성, 기대 소득, 사회적 지위 등 더 나은 노동시장에서의 성취를 얻을 수 있다는 인적 자본론의 관점에서 연구되었다(오창환 외, 2009; 차성현, 엄문영, 민명철, 2014; 길혜지, 백순근, 양현경, 신은주, 2018).

한편 대학원 진학 전통적인 엘리트 코스 경로로 여겨지는 것뿐만 아니라, 얼어 붙은 노동 시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상위권 대학 졸업자들이 보이는 '진로 지연 행동'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과거 대학교육이 엘리트 교육을 담당했었던 것과는 달리 대학교육이 보편화되면서 대학원이 소수의 엘리트를 양성하는 기관으로 대체된 측면도 있지만(오창환, 정철영, 2009), 대학원 진학은 소수의 엘리트들이 전문직업이 되기 위한 경로로만 해석되지 않았다. 대학원 진학 선택 요인에 대한 연구에서 대학교 졸업생에 대한 노동시장의 수요 감소로 인한 구직활동 어려움

3) 본 연구는 노동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전, 대학 졸업 후 대학원 진학을 선택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기에 일반대학원에 비해 연령이 높고 직장에 재직 중인 학생들이 주로 재학하는 특수 대학원은 제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대학원'은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을 지칭한다. 두 대학원 간의 구분이 필요할 때는 각각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으로 표기하였다.

4) 2014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GOMS)에 따르면, 대학원에 진학하는 동기는 일반대학원 학생의 경우 "전공 공부를 계속하기 위해"라는 응답이 63.7%로 가장 높았으며, "대학(원)을 졸업한 후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라는 응답이 19.2%로 다음으로 높았다. 전문대학원 학생의 경우 "대학(원)을 졸업한 후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라는 응답이 35.3%로 가장 높았으며, "전공 공부를 계속하기 위해"라는 응답이 31%로 다음으로 높았다.

으로 대학원 진학을 결정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이다(Reimer, Pollack, 2005; 김형만, 2002; 진미석, 2006). 즉 4년제 대학졸업자들은 취업난으로 인해 취업유예기관을 확보하거나 더 나은 일자리를 얻기 위한 전략으로서 대학원에 진학하고 있기도 하다.

요컨대,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으로서의 경로는 두 대학원의 설립 목적과 기능이 상이하며 진학동기 및 과정에서 차이점이 있을 수 있지만 공통적으로 사회에서 전문직업인 및 전문가를 양성하는 대표적인 교육 및 훈련 경로로서 여겨지고 있다. 또한 전문대학원과 달리 일반대학원 진학의 경우 노동시장에서 불리한 위치를 상쇄하기 위한 지연 전략으로서 해석되고 있기도 한데,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노동시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인 이행 지연 활동으로 이해될 수 있었다.

다. 대학원 진학 요인

지금까지 연구들을 통해 밝혀진 대학원 진학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가정배경 요인과 학교 배경 요인이 있다(길혜지, 백순근, 양현경, 신은주, 2018).

우선 부모님의 교육 수준과 경제 수준이 높을수록 대학원에 진학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문대학원 진학자들의 경우 대학입학 당시 가구 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가 45%로 매우 높은 소득 수준을 보였으며, 대학 졸업 당시에도 역시 전문대학원생의 월 부모소득이 일반대학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영민, 임정연, 2017). 이는 가정의 경제 수준이 높고 부모의 교육 수준이 높은 중산층 이상의 경우 자녀에 대한 부모의 교육투자 요구가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김기헌, 2004; 채창균, 2007; 이영민, 임정연, 2011; 이영민, 임정연, 2017).

사회계층별로 나타나는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진학 포부에 관한 연구에서도 계층별로 이러한 차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기도 했다(김희순, 2006). 상층의 어머니의 80%가량이 자녀의 대학원 진학을 바라는 반면,

하층의 어머니는 72%가 대졸을 바라고 있고 현실적 학력 포부에서도 상층의 모든 어머니가 “현실적으로도” 자녀가 100% 대졸, 나아가60% 이상 대학원에 진학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반면 중층과 하층의 경우 미미하지만, 현실적으로 고졸을 예상하는 어머니도 있었다. 바라는 최소 학력 수준도 상층 어머니는 30% 이상 대학원 졸업을 욕망하고 있는 반면 최소 학력수준을 대학원으로 생각하는 하층의 어머니는 아무도 없었다.

또한, 2015년 대학원생 1905명을 대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한 「대학원생 연구환경에 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등록금 조달 방법으로 28.4%의 학생들이 가족이나 형제, 지인의 지원을 통해 조달한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장학금(47.8%), TA, RA, 등 행정 조교로서의 수입으로 충당(30.3%)의 뒤를 이어 3위를 차지했다. 또한 생활비 조달방법으로는 42.5%의 학생들이 가족이나 형제, 지인의 지원을 통해 조달한다고 응답하여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대학원 진학 결정에 관한 학교 배경 요인으로는 대학 소재지, 전공 계열, 대학생활 만족도가 있다. 먼저 대학 소재지는 서울 소재 대학에 다닐수록 대학원 진학 가능성이 높았으며, 공학 계열 및 자연 계열 전공생일수록 일반대학원에 진학하는 비율이 높았다. 마지막으로 전공 교수진의 능력 및 열의를 포함하는 대학생활 만족도가 높을수록 대학원 진학 비율이 높았다(이영민, 임정연, 2011; 2017). 위에서 살펴본 연구들은 대학원 진학의 결정요인을 밝혔으나, 제한된 응답을 통해 이루어진 통계자료를 활용한 연구로 개인 수준에서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대학원에 진학했는지 살펴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사회경제적 배경의 효과는 저소득층 대학생의 진로과정 및 진학과정에서 부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지만, 저소득층 명문대생들의 경우 개인 단위에서는 저소득층이지만 학교 단위에서는 명문대생이라는 상반된 조건으로 인해 좀 더 복잡한 양상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저소득층 명문대생으로서 주변의 중산층 명문대 학생들과는 다른 저소

득층 대학생의 삶을 경험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진로에 있어서는 명문대생에 오히려 방점을 두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김효진, 2010). 또한 해당 집단의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매우 동기부여가 잘되어 있는 자기 주도적 학습자인 경우가 많으며 고등학교 때까지 성공 경험이 풍부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학생들은 종종 학업우수자로서 포부가 높은 경우가 많으면서 동시에 높은 교육 성취와 직업 지위를 추구하는 이유로 사회개혁(Granfield & Koenig, 1980)을 들기도 한다. 자신이 처한 어려운 가정 환경을 극복하고 가족들에게 힘이 되거나, 사회에 기여하고, 자신이 받았던 돌봄을 다시 환원하려고 하며(이종범, 최동선, 오창환, 2012; 홍미소, 2017; Khanh, 2002; Gable, 2016), 노동자 계층 자녀 중 로스쿨에 입학한 학생들의 경험에 관한 연구에서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한 진로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출신 배경을 가장 큰 요인으로 꼽기도 했다(Granfield, 1991). 이렇듯 취약 계층 출신의 학생들은 자신의 배경을 단순한 제약 조건이 아닌 개인의 성장과 사회 기여의 동력으로 여기기도 한다.

Ⅲ. 연구방법

1. 질적 사례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저소득층 명문대생의 진학 포부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살펴봄으로써 저소득층 대학생들의 성장과 진로과정에 대한 제도적 지원 및 교육적 개입에 관한 시사점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저소득층 명문대생은 실제로도 적게 존재하고 연구대상으로서도 지금까지 거의 관심을 받지 못했다. 이렇듯 저소득층이면서 명문대에 입학한 이들은 기존의 연구에서 포착되지 않는 예외적 존재이면서, 동시에 교육기회와 사회 이동성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대상으로서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들의 학습경험과 성장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질적 연구 방법을 택하였다. 발달 연구에서 기존의 양적 데이터로 포착할 수 없었던 새로운 발달 현상을 밝히고, 양적 연구에서 설명되지 못했던 집단에 대한 이해를 위해 질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Brady & Collier, 2004). 저소득층 명문대생의 경우 진로과정에서 사회경제적 배경효과에 대한 기존의 양적 연구로는 설명되지 않는 집단이기 때문에 질적 연구방법이 이들의 학습과 성장을 탐구하는 데 적절하다.

또한 본 연구는 질적 연구 방법 중 사례연구(case study)방법을 택하였다. 사례연구는 비교적 분명한 특성과 경계를 지닌 하나 혹은 복수의 사례를 깊이 있게 분석함으로써 “왜” 혹은 “어떻게”라는 질문에 대답하고자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Yin, 2009). 또한 어떠한 현상의 변화과정을 살펴볼 때 적합하며 기존의 이론을 검증하거나 확장하는 데 용이한 방법이다(유기웅 외, 2018). 본 연구의 경우 저소득층 명문대생의 진학 포부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탐색하는 연구로, 기존의 저소득층 명문대생에 관한 경험적 연구의 이론을 검증하고 확장하고자 한다. 사례연

구는 이러한 연구목표에 부합하는 연구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사례연구를 설계하는 데 앞서 먼저 '사례'란 무엇이며, 왜 하필 해당 사례를 선정하여 연구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례는 우선 제한된 맥락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개인, 개인이 지닌 속성, 행위와 상호작용, 행위를 통해 산출된 인공물, 행위가 일어나는 환경, 사건, 집단의 산출물이 될 수 있다(Brewer, Hunter, 2006). 또한 모든 사례가 연구대상으로서 적합한 것은 아니며 연구대상으로 사례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의 특성을 지닌다. 연구대상으로서 사례는 첫째, 주변의 사례들과 여러 가지 이유로 구분이 가능해야 한다. 둘째, 내포하고 있는 구체적인 현상이나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셋째, 해당 현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 해당 사례가 처한 맥락을 따로 떼어놓고는 충분한 이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넷째, 양적연구에서는 제한적으로 설명되는 복잡한 요인들 간의 관계성과 상호작용이 있다. 다섯째, 역사연구와의 구분을 위해 현재성을 가진 사례를 대상으로 한다(유기웅 외, 2018). 본 연구는 저소득층 명문대생의 진학 포부 형성과정을 사례로 선정하였으며 해당 사례는 위에서 서술한 연구대상으로서 사례의 특성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례연구는 그 목적을 어디에 두는지에 따라서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Stake, 1995). 첫째로 사례가 가지는 독특성 때문에 사례 자체에 의미를 두는 본질적 사례연구(intrinsic case study), 다음으로 해당 사례가 어떠한 현상에 대한 통찰을 제공해주거나 관련된 이론의 설명력을 개선하는 데 이용하는 도구적 사례연구(instrumental case study), 마지막으로 여러 사례를 동시에 연구함으로써 어떠한 현상이나 집단에 대해 더 많은 이해를 얻기 위해 실시하는 집합적 사례연구(collective case study)가 있다. 이러한 세 가지 유형으로 모든 연구들이 뚜렷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지만 질적 사례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틀이 된다(유기웅 외, 2018). 본 연구의 경우 여러 사례를 동시에 연구하여 사례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추출하고 저소득층 명문대생이라

는 집단에 대한 이해 및 진로과정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함으로 기본적으로 집합적 사례연구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저소득층 명문대생의 진학 포부 형성과정이라는 사례를 통해 고등교육 기회와 사회이동성에 관한 통찰을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도구적 사례연구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참여자

가. 연구참여자 선정기준

질적 연구에서 연구참여자 선정과정은 매우 중요하다. 질적 사례연구에서는 그 목적이 특정 현상에 대한 서술과 해석, 통찰과 발견에 있으므로 연구자가 연구하려는 내용과 관련하여 깊이 있고 풍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사례들을 목적을 가지고 선정하는 표집 방법이 적합하다(Creswell, 2007).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며, 기존의 연구를 보완할 수 있는 대상을 의도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저소득층 명문대생으로 가장 먼저 저소득층과 명문대 재학생이라는 두 가지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두 가지 기준을 만족하면서 현재 진로 상황과는 상관없이 진로탐색 시기에 진로를 대학원이나 전문대학원으로 설정한 사람을 선정하였다. 따라서, 참여자들은 대학 졸업 후 대학원에 진학 예정이거나 진학 중이거나 졸업한 경우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었다. 본 연구가 대학 시기 진로포부 형성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진로상황이 각자 다른 것은 연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아래는 본 연구의 저소득층 기준과 명문대 기준을 서술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제시된 대상자 조건에 의해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일반적으로 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수급권자를 의미한다(보건복지부, 2019). 뿐만아니라 사회적 통념으로서 저소득층은 복지 수혜층뿐만 아니라 영세민을 포함하여 불안한 취업상태에 처해있는 근로자들을 총괄하여 지칭하기도 하며 주택지원 등의 제도의 수혜계층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한편 저소득층 대학생에 관한 연구에서는 가정의 경제적 상황을 기준으로 장학생을 선발하는 민간장학금 및 국가장학금 선정 기준을 활용하기도 한다(류주희, 2015; 이지혜, 황매향, 2017; 홍미소, 2017). 이는 일반적으로 기초생활수

급자 또는 차상위 수급권와 소득 1~2분위 가정의 학생들을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정결과를 기준으로 등록금이 초과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 480만원까지 지원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수급자와 소득 1~2분위(월 소득 78만원~243만원) 가정의 학생들을 저소득층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우선 저소득층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의 기준을 참조하였으며, 연구참여자들의 학교에서 저소득 계층에게 제공되는 각종 복지혜택(생활비, 도서구입비, 교환학생, 해외활동 장학금 기준)의 기준점을 바탕으로 설정하였다.

다음으로 명문대는 근 10년간 국내의 중앙일보 대학평가, 해외의 QS 세계대학랭킹, U.S뉴스 대학평가순위 및 10년간 대학교 지원 가능 점수 배치표상 순위를 고려하였으며, 의학계열 및 이공계열 등의 특수목적 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 중 3곳을 선정하였다. 해당 대학은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로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명문대로 불리는 명성 있는 대학들이다.

나. 연구참여자 모집 과정

연구자가 해당 연구대상에 대한 접근성을 갖추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자발적인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는 이상 접근하기가 어려웠다. 또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이기 때문에 자신의 사회경제적 상황이 노출되는 낙인효과의 문제가 있고 수적으로도 소수에 속하기 때문에 연구참여자를 모집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연구자를 모집하였다.

처음에는 학내 커뮤니티에 연구참여자 모집 글을 올려 자발적으로 참여의사를 밝힌 4명의 참여자 중 기준에 만족하는 참여자를 1차적으로 2명 확보하였다. 2명의 사례를 통해 우선 연구를 진행하면서, 연구의 사례수를 더 확보하기 위해 또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였다. 연구자와 같은 고등학교 출신 학생으로 연구자가 대학입시 조언을 제공한 적이 있는 학

생이 연구참여자로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연락을 취했으며 연구에 참여했다. 이후 해당 학생의 소개로 2명이 추가로 연구 참여 의사를 밝혔다. 또한 문헌 분석 과정에서 명문대 출신이면서 자신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밝힌 석사학위 논문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에 연구자는 논문에 명시되어 있는 개인 이메일을 통해 연락을 취했으며,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 해당 연구자는 빈곤 청소년의 진로과정을 주제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연구자와 비슷한 문제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다.

위와 같이 총 6명에 대한 자료수집을 마친 이후에 연구자는 이론적 배경과 수집한 자료를 비교 분석하면서 사례 수를 더 추가해야 할지 판단하였다. 복수의 사례를 대상으로 하는 질적 사례 연구에서 표본의 수는 양적 연구에서의 표본추출 논리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형적인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필요한 사례 수는 해당 사례의 결과에 대해 얼마만큼 확신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Yin, 2003). 이에 연구자는 추가적인 사례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학내 커뮤니티에 연구참여자 추가 모집 글을 올렸다. 이를 통해 5명이 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이 중 기준에 충족하는 3명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

학내 커뮤니티를 통한 모집과정에서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었다. 모집글에 저소득층의 조작적인 기준을 명기하였으나 이를 간과하고 자신이 스스로 저소득층이라고 판단하고 연락을 취한 사람이 2명 있었다. 이 사람들의 소득분위는 각각 4분위, 7분위였으며 스스로를 저소득층으로 분류하였기 때문에 연구자에게 연락을 취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 기준점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연구참여자에서 제외시켰지만 이러한 사실은 두 가지 쟁점을 던져주었다.

우선, 저소득층에 대한 논의에서 단순히 객관적 소득 수준뿐만 아니라 “주관적 계층의식”(조동기, 2008)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더 풍부한 논의를 위해서는 객관적 조건과 상관없이 어떤 다른 요인에 의해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주관적 인식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4분위 참여자의 경우 지방 출신으로 서울에 상경하여 생활했던

학생으로 높은 생활비 및 사립학교의 비싼 등록금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었다. 국가장학금은 3분위까지 연간지원액이 최대로 지급되며 4분위부터는 부분 지원된다. 또한 학내에서도 저소득층 관련 복지혜택을 받는 데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대학 생활 중 그 아래의 소득분위의 학생보다 재정적 어려움을 크게 느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복지 지원의 경계에 위치한 대학생의 학습경험은 또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기에 추후 연구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 연구참여자의 특성

위의 모집과정을 통해 본 연구에 참여하게 된 명문대학교에 입학한 저소득층 학생들은 총 9명이다. 면담을 통해 출생년도, 성별, 출신 고등학교명, 소재지, 졸업년도, 부모 학력 및 직업 분야, 국가장학금 및 민간장학금 기준 가구 소득 등의 개인 배경 정보와 대학 입학 및 졸업년도, 대학입학전형, 전공, 복수전공 및 부전공, 학업성적(GPA) 등의 대학 생활 관련 정보를 수집하였다. 해당 정보는 연구참여자의 개인 신상 정보 보호를 위해 상위 범주로 서술하였다. 연구결과에도 포함된 전사 자료에 구체적인 도시명, 학교명 등의 개인 정보를 포함하지 않도록 처리하였다. 단, 연구결과에서 그 구체적인 맥락성이 중요한 경우 몇몇 정보를 서술하였으며, 이를 연구참여자에게 알려 동의를 얻은 후에 기입하였다.

우선, 연구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정보로 나이는 만 22세부터 30세까지 걸쳐있으며, 여자가 6명 남자가 3명이었다. 사회경제적 배경으로 부모의 학력과 직업, 가정경제 상황을 수집하였다. 직업의 경우 연구참여자의 특성상 부모의 직업이 불안정하고 바뀌는 경우가 많아 대학 진학 시기부터 대학 졸업 시기까지를 기준으로 하여 표기하였다. 또한 소득분위의 경우에도 대학입학 후 졸업할 즈음에 경제상황이 3분위로 개선된 경우가 있었는데 대학재학 시절을 기준으로 표기하였다. 우선 어렸을 때 이혼으로 아버지가 부재한 경우가 2명,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가 1명이었다. 아

버지 학력의 경우 고등학교중퇴(검정고시졸업) 1명, 고졸 1명, 대졸 5명, 석사졸 2명으로 대졸이 가장 많았다. 석사 졸업의 경우 아버지 직업이 목회자로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경우였다[5]. 어미니 학력의 경우 고졸이 5명, 대졸이 4명이었다. 직업의 경우 목회자인 2명의 사례를 제외하고 무직이거나 노점상, 자동차정비, 야채 장사, 베이비 시터, 미용사 등 불안정한 비정규직인 경우가 많았으며 회사원이더라도 성과에 따라 소득의 편차가 큰 직업으로 영세자영업의 성격을 띤 경우가 있었다. 소득분위 구성은 국가장학금 기준으로 기초 생활 수급자 2명, 1분위 5명, 2분위 1명 그리고 민간장학금 기준으로 중위소득 60% 1명[6]이었다. 형제의 학력도 조사하였는데, 연구참여자만큼의 학업성취를 보인 형제가 있는 경우는 없었다. 형제는 두 사례를 제외하고는 모두 1명이었다. 고졸 1명, 대학중퇴 1명, 지방사립대 4년제 대학 3명, 지방국립대학 4년제 1명, 서울 소재 대학 4년제에 4명으로 형제가 재학 중이거나 졸업했다.

고등학교 진학은 지역 명문 자사고 3명, 비평준화 지역 명문고 2명, 지역 일반 사립고 2명(3년 장학생 입학), 지역 일반 공립고 2명으로 집계되었다. 대학입학 유형은 수시가 8명 정시가 1명이었으며, 수시 전형은 저소득층 전형 3명, 지역균형 3명, 농어촌전형 1명, 논술전형 1명으로 다양하였다. 전공 계열은 인문사회계열 3명, 자연과학계열 3명, 공학기술계열 2명, 사범교육계열 1명이었다. 9명 중 6명이 복수 전공 및 부전공을 이수하였다. 총 이수 학기는 조기 졸업 예정 학생인 경우를 포함하여 최소 7학기부터 최대 12학기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었으며, GPA는 백분율

5) 참여자 C와 참여자 D의 경우 목회자의 가정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전형적인 저소득층 가정과는 구별되는 지점들이 있었다. 해외에서도 'PK(Pastor's Kids)'라 불리며 목회자 자녀에 관한 경험적 연구가 이루어지는 등 이들의 특정한 성장배경에 대한 연구는 다른 청소년 집단과 구별되어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다. 이에 연구자는 이들의 사례를 제외해야 할지 고심했으나, 본 연구에서는 저소득층 가정환경의 다양한 양상과 요인들을 함께 살펴보는 데 의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사례를 제외하지 않았다.

6) 연구참여자가 해당 민간장학금에 지원할 당시 저소득 계층 기준은 가구 월평균 소득 중위소득 대비 60% 이내였으며, 국가장학금의 2분위 소득구간은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 50%로 책정한다.

환산 점수로 평균 91.9점이었다. 이와 같은 연구참여자들의 주요 특성을 정리한 표는 아래 <표 Ⅲ-1>과 같다.

<표 Ⅲ-1> 연구 참여자 주요 특성

참여자 (나이, 성별)	학력		가정 경제	고등학교	입학 유형	전공	다전공	진로과정
	부	모						
참여자 A (28세, 여)	고졸	고졸	차상위	지방 명문 자사고	수시	자연과학 계열	-	대학->동대학 대학원->전문대학원
참여자 B (30세, 여)	대졸	고졸	1분위	지역 일반 공립고	정시	자연과학 계열	인문사회 계열 부전공	대학->동대학 대학원->국제개발협력기구->관련 연구소->약학대학 진학
참여자 C (29세, 여)	석사졸	대졸	중위소득 60%이내	지역 일반 사립고	수시	인문사회 계열	인문사회 계열부전공	대학->1년 유예(아르바이트 및 대학원 진학 준비)->동대학 대학원
참여자 D (29세, 남)	석사졸	고졸	1분위	지역 일반 사립고	수시	인문사회계열	인문사회 계열복수전공	대학->기독교 대안 공동체 간사->대학원(예정)
참여자 E (29세, 여)	대졸	대졸	기초생활 수급	지방 명문 자사고	수시	사범교육계열	인문사회 계열 복수전공	대학->국제개발협력기구(인턴)->동대학 대학원->취업
참여자 F (22세, 여)	대졸	대졸	1분위	비평준화 지역 명문고	수시	자연과학계열	자연과학 계열 부전공	대학->동대학 대학원(예정)
참여자 G (22세, 여)	대졸	대졸	2분위	지방 명문 자사고	수시	공학기술계열	-	대학->동대학 대학원(예정)
참여자 H (25세, 남)	이혼	고졸	기초생활 수급	일반 공립고	수시	인문사회계열	인문사회 계열 복수전공	대학->전문 대학원(예정)
참여자 I (27세, 남)	대졸	고졸	1분위	비평준화 지역 명문고	수시	공학기술계열	-	대학->1년유예(봉사활동)-> 동대학 대학원

3. 자료수집 및 분석

가. 자료수집

사례연구에서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두 개 이상의 자료원을 사용할 필요가 있으며, 다양한 자료수집 방법을 활용하되 다양한 자료들이 모두 동일한 사실과 발견에 대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Yin, 2003).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 면담, 연구참여자가 작성한 기록물 그리고 연구참여자 소속대학의 저소득층 지원 제도 정보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자료를 확보하였다. 이중 본 연구의 주된 자료는 면담 자료이며 연구참여자의 기록물과, 소속학교 정보는 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조자료로 활용되었다.

(1) 연구 참여자 면담

본 연구의 주된 자료는 연구참여자 9명의 연구참여자의 성장과정, 대학입학 및 재학, 대학졸업 및 대학원 진학 등에 관한 경험이 담긴 면담이다. 면담조사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이루어졌으며 연구참여자 당 1회 90분이 소요되었다. 면담의 시간과 장소는 참여자의 편의를 최대한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였으며, 면담 후 추가 질문이나 확인 사항이 있을 때는 문자와 이메일을 활용하였다. 모집을 통해 연구참여 의사를 밝힌 참여자에게 연구설명서 및 개인정보 등에 대한 안내문을 미리 메일로 발송하였다. 면담 당일에는 연구설명서와 동의서를 준비하여 연구의 목적, 연구과정, 참여에 대한 이익, 개인정보 처리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다. 이후 면담에 대한 녹취와 연구에 대한 참여에 동의한다는 참여자의 자필 서명을 받았다. 면담은 연구자가 사전에 준비한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크게 대학 입학 전, 대학 시기,

대학졸업 후 시기로 나누어 시간 순서로 진행하되 대화의 흐름에 맞게 유연하게 시간을 넘나들었으며 개방적인 자세로 대화를 진행하였다.

(2) 연구 참여자 기록물

연구 참여자들의 동의를 얻어 진학 포부에 관한 내용이 담긴 대학 및 대학원 진학, 장학금 지원 시 작성했던 자기소개서 및 진로계획서 등을 보조 자료로 활용하였다. 9명 중 6명이 면담 후 메일로 추후 제출하였으며, 대학 지원서 2개, 대학원 지원서 6개, 장학금 지원서 4개를 확보하였으며 한 연구참여자의 경우 장학금 지원시 면접대비를 위해 작성했던 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였다. 해당 자료는 개인정보 문제로 논문에 직접적으로 기재하지 않았으며 회고적 진술의 한계를 보완하고, 주요 자료인 연구 참여자의 진술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등의 보조적 역할로서 활용하였다.

(3) 연구 참여자 소속대학의 저소득층 지원 제도 정보

연구 참여자를 선정한 이후 연구참여자의 배경맥락적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연구참여자가 속한 학교의 저소득층 지원 제도에 대한 자료를 추가적으로 수집하였다. 해당 자료는 기본적으로 각 학교의 공식 웹사이트 및 포털 사이트를 통해 수집되었으며, 해당 학교의 재학생을 통해 접근성을 확보하였다.

국내 고등교육에서 저소득층에 관련한 제도를 마련하고, 실시하기 시작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다. 처음에는 저소득층의 교육기회 접근성에 대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입시 제도에서 변화가 일어났다. 2007년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고등교육의 전략적 발전방안』을 필두로 점차 확대되어가는 교육기회 격차에 대한 문제 인식이 커지면서 '사회통합 전형', '사회적 배려자 전형', '고른기회 특별전형' 등으로 불리는 입시 전

형이 명문대학교를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해당입시전형이 자리잡으면서 단순히 좋은 대학에 들어간다고 해서 취약 계층의 학생들의 성취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고등학교와 달리 대학에서는 학업뿐만 아니라 자기계발 및 진로와 관련된 다양한 역량과 변화가 요구되기 때문이다(김창환 외, 2014). 저소득층 학생들은 초중고 시절 자신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환경적 제약을 뛰어넘어 대학교에 성공적으로 입학했지만 각종 자격증 준비, 주거비, 생활비 등 학업 이외의 생활도 자력으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서 많은 제약에 부딪히게 되며 쉬이 대학생활에서 부적응을 경험한다는 사실을 많은 연구들이 보고하였다(김미란, 2014; 성문주, 2015; 이지혜, 윤형주, 2015; 이지혜, 채재은, 2013).

위와 같은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가 속한 명문대학교에서는 입시제도의 정비와 함께 교내에서 저소득층 학생들의 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하기 시작했다. 본 연구는 저소득층 명문대생의 맥락적 요인을 고려할 때 이들이 처한 어려움뿐만 아니라 이들이 포착할 수 있는 기회의 측면에도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고자 한다. 따라서 어떠한 제도와 지원이 해당 집단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기 위해 연구 참여자가 속한 명문대학에서 제공하는 저소득층 지원제도를 최대한 수집하였다. 단과대학이나 학과차원에서 제공되는 범위까지의 자료는 연구자의 역량으로는 수집하지 못했으며 학교 전체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까지만 포함하였다. 자료는 각 학교의 공식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를 통해 조사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학교별로 크게 입시제도, 장학금지원제도, 생활비지원제도, 학업지원제도, 해외경험 지원제도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3-1) 서울대학교

- 입시제도

서울대학교는 정원 외 전형으로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I』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저소득과 농어촌 전형으로 세분화되어있으며 아래 <표 Ⅲ-2>에 저소득층의 모집인원을 모집단위별로 정리하였다. 이 중 해당 전형을 통해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을 모집하는 인원은 74명으로, 이는 서울대학교 학년별 학생 수의 약 3%에 해당한다.

<표 Ⅲ-2> 서울대학교 저소득층 입시 전형 모집단위별 모집 입원

단위: 저소득층 모집인원/ 모집단위 전체인원(명)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농업생명과학대학	의과대학
7/245	8/273	7/229	16/627	12/234	2/108
미술대학	**사범대학**	**생활과학대학**	**수의예과**	**음악대학**	**자유전공학부**
2/106	8/227	2/75	4/48	3/155	3/129

- 장학금지원제도

학비의 경우 국가장학금으로 전액 충당되는 경우가 많아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학자금 지원 장학금은 따로 찾아볼 수 없었다. 교내에서 저소득층을 고려하여 제공되는 장학금은 근로장학금이 있었다. 근로장학금의 경우에 가계가 빈곤한 학생을 우선순위로 권고하고 있지만, 필수사항은 아니었다. 근로 유형4 및 근로유형5의 경우에 한국장학재단과 협력하여 제공하는 장학금으로 소득분위 기준이 따로 마련되어있었다. 교내 근로장학금의 시급단가는 8,350원이었으며 주 10시간에서 15시간 정도의 시간 동안 근무가 가능했다.

- **생활비지원제도: 『선한인재장학금』**

서울대학교에서는 국가장학금 신청 자 중 소득구간 2구간 이하의 학생(재학생은 직전학기 평균평점 2.4이상)을 대상으로 생활비 명목의 장학금을 제공하고 있다. 소득 0~1구간의 경우 월 30만원, 2구간의 경우 월 20만원의 생활비가 방학기간을 포함하여 제공된다.

- **학업지원제도: 『서브라임 학습공동체』**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제공하며,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 신입생의 대학생활 적응 및 학업역량 향상을 지원하는 라는 이름의 학업지원 제도가 있다. 학내 대학원생과 1:1 매칭을 통해 수학, 과학, 영어, 글쓰기 등 기초학업 역량 향상을 지원하고 대학생활 적응을 위한 멘토링을 제공한다. 한 학기에 총 8회의 튜터링이 진행된다.

- **해외경험 지원제도**

서울대학교에서 제공하는 해외경험 지원제도는 『SNU in World』, 『해외수학장학금』이 있다. 『SNU in World』의 경우 서울대 학생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되는 해외 연수 제도로 언어 학습, 해외 현지 협업기관 방문 및 교육, 체험학습, 현지 저명인사의 강의를 통한 정치, 사회, 문화, 경제 지식 습득 등의 기회를 제공한다. 하계와 동계 방학에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2019년 기준으로 하계 프로그램의 경우 베이징, 도쿄, 모스크바, 파리, 베를린, 마드리드, 런던, 실리콘 밸리, EU, UN에 동계 프로그램에서는 워싱턴 D.C., 캘리포니아, 호주, 미네소타에 3주에서 7주 간 파견되었다.

서울대학교 국제협력본부에서 프로그램 운영비, 숙박비, 여행자 보험료 및 프로그램 관련 제반 비용 전체를 부담하며 학생은 계절학기 등록비를 포함한 참가등록비와 왕복항공권 및 현지활동비를 부담하면 된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한국장학재단 소득 0~1구간(분위)에 해당

하는 학생의 경우 참가등록비가 납입 면제되며, 왕복항공료 및 현지활동비(현지일정 1주 당 25만원)를 지원한다.

『해외수학장학금』은 파견교환학생 선발자에 대한 학업장려비이다. 해당 장학금의 선발 여부와 장학금액은 국가장학금 소득분위에 따라 결정된다. 소득분위 0~5분위는 전원선발되며, 2019년 기준 미주 및 유럽권 국가의 경우 600만원이 지급되며 그 외 아시아, 오세아니아 등의 국가의 경우 480만원이 지원된다.

3-2) 연세대학교

- 입시제도

연세대학교는 정원 외 전형으로 『고른기회전형』을 운영하고 있다. 이 전형은 연세한마음학생전형, 농어촌학생전형, 특수교육대상자전형, 북한이탈주민전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정원 외로 선발된다. 모든 전형은 1단계 학생부 100%, 2단계 면접 전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연세한마음학생전형을 통해 저소득층 학생들을 선발한다. 타 학교에 비해 특기할 만한 점은, 선발 시 각 학과별 정원이 아닌 전형별 정원총수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점은 고려대학교가 각 학과마다 정해진 수의 학생만을 선발하는 점과 대비된다. 연세한마음정원의 선발 인원은 80명이며, 이는 연세대학교 총 정원 3,431명 대비 약 2.2%에 해당된다.

- 장학금지원제도

저소득층 등록금의 경우 국가장학금으로 전액 충당되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 더하여 연세대학교는 2005년부터 저소득층 대상 장학금을 폭 넓게 운영해오고 있다. 대학배정장학금을 통해 가계곤란자에게는 자유장학금을 등록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다.

- 생활비지원제도

연세한마음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의 경우에 한에 한 학기에 120만원의 생활비가 지급된다. \

3-3) 고려대학교

- **입시제도**

고려대학교는 정원 외 전형으로 『기회균등전형』을 운영하고 있다. 이 전형은 고른기회, 사회공헌자, 농어촌 학생, 사회배려자, 특수교육대상자, 특성화고교졸업자, 특성화고등을 졸업한 재직자 전형으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이 중 고른기회전형을 통해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을 모집하고 있다. 고른기회전형을 통해 모집하는 인원은 37명으로, 이는 고려대학교 학년별 정원 3,859명의 약 1%에 해당한다. 단과대학별 모집인원은 아래 <표 Ⅲ-3>과 같다.

<표 Ⅲ-2> 고려대학교 저소득층 입시 전형 모집단위별 모집 입원

단위: 저소득층 모집인원/ 모집단위 전체인원(명)

경영대학	문과대학	생명과학대학	정경대학	스마트보안학부	공과대학
2/320	6/633	5/364	4/342	0/30	6/718
의과대학	**사범대학**	**미디어학부**	**정보대학**	**디자인조형학부**	**국제학부**
0/106	2/370	1/72	1/115	0/50	0/50
심리학부	**이과대학**	**자유전공학부**	**간호대학**	**보건과학대학**	
1/52	3/166	1/95	1/60	4/316	

- **장학금지원제도**

저소득층 등록금의 경우 국가장학금으로 전액 충당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고려대학교는 2015년부터 성적장학금을 전면 폐지하고, 해당 장학금액을 저소득층을 위한 정의장학금 (미래로장학금 및 면학장학금)을

운영하고 있다. 미래로장학금은 소득 0분위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고 있으며, 면학장학금은 1-8분위 학생에게 심사를 통해 지급되고 있다. 모든 장학금은 국가장학금 신청 후, 차액을 학교에서 지급하고 있다. 소득 0분위 학생에게는 등록금 100% 면제 외에도 매달 생활비 30만원이 지급되고 기숙사비가 면제된다.

- **생활비지원제도: 『미래로생활비장학금』, 『KU Pride Club 생활비장학금』**

면학장학금 신청자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미래로생활비장학금을 수령하여 생활비를 보조할 수 있고(월 30만원 및 기숙사비 보조), 동문들의 자발적 참여로 모금되는 KU Pride Club 장학금을 수령할 수 있다.(월 20만원)

- **해외연수 지원제도**

교환학생 및 방문학생으로 파견되는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KU Pride Club 글로벌 희망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파견 직전학기 소득이 0-3분위인 학생들에게 제공되는데, 이 장학금은 왕복 항공료 및 숙소비, 생활비를 모두 지원한다. 소득분위별로 지정된 금액이 차등적으로 지급되고 있다.

나.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주요 자료는 연구참여자가 진술한 내용을 그대로 옮긴 전사자료이다. 면담 자료 분석의 첫 단계는 수집한 자료를 코딩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코딩은 현상의 내면적인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자료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어휘, 주제, 장면 등을 조사하여 이에 일정한 코드를 부여함으로써 자료를 체계화하는 작업을 말한다(조용환, 1999: 53). 연구자는 면담 자료를 수집함과 동시에 바로 분석을 시작하였다.

가장 먼저 기본적인 의미 단위를 생성하기 위해 전사된 면담 자료를 특정한 관점을 최대한 배제하면서 반복적이고 집중적으로 읽은 후, 참여들의 진술에서 드러나는 주요 용어를 그대로 활용하여 코드의 이름을 부여하는 개방적 코딩을 실시하였다. 이후 도출된 가장 기본적인 의미 단위를 조합하여 범주를 형성하기도 하고, 유형이나 패턴을 만들기도 하면서 연구 질문에 답하기 위한 분석 작업을 실행하였다. 이러한 분석 작업을 통해서 도출된 연구결과와 기존의 저소득층 명문대생과 이들의 진로과정에 관한 선행연구의 내용과 비교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자료 분석과정에 대한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아래 세 가지의 전략을 실행하였다. 첫째, 전사 자료를 정리하면서 연구참여자가 작성한 기록물과 연구 참여자 소속대학의 저소득층 지원 제도 정보를 고려하여 면담 자료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고, 관련 내용을 더 풍부하게 서술할 수 있도록 보충하였다. 둘째, 취약계층의 진로과정에 대한 질적 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석사 연구자 2명에게 자료로부터 도출된 결과가 타당하고, 논리적이며 일관성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의뢰하였다. 셋째, 해당 연구 결과를 연구참여자들에게 메일로 전송하여 연구결과 및 해석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였다.

Ⅳ. 연구결과

연구결과는 연구문제에 따라 크게 두 부분으로 서술하였다. 첫째, 저소득층 명문대생의 진학 포부는 어떠한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지 학업 경험 및 학업 외 경험, 가족과의 상호작용 경험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둘째, 저소득층 명문대생 진학 포부 형성과정의 양상을 분석하였다.

1. 저소득층 명문대생의 진학 포부 형성과정

본 절에서는 대학 생활경험에서 드러나는 저소득층 진학 포부 형성과정을 학업 경험, 학업 외 경험, 마지막으로 가족과의 상호작용 경험으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가. 학업 경험

본 절에서는 저소득층 출신의 명문대생으로서 학업적인 면에서 어떠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또 그러한 어려움에 잘 대처하고 성취를 이루었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 참여자의 평균 GPA는 준수했으며 이들의 학업 성과에 대한 가장 간단한 양적 지표이지만, 해당 지표는 이들의 학업적인 면에서 어떠한 성취를 이루었는지 총체적으로 살펴보기에는 제한적이다. 또한 대학생들이 단순히 높은 GPA를 달성했다고 해서 진학에 대한 포부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차성현, 엄문영, 민병철, 2014), 어떠한 학업 경험을 통해 이들의 진학 포부를 형성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영어 : ‘손도 못 대겠는 거’

연구참여자들은 경쟁력 있는 명문대학에 들어와서도 결과적으로 준수한 학업성취를 이루었으나 처음부터 순조롭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참여자 B를 제외한 나머지 참여자들은 모두 나름의 학업적 어려움을 경험했다. 학문의 기초가 되는 영어와 수학 과목 그리고 글쓰기에서 학업적 어려움이 나타났으며, 특히 영어에서 다른 학생들과의 격차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저소득층 대학생에 대한 연구와 일치한다(이지혜, 황매향, 2017). 영어는 한국사회맥락에서 대표적인 문화자본으로 인식되어 사회경제적 배경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것으로 알려져왔다. 이러한 영어자본은 사회적 성공에 있어서의 그 중요성이 문화예술보다도 더 높게 평가되기도 하며, 대학생의 진로과정에서 큰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이다(최샛별, 최유정, 2011; 김미란, 2014; 이지혜, 황매향, 2017).

> 학업에서는 그냥 전공강의는 사실 PPT를 잘 보고, 수업을 놓치지 않고 들으면 잘 따라갈 수 있어서, 그거는 엄청 어렵다는 생각이 안 들었는데, 영어랑 글쓰기는 제가 고민이 많았어요. 영어는 진짜 아예 손도 못 댔던 거 같아요. 그 텝스 시험 치면 제가 처음에 600대 점수 겨우 맞고 그랬거든요. 영어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제가 대학교 과정 끝낼 때까지도 제대로 처리를 못 했던 부분이었던 거 같아요. (참여자 A)

> 영어는 아, 영어는 아... 신경 쓰고 싶지 않았던. 그냥 다행히 전공수업 영어로 들어야 되고 했는데 잘 걸려서, 한국어 선생님이 하시는 이런 거 걸려서 다행히다 하고 넘어가고. 별로 신경 안썼던 거 같아요. 더 잘하도록 해야지 그런 의욕이 생겼던 것도 아니고, ‘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가 더 컸던 거 같아요. 뭐, 외국에 나갔던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못하니까. 다른 친구들은 영어로 나오는 글들을

수월하게 읽어 가는게 있으니까... 약간 눈치를 봤던 거 같기도 하고. (참여자 D)

이제 한 학기 말하기랑 한 학기 글쓰기를 하는데 생전 해본 적이 없는 거에요, 진짜. 그래 가지고, 한 열 명 되는 수업에 농구부 애들 들어오고 이랬는데, 걔네들 보다도 제가 못했어요 영어를. 말도 당연히, 말은 해본 적이 없고 고등학교 때도. 아무튼 같이 수업 듣는데, 아 영어를 막 하는 거에요. 교수님이랑 막 뭐 물어보고. 이게 실제로 내가 읽지 않는, 스크립트가 없는 대화를 해본 적이 사실은 없는 상황에서, 그게 진짜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랐고, 시키는 대로 다 했지만, 성적은 뭐 비마이너스 뭐 비쁠 이렇게 고생고생해서 받았던 기억이 나고. 특히 동아리 애들은 국제학부 애들도 있고, 웨이브라고 시험 봐서 시험 잘 나오면은 그걸 그냥 수업을 안 들어도 되는 그런 애들도 많았어요. 아, 쟤는 웨이브 받는데 나는 선생님한테 말도 한마디 못 붙이는? (참여자 E)

참여자들은 고등학교 때까지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하고 높은 성취를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에 진학 후 부족한 영어 실력으로 인해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 전공강의를 따라가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으나 영어는 “손도 못 댔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부분이었다. 특히, 말하기와 쓰기의 경우 “생전 해본 적이 없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에 직면하였다. 참여자 E의 경우 오케스트라 동아리 활동을 했었는데 동아리 특성상 사회경제적 자본이 풍부한 친구들이 많아 영어 실력에서 더 큰 격차를 느꼈다. 동아리에 있는 많은 친구들은 이미 영어 실력이 갖추어져 있어서 영어 수업을 면제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이 참여자들은 영어 실력이 출중한 또래 집단 사이에서 영어 실력이 부족하다는 것 자체에 대해 큰 스트레스를 받는 한편, 진로과정에서도 일종의 넘어야 할 장벽으로 경험되고 있었다. 특히, 대학원에 진학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연구참여자들에게 영어는 진학 포부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였다.

너무 부족해서 계속 못하다가 의전원 준비하면서, '영어를 진짜 이제는 피할 수 없다.' 해서 4~5개월 동안 해커스 영어 다니면서 엄청 그때 향상이 많이 되었어요. '사실 공부를 제대로 하면 되는 거 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고, 영어 같은, 영어가 진짜 사교육이 중요한 생각을 하기도 했구요. (중략) 그때 의대 결정 완전히 했을 때도 목사님이랑 상담을 하면서, 제가 지금 돈이 없다. 그런데 생활 때문이 아니라 제 진로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럴 때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봤을 때, 10년 내에 돈을 갚는다는 전제 하에 1000만원을 쓸 수 있고, 그게 교회가 하는 역할이라고 하셔서. 그 생활비로 해커스 학원도 다니고, 실질적으로 의대 지원에 필요한 돈들을 썼었어요. (참여자 A)

일단은 대학원 가는 거 말고는 다른 하고 싶은 게 없었구요. 딱 생각나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대학원 가기 좀 무서웠어요. 늘 그거죠. 내가 공부를 할 만한 사람인가? 그것 때문에 계속 고민이 되는 거죠. 물론 언어에 대한 측면이 컸고. 이런 논문도 못 읽는데 이런 거? 뭐 제가 보기에는 제 선배들이나 이미 대학원 간 사람들이나 교수님들이 너무 대단해 보이는 거에요. (참여자 C)

근데 이제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도 그 학기 때 좀 심리적으로 힘들었던 게, INGO를 계속 내가 생각하고 이쪽으로 하는 게 맞나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왜냐면, 그렇게 가는 게 고달파 보이기도 하고, 자신도 없고, 왜냐면은 그런 스펙을 쌓아가는 게. 예를 들면 외국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많고, 영어도 잘해야 되고, 대학원도 가야 되고. (참여자 E)

아 진짜 너무 어려웠어요. 물어봐줘서 고마워요. 영어가 진짜 너무 어려웠어요. 지금도 제가 영어 때문에, 취업을 하든, 로스쿨을 가든 영어

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한계점에 좀 있는데. 영어도 사실 키워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거를 학업이랑 병행을 못하겠는 거에요. (참여자 H)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진학을 위해서는 공인영어 시험에서 고득점 및 전반적으로 출중한 영어 실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참여자 A는 부족한 영어 실력에 대해서 계속 회피해왔지만 의전원에 진학하기 위해 결국 그 장벽을 넘어야 했다. 그녀는 다행히 본인이 다니는 교회의 청년지원금을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집중적인 영어 사교육을 통해 장벽을 넘어설 수 있었다. 다음으로, 참여자 C와 E의 경우 전공 학문에 대한 호기심과 열정으로 대학원에 입학하고 싶다는 포부를 품고 있었으나, 자신의 분야에서 뛰어난 영어 실력을 이미 갖춘 사람들을 보면서 심리적 부담감을 느끼며 대학원 진학을 망설이게 되었다. 또한 참여자 H는 영어에 대한 연구자의 질문에 웃으면서 고맙다고 이야기하며, 영어가 어떤 진로를 준비하든 가장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는 부분이며 혼자서 해결하기 힘들다고 진술하였다. 이렇듯 연구참여자들은 고등학교 때까지 공교육의 틀 안에서 충분히 우수한 영어 성적을 달성했지만, 대학 생활 및 진로과정에서 더 이상 '혼자서는' 쉽게 뛰어넘을 수 없는 허들로 작용하고 있었다.

(2) 학문의 기초: '애들은 다 이해하는 거'

위와 같이 영어의 경우 연구참여자들이 졸업한 고등학교 유형과는 상관없이 대부분의 참여자들에게 장벽으로 경험되었다. 한편, 수학, 일반물리학, 경제학 원론 등 학문의 기초 과목에서 대학 입학 직후 뒤쳐졌던 경험을 보고한 참여자들은 모두 지역 일반고등학교 출신이었다. 이들은 특목고와 자사고 출신 친구들과 달리 고등학교 때 대학수준의 교육을 접해본 경험이 전무 했기 때문에 초반에는 학업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일단 1학년 때는 수학이 진짜 어려웠던 거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과다 보니까 과고, 영재고 애들이 있거든요. 얘네들은 1학년 때 내용을 거의 다 배우고 들어와요. 저는 배우는 내용이 어려워 죽겠는데, 얘네는 이미 다 배우고 들어오는 데다가, 아직 1학년이고 하니까 남을 배려하는 생각을 잘 못하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이제 티를 내는 거죠. "아, 나 이거 다 아는데. 이걸 굳이 수업을 해야하나."라고 말하면 열등감이 생기는 거에요. 그러면 이제 '아, 내가 과학고를 갔었어야 하는데, 그때는 왜 몰라서 못갔을까. 이렇게 차이 나는 건지 알았으면 가는 건데.' 처음에는, 1학년 때는 그런 열등감에서 벗어나기 힘들었던 거 같아요. (참여자 F)

명문대 이공계열의 경우 과고, 영재고 출신이 많으며 이들은 보통 1학년 때 배우는 대학 수준의 기초 과학을 이미 이수하고 대학에 진학하여 일반고 출신 학생에 비해 수월하게 앞서가는 모습을 보인다. 일반고 출신이었던 참여자 F는 지역에서 매우 우수한 학업 성취도를 보이는 지역 명문 일반고등학교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열등감을 느끼며 어렸을 때 과학고에 대해 잘 몰라서 진학하지 못했던 일을 후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참여자 I의 경우에도 아래와 같이 지역 일반고 출신으로 지금까지 배웠던 것과 질적으로 다른 수학을 배우면서 학업적인 어려움을 느꼈다.

수업에서 배웠던 개념 자체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랑 갭이 사실 컸어요. 제일 이해가 안되었던 게, 저한테는 그냥 미분이 dx/d 자체가 미분인데, 근데 dx 자체나 엡실론을 다루다 보니까. 어, 내가 고등학교 때 했던 거랑 좀 다르네, 사실 고등학교 때는 다 암기식으로 배웠어 가지고, 설명해주는 사람도 한 명도 없고, 뭔가 애들은 또 다 이해하고 있고, 그랬어 가지고 점점 그것 때문에 좀 힘들었죠 (참여자 I)

참여자는 고등학교 때 수학을 개념과 원리에 충실하게 배우지 못했으며 주로 암기식으로 배웠다. 가령 고등학교 때 미분을 단순히 계산 방법으로서만 익히고 입시문제를 푸는데 응용할 수 있을 정도로만 배웠기 때문에 미분의 개념 그 자체에 대한 깊은 이해가 부재했던 것이다. 반면, 참여자의 눈에 주변 친구들은 '다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1학년 때 학업에 흥미를 붙이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한편, 문과계열 학생인 참여자 H의 경우에도 경제학의 기초 과목인 경제학 원론을 수강하면서 다른 친구들은 다 이해하고 본인은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 예를 들면 이런 거에요, 경제학적으로 뭐, GDP를 구성하는 그런 요소들에 대해서도, 뭐 소비가 있고 생산이 있고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거를 잘 설명을 안 해주시는데, 그냥 쫙 설명해버리고 넘어가 버리시는데, 애들은 그냥 다 이해를 하는 거죠. 왜냐면 그 친구들은 경제학에 대해서 알고 들어온 경우가 많으니까. 그 친구들은 고등학교 때 경제를 했고, 저는 수능 사회과목으로 경제를 접해본 적이 없고, 그쪽으로 전혀 관심이 없었으니까. 경제 관련해서 뭐 자격증, 테셋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도 있었고, 어느 정도 원론 수준은 고등학교 때 다 떼고 오는 친구들이 많았었고. 대부분 이제 똑똑한 애들이니까.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대 경제학부 잖아요. 우리나라 탑 티어 애들이 오는 거잖아요. 제가 예전에 외고를 봤던 시선이랑 비슷한 거 같아요. 애들이 너무 잘해서 이질감도 느꼈었고. 특목고 애들이 많긴 했지만, 비평준화 일반고? 그런 데도 많았고, 자사고 애들도 많았고, 외고 애들은 어문 계열에 많았고. 오히려 일반고 중에, 왜 굉장히 좋다고 소문난 곳 그런 곳에서 온 친구들이 많았어요 (참여자 H)

참여자는 경제학 원론을 수강하면서 경제학의 기본 개념을 알지 못해 수업을 수강할 때 어려움을 느꼈다. 경제학이라는 학문 안에서 '소비'와 '생산'이라는 개념은 일상적 언어에서 쓰이는 그것과는 다르다. 참여자는

경제학 과목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어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이해가 없었으나, 수업에서 이 정도의 기본 개념은 당연히 그냥 넘어가는 것이었으며, “애들은 그냥 다 이해를 하는 거”였다. 경제 과목은 대표적으로 고등학교 사회탐구 과목 중에서 진입장벽이 높은 과목이다. 2018년 수능 사회탐구 영역 중 선택자 수가 2.2%로 다른 사회탐구 영역 과목에 비해 압도적으로 낮은 선택자 수를 보여주었으며, 일반적으로 특목고나 자사고에 다니는 학생들이 많이 선택하는 과목으로 알려져있다. 또한 참여자들과 달리 비평준화 명문고나 자사고에서 온 학생들은 경제학 관련 자격증을 이미 취득한 학생도 있었으며 경제학 원론 수준은 고등학교 때 이미 학습을 하고 진학한 경우도 많았다.

이렇듯 대학입학 후 학업 경험에서 대학 전 고등학교 교육의 효과가 두드러지는 모습은 기존 연구에서 제시한 ‘혜택받은 저소득층’과 ‘이중고를 겪는 저소득층’ 개념을 떠올리게 한다(Jack, 2016). 저소득층 학생들 중에서도 대학 입학 전 수준 높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중등 교육기관에서 수학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학생들은 고등학교 때부터 이미 중산층 학생들과 어울리며 문화 자본과 사회 자본을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자본을 바탕으로 대학 입학 전에 상대적으로 교육 여건이 열악한 환경에서 자란 학생들이 문화충격을 경험하는 것과 달리, 이들은 대학에서도 우수한 학업성취를 얻고 교수 및 교우들과 원만하게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적응적인 모습을 보여 주었다.

한편, 이러한 ‘명문 고등학교의 효과’는 본 연구의 경우 해외 연구와 차별성이 있었는데, 해외의 경우 명문고등학교의 시스템이 대학과 비슷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대학에 입학해서 어떻게 교수와 상호작용하고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와 같은 일종의 사회 자본 및 문화 자본을 고등학교에서 충분히 학습할 수 있었고, 이것이 대학생활 적응에 있어 주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고하였다(Jack, 2015).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명문 고등학교라고 하더라도 몇몇 특수한 학교를 제외하고는 대학 입시 위주의 문화가 우세하기 때문에 명문 고등학교를 경험한 학생들이라고 해서 이러한

문화에 더 익숙하다기보다는 명문 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양질의 교육기회를 통해 미리 대학수준의 교육을 경험해본 것에서 출신 고등학교 간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학업 태도 전환: '성장마인드셋'

한편, 시간이 흐르면서 참여자들은 학업적 어려움에 각자 나름의 방식으로 대처를 하기 시작했으며 어려움에서 벗어나 성취를 이루기 시작했다. 이들의 대처방식은 제각각이었으나 공통적으로 '아, 하면 되는구나'라는 깨달을 통해 학업에 대한 흥미와 성취감을 얻을 수 있었다.

> 제가 인제 나중에 생각해보니 결국에 알고 보니까 엄청 못 따라가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래도 평균 이상으로 잘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했을 때, 제가 그동안 너무 쭈그러들고 살았구나, 투명천장이 있었던 거처럼. (참여자 A)

> 근데 저희 과가 아무래도 특이한 걸 배우다 보니까. 과학고 애들이 안 배우는 걸 배워요. 이제 2학년 3학년 와서는 과고랑 차이가 안나는. 다 처음 배우는 걸 배우니까. 저는 리커버리가 좀 빠른 편인 거 같아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결과를 통해서 가능한 거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1학년 때 과고 애들 때문에 힘들었던 과목이, 제가 정말 약했다고 생각했던 과목이 A0가 나왔거든요. 아, 내가 A+는 못받아도 A0는 받을 수 있구나 생각하면서 빠르게 리커버리 된 거 같고. (참여자 F)

> 일단 프로젝트 수업 쪽으로는 항상 흥미가 있어서, 좀 많이 하기도 했고. 제가 시간을 쏟은 만큼 나오니까. '아, 이게 여기는 시간을 쏟으면 그거에 어느 정도 비례해서 성과가 나오는구나.' 보통 기계 만드는 수업이나 모델링하는 수업이나, 설계하는 수업이나 이런 것들은 항상 좀 열심히 해서 어느 정도의 '어, 괜찮네.' 하는 성과가 나왔었구요. 항상 문제 풀고 시험 봐서 딱,딱,딱 칼같이 성적이 나오는 수업들은 계속 뭔

가 좀 내버려 뒀다가, 다시 재수강하고. 그런데 한번 교수님하고 면담하고 나서 충격 먹고, 싹 다 재수강해서 어느 정도 성취를 낸 이후에는 '아, 이것도 하면은, 재미는 드럽게 없고, 완전 비례하지는 않지만 되긴 되는구나.'라는 거를 알아서 아마,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던 거 같아요.(참여자 I)

성취감 엄청 느끼죠. '와 이걸 왜 주셨지? 아, 하면 되는구나.' 이 생각? 처음에는 정책 쪽으로 관심이 있어서 재정학 이런 걸 많이 들었는데, 요즘은 금융 쪽으로 많이 듣거든요. 금융이 진짜 숫자 놀이라서, 복잡하고, 막 짜증나고 너무 싫은 거에요. 그래서, 그거 하는 게 되게 힘들었는데, '어떻게 잘 버텨냈구나.' 이 생각이 들어 가지고 되게 뿌듯했던 거 같아요. (참여자 H)

참여자들은 학업에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하거나, 어렵다고 느낀 수업을 나중에 다시 수강하거나, 어렵더라도 끝까지 버티는 등 다양한 전략을 활용하여 자신이 부족했던 과목에 대해 어느 정도 성취를 이루고 난 후에 '아, 하면 되는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즉, 입학 후 특목고와 자사고에서 이미 선수학습을 한 친구들에 비해 처음에는 상대적으로 학업능력이 떨어진다고 느껴서 주눅 들기도 하고 열등감을 느끼기도 했지만, 한 번 성취를 제대로 이루고 난 이후에는 능력의 문제라기보다는 태도의 문제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이후로는 학업에 더 재미를 느끼고 성취를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성장마인드셋을 지닌 사람은 어려운 상황이나 실패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이를 두려워하지 않고 상황을 낙관적으로 해석하며 자신의 성장 기회로 삼는다(Blackwell, Tresniewski, Dweck, 2007). 참여자들은 특히 대학 입학 전에 다른 학생들보다 양질의 교육을 받을 기회가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명문대학 입학 후에 학업적 실패 상황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실패 상황에 대처하는데 이들이 지니고 있는 성장마인드셋은 자신의 실패를 자신의 능력으로 귀인하지 않고, 객관적인 환경과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도록 해주었으며 학업에 대한 자신감을 찾을 수 있게 해주었다.

(4) 고효과 프로그램: '성장 경험'

고효과 프로그램은 대학생의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학습 성과에 유의미한 긍정적 효과를 미치는 교육활동으로서(Kuh, 2008), 학생들로 하여금 단순한 정규 교과 이상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도록 하고 학습 몰입과, 학습 성과를 향상시킨다. 또한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 주제에 대한 반성적, 통합적 사고를 통해 심층적인 학습을 하도록 촉진한다. 마지막으로 학생 혼자가 아니라 공동의 학습 주제에 대해 학우, 선배, 교수진들과 상호작용하는 능동적인 학습을 포함하여 학생의 사회, 정서적 학습에도 기여한다(Kilgo, Sheets, Pascarella, 2015). 구체적으로 해외 연수, 실험실 인턴, 교수의 지도 아래 연구활동 참여, 장기 연구 프로젝트 완성, 최소 20쪽 이상의 분석적이고 창의적인 보고서 작성하기 등을 포함한다(Kuh, 2008).

특히, 고효과 프로그램을 통한 교수와의 지속적인 교류, 학습 공동체 참여와 같은 수업 외 활동에 참여하는 경험은 저소득층 대학생의 학업 지속 및 학습 성과를 향상 시키는 데 효과적이다고 보고되어 왔으며(Filkins & Doyles, 2002; Garcia, 2010; Lohfink & Paulsen 2005; Pascarella et al, 2003, 2004), 본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들이 다양한 형태의 고효과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성장을 경험했다는 사실을 포착할 수 있었다. 이들은 교수의 지도아래 연구활동 참여, 최소 20쪽 이상의 분석적인 보고서 작성, 실험실 인턴, 해외 연수 경험을 통해 즐거움과 깊은 성취감을 느꼈으며 진학 포부를 형성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제가 쓴 레포트가 처음으로 제 맘에 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학부 때. 무려 재수강한 거였거든요. 1학년 때 방황하다가. 그때 교수님이 처음으로 대학원 와보지 않겠냐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게 저한테 정말 큰 성취였거든요. 그때 고민하기 시작한 거 같아요. '아, 밖으로 나가지 말고 대학원 갈까?' 이렇게. (참여자 C)

글을 어떻게 써야하는 지가 드디어 감이 왔던 때 였던거 같아요. 어떻게 글을 만들어가야 하고, 음, 제가 봐도 제가 쓴 글들이 말이 되고, 근데 그때는 제가 조금 관심 있는 주제들로 쭉 방향들을 잡아갔던 거 같아서 그래서 공부가 좀 더 재밌었던 거 같은데. 일단은 뭐 전공에서도 수업 거의 다 들어서 졸업 논문 준비하면서 논문쓰는 것도 너무 재밌었고, ◇◇과 쪽에서는 중년 남성, 혹은 아버지들을 주제로 제가 이제, 사실 진로도 그쪽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중년 남성, 아버지들을 위해 뭔가를 하고싶다고 생각하고 거의 모든 과제들을 이쪽 주제로 써서 냈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공부도 재밌고 알아가는 것도 재밌고, 그래서 글 써서 학점 잘 나오는 것도 너무 재밌고, 그랬었던 거 같아요. (참여자 D)

가족학 개론이라는 수업을 들었는데, 거기서도 에세이를 많이 써야 되는 수업이었어요. 그러면 저는 저의 가족 역동에 대해서 성찰하는 글 쓰기 하면, 이런저런 제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 여자 교수님이 피드백을 되게 좋게 해주신 적이 있었어요. "너는 되게 성찰을 잘한다. 너는 이거에 대해서 인지를 잘 하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계속 공부를 해봐도 좋겠다."라는 정도의 피드백을 주셨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저한테 싸인이었던 거죠. 공부를 내가 더 하면은 좋다는 싸인으로. 그 정도 싸인으로 선생님이 얘기를 하셨었고. 또 아동 상담이라는 과목을 들었는데, 그 선생님도 제가 뭐 열심히 들으니까, 앞에서 듣고하니까, 이름 따로 기억하시고, 학기 끝나고 이쪽으로 계속 할 생각이 있냐고 물어보시고, 열심히 하라고. (참여자 E)

참여자 D는 복수전공을 통해 자신이 중년 남성을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싶다는 진로에 대한 방향성을 찾을 수 있었다. 이렇게 자신의 관심사를 찾고 난 후로는 그것을 중심으로 글쓰기를 해나가면서 글을 어떻게 써야하는 지 감을 찾을 수 있었고, 수업에서 모든 과제들을 자신의 관심사로 엮어내면서 공부의 재미, 알아가는 재미를 느낄 수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좋은 학점을 받을 수 있었다. 참여자 C와 E의 경우에도 수업시간에 완성도 있는 글쓰기를 완성하고 해당 결과물에 대해 교수자로부터 긍정적 피드백을 받았는데 이는 이들이 대학원에 가도 좋겠다는 일종의 "싸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참여자들은 수업 외에 졸업 논문, 실험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연구 수행 경험을 쌓았으며 진학 포부를 형성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 저희는 학부 졸업을 하려면 연구를 해서 그걸로 이제 결과 산출을 내야 하는 게 있는데, 제가 4학년 때까지도 학과에 그렇게 관심 있던 게 아니어서, 휴학하고 나서 기독교 동아리 내에서 활동을 하든지, 아니면 아예 해외로 나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2년 동안 해외봉사 활동하는 거는 NGO랑 연계가 돼서 월급으로 제 생활비 정도는 충당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근데 제가 한국에 남기로 결정하면서 연구를 하게 됐는데, 연구 과정이 생각보다 너무 재밌었고, 제가 수학을 좀 좋아 하다보니 이제 통계를 돌리는게 너무 흥미로운 거죠. 결과 해석하는 것도 너무 재밌고, 노출변수나 종속변수, 독립변수 이런 거 해석하는 게 너무 재밌어서. 그때 좀 '아 이런 거 하면 되게 재밌겠다.' 이렇게 생각했고. 저랑 같이 했던 연구팀에 3명이 있었는데, 저는 그때 다른 사람도 다 저처럼 생각할 줄 알았는데, 저만 그래서 '아, 이게 나랑 좀 잘 맞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게 첫 번째 계기였어요. (참여자 A)

> 저는 처음에 입학했을 때 ◇◇에서 지원해주는 대학, 이런 실험 프로젝트가 있어요. 학부 연구생이랑 크레이티브 리서쳐 프로그램이라고

해 가지고, 학생 창의연구 프로그램이 있는데, 처음에는 '이걸 누가하나, 내가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이제 실험실에 들어와서 직접 실험을 하다보니까 프로그램에 지원을 하고, 최근에 당선도 되었거든요. 그래서 뿌듯하기도 하고 내가 대학원에 갈 수 있다는 증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2학년 때부터는 제가 실험실을 나가면서 인건비를 받았어요. 제가 그걸 하면서 근로 장학도 안하니까 공부할 시간도 많아지고. 이제 실험실에서 일을 하니까 제가 진짜 꿈에 다가가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인턴 하면서 제가 공부할 의지를 다시 다지지 않았나. 제가 작년 9월부터 일을 했는데, 이과니까 이제 실험을 하는데, 제가 할 줄 아는게 없으니까 뭐 설거지라던가 그런 일들을 위주로 먼저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는 와서 여러가지 실험을 할 줄 알게 되니까. (참여자 F)

참여자 A는 학부 전공에서 괜찮은 성적을 받고 있었지만 전공에 그렇게 관심이 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졸업 논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연구에 큰 흥미를 느끼게 되었다. 또한 같이 연구를 진행했던 사람들이 그다지 연구에 관심이 없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학문과 "나랑 좀 잘 맞는 거"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고 대학원 진학에 대한 포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참여자 F의 경우 2학년 때 학과의 실험실에 인턴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직접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고, 신입생 때는 본인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지도 못했던 "크레이티브 리서쳐 프로그램"에 당선되면서 성취감을 느끼고 "대학원에 갈 수 있다는 증거"를 얻게 되었다. 특히 참여자 F는 실험실 인턴으로 활동하면서 자신의 꿈에 다가가고 있다는 생각을 했으며 공부할 의지를 다시 다질 수 있었다.

한편, 해외연수 경험은 연구참여자들에게 있어서 대학 생활 중 특별했던, 손 꼽을만한 경험으로 진술되었다. 이들은 모두 대학에 진학해서 해외를 처음 가봤으며 해당 경험이 자신의 진로 및 삶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쳤다고 했다. 중산층 이상의 명문대학에서 대부분의 주변 친구들은 비교적 수월하게 해외 경험을 하는 것을 보면서 박탈감을 느끼기

도 했으나, 자신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 실행 가능한 기회들을 포착하여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성장하고자 하는 자신의 열망을 만족시킬 수 있었다.

> 그냥 다 하니까? 그런 것도 있고. 좀 영어로 커뮤니케이션을 해보고 싶었어요. 왜냐면 내가 나중에 외국 가서 연구를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그때는 했었으니까. 그리고 여행도 생각을 했었고. 교환학생 가면 좋잖아요. 그런데 제가 교환학생 가면은 뭔가 돈을 누가 보내줘야, 거기서 근로를 할 수가 없으니까. 한 6개월을 살아야 하는데 그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거는 사실 그 장학금을 주고, 생활비는 주지만, 여유자금도 있어야 하는데 그게 어려웠고. 또 영어도 사실 잘 못하니까. 그래서 교환학생은 사실 할 생각을 못했고. (참여자 H)

> 그게 제가 너무 가고 싶은 거에요. '외국에 애들이 다 나가네?' 나도 가고 싶고, 뭔가 교환학생을 가서 영어를 하는 환경에 놓이면 나는 또 못할 거 같지가 않은데, 그래서 너무 가고 싶었어요. (중략) 제가 학비는 안 내도 되니까 신한장학재단에 자기계발비 이런 식으로 신청서를 학업계획서처럼 써서 내면 한 학기에 100만원까지인가 지원을 해줬어요. 그걸로 학원을 한 달인가? 토플학원을 학교 주변에 있는 곳에 다니고, 시험도 딱 한 번 쳐가지고 최저점보다 2점인가 높았어요. 그거를 그냥 넣어 가지고. 시험 여러 번 볼 형편은 못되니. 지망은 다 영어권 쓰고, 또 생활비 준다고 해서 독일을 썼는데, 21지망 거기가 된 거에요. 왜냐면 제가 토플 성적도 낮고, 이게 영어로 면접도 해야 하는데 뭘 얼마나 잘했겠어요? 그래가지구 인제 21지망이 독일이 되어가지고 그렇게해서 가게 된거죠. (참여자 E)

이렇듯 참여자들에게 있어서 해외 경험은 주변 동료들이 "다 하니까" 나도 하고 싶은 경험이었다. 참여자들은 주변 친구들과 똑같이 영어를 쓰는 환경에서 직접 영어를 구사해보고 싶고,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그러나 참여자들에게 장기간 동안 해외에

서 체류해야하는 교환학생은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어 학교에서 장학금을 지원받더라도 쉽게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교환학생은 아무리 짧게 가더라도 6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데, 그 시간 동안 아무런 근로활동을 하지 않는 것은 이들에게 불가능한 일에 가까웠다. 이에 참여자 E를 제외한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해외 연수에 대한 열망이 있었지만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교환학생은 도전을 해볼 수 없었다. 참여자 E의 경우에도 민간 장학 재단에 자기계발비를 신청하여 선정되고, 그 돈으로 20만원 가량의 돈이 드는 토플 시험을 "딱 한 번"만 치르고,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나라를 선택하는 등 교환학생 지원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녹록하지 않은 과정을 거쳤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서울대학교에서 제공하는 해외 경험 지원제도인『SNU in World』프로그램은 3주에서 길게는 7주간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기간도 비교적 짧고, 거의 모든 제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참여자들도 부담감 없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었다. 한 달 정도는 근로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무리가 없는 데다 해당 프로그램에서의 지원 덕분에 비용이 추가적으로 소요되지 않았다.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이 2명 있었으며, 참여자들에게 해외 경험에 대한 열망을 만족시켜주는 동시에 학업과 자신의 진로에 대해 다시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자극이 되었다.

> 진짜 좋았어요. 제가 그 전에는 과 애들만 친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딱 이과 사람들만 친했는데. 스누인 가니까 문과도 있고, 나이 많은 사람도 있고, 후배도 있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한테 배울 점이 정말 많았어요. 그리고 특히 도쿄대 사람들도 진짜 좋았어요. '아, 해외에서도 이렇게 치열하게 공부를 하는구나.' 그래서 그때 좀 외국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한 거 같아요. 제가 2학년 1학기 때 조금 무기력증이 있었거든요. 좀 무기력했는데, 스누인 도쿄 갔다 오고 나서 자극을 받아서, 그때부터 다시 에너지가 많이 생긴 거 같아요. (참여자 F)

스누인 베를린을 갔어요. 해외 경험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좋았죠 솔직히. 음식이나 이런 건 불만족스럽긴 했지만, 입맛이 제가 좀 한식 스타일이라(웃음). 외국인 친구들이랑은 그렇게 시간을 못 보냈는데, 독일어 수업 할 때만 그냥 영어로 대화하고, 우리 학교 애들이랑 같이 다니니까. 근데도 외국 대학 분위기나 그런 거 느끼고, 방학이긴 했지만 되게 좋았어요. 생각의 틀을 좀 깼던 경험이 있었는데, 제가 스누인 베를린 갔던 학교에 한국학과 교수님이 강연을 해주셨었는데, 그때 제가 궁금했던 게, 거기서 대학원을 다니는 친구들이 왜 한국학을 연구하는 지 모르겠다, 배울점도 없고, 우리는 유럽을 배우려고 하는데 왜 연구를 하냐고 질문을 했는데, 교수님이 꼭 배울 점이 있어야만 연구를 하는 게 아니다. 관심이 있으니까 하는 거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되게 신선했어요. 그때 제가 내가 관심이 있는 게 뭘지 더 고민하기 시작한 거 같아요. (참여자 H)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처음으로 해외 경험을 할 수 있었던 참여자들은 모두 입을 모아 “너무 좋았다”고 대답하며, 그 시절을 회상하며 기분 좋은 표정을 지었다. 해외 연수 경험은 이들 대학생활에서 일종의 ‘하이라이트’ 경험이었으며, 자신의 세계관을 넓힐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돌아온 뒤 학업에 더 몰입할 수 있게 해준 좋은 자극제가 되었다.

(5) 교수와의 상호작용: ‘짧지만 강렬한 경험’

교수와의 상호작용이 대학생의 학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많이 밝혀져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내 대학에서 교수와 학생들의 상호작용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수의 업무 과중, 상호작용 시스템 미비, 권위적인 문화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긍정적인 효과가 밝혀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상호작용이 쉬이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연구 참여자들의 경우에도 공통적으로 교수들과 활발한 상호작용을 보여준 것은 아니었지만, 아주 짧았던 순간적인 경험이라도 진학 포부를 형

성하는 데 있어 참여자들에게 매우 유의미한 영향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 그 이게 사회 기여라는 생각에 대해서 좀 깬 경험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저희가 교수님하고 식사자리가 있어요 학과에서. 스승의 날에 식사자리가 있었는데, 제가 고민을 한 번 물어봤죠. 제가 사정이 이러이러한데, 사회에 좀 기여를 하고 싶은데 고민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교수님이 사회 기여는 어느 방법으로든 가능하다, 니가 핸드폰 쓰고 있는 거 이거 누가 만드냐, 이거 얼마나 편하냐, 이런 것도 사회 기여다. 그렇게 한정적으로 보지 마라, 그렇 게 말씀을 하셔서. 그때부터 생각이 바뀌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사실 법전원 가는 것도 로펌 쪽은 생각을 안 하고 있고, 이제 검사 쪽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쪽으로 간다면 검찰 쪽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희망을 하고 있긴 하지만 쉽진 않겠죠. (참여자 H)

참여자 H는 고등학교 때부터 사회 기여에 대한 포부를 지니고 있었으며 진로의 중심에 언제나 사회 기여가 있었다. 참여자 H는 위와 같은 교수와의 면담 전에는 좋은 정책을 직접 만들거나 혹은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었기 때문에 일반대학원이나 행정대학원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 와중에 경제적 사정으로 해당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을 때 교수와 면담을 하게 되었고, 사회 기여에 대한 자신의 생각의 틀을 깰 수 있었다. 이후 참여자는 자신의 경제적 상황과 사회 기여 포부를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진로로서 법학전문대학원을 고려하기 시작했다. 또한 진로 조언을 얻기 위해 교수에게 면담을 신청했던 참여자 I는 학업에 대한 자신의 아집을 깨는 경험을 했다.

> 저희 과 자체가 교수님이랑 교류가 전혀 없는 환경이라. 그냥 프로젝트 수업 듣는데, 그거 수업하시는 분이 좀 독특한 분이기도 해서 이분한테 면담 신청해서 했거든요. 상담받고 싶었던 거는, 나는 이런 역학

> 류 이런 거 하는 거보다 설계해서 만들고 하는 게 더 흥미가 간다. 이러면 진로가, 이런 흥미를 가지면 보통 어떻게 되냐고 물었었는데. 근데 교수님이, “야, 너 수준에서 그걸 못하면 그건 그냥 너가 게으른 거야.”라고 하셔 가지고. 아,,,그래. 정작 제가 듣고 싶었던 얘기는 하나도 못 듣고. 그 얘기를 딱 듣고, 교수님이 그냥 그건 기본이라고 하시니까. 그때 사실 반박을 할 수가 없었던 게, “복수전공 하러 오는 미대생들도 이 4대 역학을 다 듣고 졸업을 한다. 근데도 이걸 학생이 못한다고 하면 그건 그냥 게으른거다.” 하셔가지고.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그때 좀 한 번 충격 먹고 그랬었어요. (참여자 I)

참여자 I는 대학에 입학 한 뒤 직접 설계를 하거나 모델링을 하는 프로젝트 기반 의 수업에 높은 흥미와 성취를 보였으나, 방대한 양과 높은 난이도의 지식과 이론을 배우고 주어진 문제를 풀어 칼같이 성적을 매기는 수업에는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성취를 이루지 못했다. 이런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진로를 모색하기 위해 면담을 신청했던 참여자는 교수에게서 전혀 예상치 못한 쓴소리를 듣게 되었던 것이다. 기계를 다루는 사람에게 있어서 학부에서 배우는 그 정도의 지식은 “그냥 기본”이었으며 이 정도도 해내지 못한다면 “그건 그냥 학생이 게으른 거”라는 이야기를 듣고 참여자는 전혀 반박할 수 없었다. 이 짧고 강렬했던 면담 이후에 참여자 H는 이론 수업에 대한 태도를 바꾸고 성실하게 공부해서 대학원 진학의 필수 조건인 학업 성취를 이룰 수 있었다.

위와 같은 교수와의 상호작용을 촉진하거나 저해하는 요인들도 살펴볼 수 있었다.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교수와의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환경에 있었으며 참여자들과 교수들의 태도와 마음가짐에 따라 상호작용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다.

> 진짜 왕래가 없었죠. 특히, 저희 때는 뭔가 같이 교수님을 대면해서 뭘 한다든지 그런 학과 차원의 시스템이 없었던 때였고, 지금은 그런 게 생겼더라구요. 한 학기 모든 교수님들이 팀티칭 하면서 이 교수님은

이 전공이고 그런 걸 소개하는 강의를 아예 필수로 지정했다고 하는데, 그때는 그런 것도 아니었고. (참여자 E)

위와 같이 참여자 E뿐만 아니라 본 연구의 참여자들의 학과에는 모두 교수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학과 차원의 시스템”이 부재했다. 그렇기 때문에 교수와의 상호작용의 빈도와 질은 전적으로 학생의 적극성에 달려 있었다.

제가 워낙 공부도 좋아하기도 했고, 대학원 생각을 한 학부 3학년, 그 쯤부터 있었을 거에요. 이 교수님 저 교수님 만나고 다니면서 진로상담도 교수님들한테 했던 거 같고. 그런 식으로? 교수님한테 메일도 보내고 그랬었어요. 그냥 뭐 학부생들은 교수님들이 잘 맞이해주시니까. 찾아가면 보통 그 당시만 해도 좋아하시니까. ◇◇과 교수님들도 개인적으로 면담한 적도 있고, □□학과 교수님은 뭐 한 번 뵈었고, △△학과 교수님도 뵀었고, 진로가 확실하지가 않으니까 여기저기 알아보고 그랬어요. (참여자 B)

지금 들어가는 랩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4학년 1학기 때, 수업을 들었어 가지고, 제가 해당 과에 들어가고 싶다고 컨택 했었어요. 부담스러워도 해야죠. 메일 되게 많이 보내요. 질문 같은 거 있어도 보내고. 메일 보내는 것도 교수님 성향을 잘 파악해야되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학생과 인터랙션 좋아하는 교수님한테 하면 제가 질문하는 것도 좋아하고 피드백도 잘 주시고. (참여자 G)

제가 1학년 때 친해진 선배가, 저랑 비슷하게 되게 대학원에 가고 싶어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 선배가 대학원 인턴을 하면 좋다. 어린 나이여도 일단 메일을 쓰면 교수님이 좋게 봐주면 좋게 봐줬지 나쁘게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도 써보라 해가지구, 2학년 때 썼죠. 처음에는 못했어요. 저는 교수님이 무서운 사람이라고 생각해 가지구, 친근하게 생각을 못해가지고. (참여자 F)

참여자 B는 자주는 아니더라도 본격적인 진로 탐색을 시작한 학부 3학년 때부터 전공학과의 교수, 복수전공학과의 교수 그리고 관심분야의 교수에게 메일을 보내거나 직접 찾아가서 면담을 했다. 참여자 G의 경우 부담스러워도 교수들에게 연락을 자주 취한다고 진술하였다. 교수님의 성향을 잘 파악하고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을 좋아하는 교수에게 더 자주 연락을 취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상호작용이 미비한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교수와 원활하게 교류한 경험이 있었다. 반면, 참여자 F의 경우 교수를 "무서운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처음에 잘 다가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학과 선배의 조언을 통해 교수에게 연락을 하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일을 깨닫게 되었으며 랩 인턴을 하기 위해 연락을 취하고 이후에도 교수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

나. 학업 외 경험

대학원 진학 포부 형성에 있어서 대학생이 속한 자신의 학과 및 학교에 대한 소속감은 필수적이다(Tinto, 2008). 이에 이번 장에서는 학업 외 경험에서 사람들과 어떠한 상호작용을 했으며, 어떻게 진학 포부를 형성했는지 살펴보았다.

(1) 소속감 형성의 어려움: '구별 짓기'

저소득층 가정환경에서 자란 참여자들은 처음 대학에 입학했을 때 중산층 위주의 명문대에서 소속감을 느끼기보다는 "나와 살아온 결이 다르다"고 느꼈다.

> 대학교 학부 2학년 때까지는 소속감을 못 느꼈던 거 같아요. 쟤네랑 나랑 살아온 결이 다르다. 초등학교 때부터 영재교육을 받고, 논술 교

육도 미리미리 받았고, 그런 애들인데 저는 생판 놀다가. 약간 뭐 지방 출신이기도 하고, 다르다. 그리고 주변에서도 "너는 일반적인 ◇◇대생하고 많이 다르다." 이런 평가를 들은 적도 있고. 다른 애들은 잘 자란 딸, 잘 자란 아들 이런 느낌을 주는 애들이 많고. 어릴 때부터 탄탄한 교육과정을 밟은 이런 느낌을 주는 애들인데, 저는 약간 와일드하다 해야하나? 그런 느낌. 뭔가 다듬어지지 않았다? 약간 생각하는 사고방식 같은 것도 ◇◇대식의 모범생보다는 살짝 벗어난? 이런 느낌과 오히려 자유로운 느낌, 그런 게 있었다고 하더라구요. 지금은 없어진 거 같은데(웃음) (참여자 B)

사실은 저는 되게 작은 풀 안에서 있어 와서 처음에 왔을 때는 걱정이 됐죠. 다들 너무 대단해 보이는 거에요. 그래서 되게 뭐 교수님의 자제분들도 계시고 그런 것들을 보고, 영어나 외국어를 자유자재로 하는 것을 보면 뭔가 다르다. 그런 생각은 많이 했어요. (참여자 C)

참여자 B는 처음 대학 입학했을 때 어렸을 때부터 "탄탄한 교육과정"을 밟아온 "잘 자란 딸", "잘 자란 아들"이라는 느낌을 주는 주변 동료들을 보며 자기자신과 동료들을 구별했으며 주변에서도 "일반적인 ◇◇대생하고 많이 다르다"라는 평가를 들었다. 읍·면소재의 학교를 줄곧 다녔던 참여자 C의 경우도 처음 입학했을 때 교수와 같은 사회적 지위가 높은 직업을 가진 부모나 어렸을 때부터 해외 경험이나 사교육을 통해 영어를 포함한 외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주변 친구들을 보며 "뭔가 다르다"라는 생각을 했다. 이렇듯 자신과는 여러모로 '다른' 배경을 가진 친구들을 보면서 신입생 때는 학교에 소속감을 느끼는 것이 쉽지 않았다. 계층의식이 더 강했던 참여자들의 경우 다르다는 느낌에서 더 나아가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기도 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부잣집 딸내미들을 안 좋아했던 거 같아요. 돈이 많고, 손에 물 묻혀보지 않은 애들을 조금 얄미워 했던 거 같

은데, 고등학교 때는 눈에 띄게 많지는 않았는데, 대학교에 오니까 그런 애들이 많더라구요. 제가 또 성격이 너무 솔직해 가지구, 그런 게 다 들어 나서 아마 과에서 관계가 그렇게 좋지는 못했던 거 같아요. (참여자 A)

좀 얼토당토않은 생각이긴 한데. 대치동 이런 부자인 애들이 우리학과에 들어온 거에요. 저는 처음에 짜증이 났었죠. 지들이 뭘 안다고(웃음). 그니까, 사회 복지에 대해서 연구는 할 수 있는데, 그런 생활을 경험을 못해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뭐가 필요할지 정확하게, 그니까 연구 자료로만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명감? 그런 거도 있었던 거 같아요. 왠지 모를? '내가 여기 책만 보고 사는 바보들을(쑥스러운 웃음) 이겨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 같아요. 처음에는. 근데 제가 사실 아니꼬와 했던 거는 그 학종으로 입결에 맞춰 들어온 애들? 그게 좀 짜증났어요, 솔직히. 관심도 없는데 그거에 맞춰서 막 준비해오고 그 과정이 너무 좀, 아쉽다고 해야 하나? 좀 가식적이고.,. (참여자 H)

참여자 A는 자신의 신입생 시절을 되돌아보면서 본인이 "부잣집 딸내미"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으며, 고생이라곤 해보지도 않고 자란 듯 보이는 애들이 "조금 얄미워" 보이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참여자 H의 경우 "부자인 애들"이 자신의 학과에 들어온 것을 보고 처음에 "짜증이 났다"고 했다. 사실 그냥 부자인 것이 문제라기보다, 소위 '학종'으로 '입결[7]'에 맞추어 입학한 애들에게 불편함을 느낀 것이다. 참여자의 생각에 그 친구들은 사회 복지에 진심으로 관심이 없지만,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명문대에 들어오기 위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였을 것이며,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사회 기여를 향한 진심이 아니라 재력으로 만들어진 과정이었을 것이라는 사실에 짜증이 났다고 했다. 또한 사회 복지를 연구하는 사람들을 "책만 보고 사는 바보들"이라고 칭하며 연구 자료로서만 빈곤을 경

7) 입시 결과의 준말이다. 입결에 맞춘다는 말은 대학 지원 시 작년 입시 결과를 준거로 지원을 한다는 뜻이다.

험하고 실제로 그런 생활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이 제대로 된 연구를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한편, 이때까지의 나의 삶과 친구들의 삶이 너무 다르다는, 사회경제적 배경의 현격한 차이는 위와 같은 추상적 인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그들에게 살갗으로 다가오기도 했다.

> 저는 학과에서 경험 중에 하나가, 입학을 했는데 제가 막 옷도 막 부스스하게 입고와서, 되게 딱 봐도 그런 친구처럼 있었는데. 소위 말하는 대치키즈들이 많이 있었어요. 대치동 아이들이. 제가 되게 성격이 쾌활하고 웃기고 그러니까 관심을 많이 받아서 애들이 막 저한테 같이 놀자고 그랬었는데, 같이 만나서 밥 먹고 영화 보고 카페 가고만 해도 얘네들이랑 저랑 만나면 3만원 4만원을 쓰는 거에요. 그게 정말 저한테 너무나 큰 부담이었고. 또 얘네들이 술자리에 가서 술 마시고 노는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 만나면 또 제가 술을 안 마시는데 만나면 2, 3만원 씩 나가고 그러니까. 사실 저는 적은 비용으로 친구들을 만나고 싶은데 그거에 대한 공감이 어렵고, 저도 그 친구들에 대한 공감이 어려워서 제가 학과를 조금 겉돌았던 거 같아요. 그런데 동아리 들어갔을 때는 선배들이 잘 사주시는 그런 분위기도 있었고, 저의 형편에 대해서 오픈을 하지 않았었지만 제가 조금 주저하는 게 있을 때, “이건 좀 비싸니까 그렇지?”라고 하시면서 제가 생각하고 있던 것들을 말로 표현을 해주셔서 마음이 더 열렸던 거 같아요. 그래서 동아리에 헌신을 하게 된 게 아닐까. (참여자 A)

> 특히 ◇◇대라는 양상이랑, 저희 과가 또 이상하게 뭐랄까 강남권 출신 애들이 좀 많았어요. 그러면은 약간 생각해보면 비교가 되기는 했죠. 예를 들면, 저는 과외하고 공부하기도 급급해서 화장이고 뭐고 그냥 옷도 대충 입고 다니고 그랬는데, 뭐 애들은 성형수술도 하고 화장품 비싼 거 쓰고, 가방 비싼 거 들고 다니고, 막 놀러다니고 그런 게 비교가 되기는 했죠. 그래서 과 생활은 안 했었어요 사실. 과 애들하고 너무 안 맞아가지구. 일단은 같이 밥을 먹어도 가격대가 달라 버리고,

걔네랑 같이 다니는 거 자체가 부담스럽고,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된? 가치관도 많이 다르니까요. 그런데 동아리 친구들이랑은 잘 맞아서, 걔네들이랑은 아직까지도 친하게 지내고 있어요. (참여자 B)

참여자 A와 B는 학과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대치키즈”, “강남권 출신 애들”이 많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소비 수준부터 차이가 많이 났다. 참여자 A는 한 번 만날 때마다 3, 4만원이 비용을 지불하기에는 부담이 되었고, 돈이 많이 들지 않게 친구들과 만나고 싶었지만 서로에 대한 공감이 쉬운 일이 아니었기에 참여자는 학과를 겉돌게 되었다. 참여자 B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밥만 먹어도 가격대가 달라버리는” 소비 수준을 감당할 수가 없었고, “같이 다니는 거 자체가 부담”이 되었다. 이렇듯 일상생활을 함께하는 것부터 힘에 부쳤던 참여자들은 점점 학과에서 벗어나 자신과 소비수준과 가치관이 비슷한 친구들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참여자들은 대학입학 후 주변 친구들과 자신과의 사회경제적배경의 현격한 차이를 인식하였으며, 그러한 차이는 밥을 먹고, 옷을 입는 등 가장 기본적인 생활양식에서도 비롯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저소득층 명문대생들은 중산층 이상의 친구들이 대부분의 구성원을 이루는 대학 환경에서 소속감을 좀처럼 느끼기 어려웠으며 끊임없이 ‘결이 다른 친구들’과 자신을 구별지었던 것이다.

(2) 원만한 교우 관계: ‘소속감 형성의 마중물’

이러한 참여자들의 ‘구별짓기’는 동아리 활동 및 학과 생활을 통해 점차 원만한 교우 관계를 형성해 나가면서 점점 옅어지기 시작했다.

그게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저에 대해서 자신감이 많이 없어서, 애들이 해주는 칭찬들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랬던 거 같아요. 예를 들면, 애들이 뭐 오늘 예쁘다고 해주면, 그냥 무시하고, 그 정도로 자존

감이 너무 낮았었던 시기가 20살, 21살 때 있었는데. (중략)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나중에 후배들을 받아보니까 알게 되었어요. '아, 내가 저런 망나니같은 말도 했는데 그때 선배들이 받아주셨구나.'라는 거를 깨닫고, '나도 더 바뀌어야겠구나.'라고 깨달았고. 동아리도 임원 활동하면서 후배들을 돌봐야 하는 역할을 하다보니까 스스로 더 부딪혀가면서 바뀌었던 거 같아요. (참여자 A)

그거에 대해서는 그냥 어렸을 때의 객기라고 생각을 하고(웃음), 지금은 딱히 그냥 출신 배경과 상관없이 충분히 사회 복지에 대한 마인드라고 해야하나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중략) 물론 그 친구 되게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불편해서. 이 친구들은 대부분 뜻이 있어서 온 게 아니고, 빨리 치우고, 다른 전공을 복수 전공해서 대부분 다 법전원 갔거든요. 조금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구요. 이런 거는 아직도 좀 그런데, 이제 부자라고 그래서 저의 그런 것들을 이해를 아예 못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열정과 뜻이 있으면 된다는 생각을 지금은 해요. (참여자 H)

참여자 A는 자신의 신입생 시절을 돌아보면서 원만하지 못한 교우관계가 자신의 낮은 자존감과 성숙하지 못한 태도에서 기인했다는 것을 깨닫고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다. 이러한 태도 변화는 동아리에서 임원으로 더 활발하게 활동하며 사람들과 깊게 교류하면서 얻을 수 있었다. 참여자 H의 경우도 학과 사람들과 원만하게 어울리면서 부자라고해서 빈곤에 대한 문제를 전혀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니며 그 사람에게 "열정과 뜻"이 있다면 충분히 연구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이렇듯 이들이 주변 친구들과 '구별 짓기'를 하지 않고 마음을 열게 된 과정에는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교우관계가 주효한 영향을 미쳤다.

1학년 때는 역시 공부랑 과 생활이었어요. 저는 대학에 들어와서 친구를 정말 잘 사귄 거 같아요. 1학년 때는 정말 맨날 과방에 있었던 거 같아요. 친구들이랑 놀고, 밤새고, 공부도 같이 하고. 2학년 때도 그랬

고. 2학년 2학기부터 실험실 인턴을 시작해서 지금은 실험실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근데 집안 배경은 많이 차이 났던 거 같은데, 그냥 씀씀이는 비슷했어요 평소에는. 친구들 중에는 뭐 해외여행을 맨날 갔다오는 친구들도 있고. 예를 들면, 지금 아이패드 프로를 그냥 바로 산다던가. 부모님한테 사달라고 하면 바로 사주고, 생활비를 용돈을 정기적으로 받는다던가 이런 게 좀 차이가 나긴 했는데, 엄청나게 큰 차이는 아니었던 거 같아요. 다 같이 지방에서 올라와서 서울에서 생활하니까. 그냥 밥 먹고 싶을 때 부르면 나오고, 성격도 잘 맞고, 그렇게 공부 같은 것도 다 같이 하고, 애들도 다 쾌활하고 재밌어서 좋았어요. (참여자 F)

과 친구들, 반동기들이죠. 그 친구들이랑 오래 지냈으니까. 많이 지지가 되죠, 왜냐면 저보다 못하는 애들이어 가지고(웃음). 제가 공부를, 그니까 학업 평균이 제일 좋아서(웃음). 제가 이렇게 뭐 어려운 거를 숨기거나 그런 거를 부끄러워 하는 성격도 아닌데, 또 친구들도 그런 거를 불편해하거나 하는 친구들이 아니어가지고. 재밌으면 됐지 뭐. 불편한 얘기 하지 말자 그런 친구들도 있긴 한데. 그냥 배려라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그래서 친구들이 편한 거 같아요. (참여자 H)

참여자 E와 H는 1학년 때부터 지낸 과 친구들과 원만하게 교류하며 학과에 대한 소속감을 느낄 수 있었다. 참여자 E의 경우 집안 배경이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평소에 대학에서 함께 생활하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큰 차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참여자 H 또한 자신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굳이 숨기거나 부끄러워 하지 않고 친구들과 그냥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소속감을 느낄 수 있었다.

이에 자신과 달리 부모님께 재정적 지원을 받아 돈 때문에 각종 활동이나 경험에 제약이 없는 주변 친구들이나, 어렸을 때부터 풍부한 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받은 친구들을 보면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기도 하고 처음에는 ‘구별짓기’를 스스로 만들어냈지만 점차 개방적인 자세로

다양한 배경의 친구들, 동료들과 교류하며 자신의 경험을 스스로 제약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 혼자서 독학을 많이 하고, 또 친구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죠. 과고 영재고 친구들이 그래도 많이 아니까, 또 물어보면 잘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걔네들한테 많이 배웠어요. (참여자 F)

> 그냥 사소한 것에서 주눅이 들 때도 있었어요. 방학 때마다 그냥 여행 나가고, 부모님 돈으로, 그런 친구들이 많더라구요. 사실 제가 대학에 오면 가장 하고 싶었던 활동이 학생회랑 교환학생이었거든요. 근데 교환학생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리고 교환학생 간 친구들도 많아요. 교환학생 갔다 온 친구들이 교환 가면 진짜 좋대요. 여행도 하고,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전공도 안 듣고 그러니 널널하니까 좋대요. 너도 가래요.(허탈한 웃음) 그런 면에서? 그런 툭툭 던지는 얘기에서 아무래도. (참여자 G) 근데 그 친구들은 정말 좋은 마음에서 공유하는 거잖아요. (참여자 G)

참여자 F는 신입생 시절 선행학습을 했던 특목고 출신 친구들에 비해 떨어지는 학업성취 때문에 열등감을 느끼고, 더 좋은 교육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들과 잘 교류하면서 학업적인 도움을 받기도 했다. 참여자 G의 경우에도 아무런 제약 없이 해외 경험을 맘껏 하는 친구들이 자신의 속도 모르고 교환학생을 추천하는 것이 야속하기도 했지만, 자신을 주눅 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그저 “정말 좋은 마음에서 공유”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친구들을 탓하지 않았으며 원만한 교우관계를 이끌어 나갔다.

한편, 연구참여자들에게 있어 동아리 활동은 원만한 교우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1학년 때부터 학과에 소속감을 느끼고 안정감을 찾았던 참여자 2명을 제외한 나머지 참여자들은 학교에 입학 후 학과가 아닌 동아리에서 안정적인 소속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특히 6명의 참여자가 동아리의 장을 포함한 임원 역할을 했으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휴학을 한 경우도 몇몇 있을 정도로 동아리 활동에 몰입했던 모습을 보여주었다.

대학교 때는 기독교 동아리를 들어갔고. 거기서 이제 과에서는 만나지 못했던,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 있더라구요. 지금은 또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선배들 만나면서 다양한 삶의 궤도를 듣는 게 되게 좋았어가지고, 그래서 그 동아리에 헌신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헌신을 다 했고, 학과는 잘 따라가는 데에만 집중했고, 욕심은 있긴 했는데 또 ◇◇대와서 고등학교랑 다르게 애들이 너무 다 잘 하니까, 여기서 난 평범하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지내서, 오히려 더 공부에 욕심이 그때는 없었던 거 같고. 동아리 활동으로 주 3,4회를 나가서 저녁 시간을 썼던 거 같아요. 진짜 열심히 했던 거죠. 그래서 주 3,4회를 쓰기 위해서 하루종일 공부를 했어요 남은 시간은. 근로장학생을 하면서 공부를 하기도 하고. (참여자 A)

그냥 친구들이랑 노니까 재밌더라구요. 친구들이랑 놀고 연애도 하고. 그리구 항상 과외는 많이 했죠. 동아리 활동, 지금 없어졌는데 ◇◇라고 있었거든요, 동아리 활동 열심히 했고, 동아리 장도 하느라 휴학 한 학기 정도 했었고. 항상 바빴던 거 같아요. 공부도 좀 나름 열심히 했던 편이었던 거 같고. (참여자 B)

동아리를 진짜 열심히 했구요. 그 자체가 악기 연주하는 게 그냥 지금까지도 가장 아무생각 없이 즐거울 수 있는 일인 거 같아요. 진짜 아무생각없이 하는 게 재밌고, 시간이 잘 가고. 또 거기서 사귄 친구들이랑 많이 친해졌으니까 걔네랑 같이 시간 보내고, 임원도 맡고, 그렇게 했었던. 악기 연주가 가장 어떤 일에, 순도 100%의 즐거움에 그런 일에 가장 가까운 거 같아요. (참여자 E)

참여자들이 소속되었던 동아리는 종교 동아리, 언론 동아리, 취미 동아리 등으로 다양했으나 공통적으로 참여자들의 대학 생활 일상에서 동아리는 삶의 중심이 되고, 학업을 중심에 두기 전까지는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참여자 A는 기독교 동아리라는 특성상 삶의 나침반이 되어 동아리에 "헌신"했으며, 참여자 B는 언론 동아리에서 장을 맡기 위해 한 학기 휴학을 하고 학생 기자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하기도 했다. 또한 참여자 E는 악기 연주가 자신의 삶에서 "순도 100%"의 일에 가깝기 때문에 활동에 몰입하며 임원도 하고, 동아리에서 사귄 친구들과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특히, 동아리에서 자신의 가치관과 잘 맞는 사람들을 만난 참여자들은 정서적인 안정감을 동아리로부터 얻을 수 있었다.

> 그냥 일단은 타지 생활을 시작하는 거잖아요. 대학에 와서. 그러면서 되게 마음 둘 곳이 없을 때, 어떻게 보면 비슷한 세계관이랑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랑 어떤 따뜻한 분위기 안에 있을 수 있는 거? 그게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준 게 컸구요. 그 안에서 여러 가지로 배우는 게 많았죠. 자아에 대한 고민이나 이런 것들이 들 때, 뭔가 안전한 울타리 같은 느낌? 혼자 튕겨 나가지 않고. 내가 방에서 혼자 울고 있거나 아니면은 방황하고 있을 때, 뭔가 유기적인 사람들이 있는 거죠. 같이 관계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것들이 좋은 안전망 같은 느낌이었고. (참여자 C)

> 대학교 1학년 때 좀 힘든 시간이 있었던 거 같아요. 1학년 2학기 때였던 거 같은데 수업도 안 들어가고, 우울해하고, 집 걱정도 하고, 그럴 때 이제 동아리 방에 가서 제 얘기를 하면 선배들이 들어주고, 품어주고 했던. 어린 시절에 제가 힘들었던 이야기들이나 고민들을 쉽게 털어놓을 수 있는 장을 동아리가 만들어 줬고, 대학교 저학년 때는 보통 그런 얘기들을 꺼냈고 그 이후에는 제가 들어주는 역할로 동아리에 있으려고 노력했던 거 같아요. (참여자 D)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 지방 출신으로 갑자기 바뀐 생활 환경과 그에 따른 재정 문제, 학업 적응 문제 등으로 1학년 때 힘든 시간을 보냈었다. 동아리는 이러한 타지 생활에서 참여자들에게 정서적인 안정감을 제공하는 곳이었다. 동아리 방은 이들에게 “안전한 울타리”가 되었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포함한 개인의 깊은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장이 되어주기도 하였다. 자신의 여건이나 상황들을 관리하지 않고, 숨기지 않고 터놓아도 괜찮은 ‘소속감’이 있는 공간이었던 것이다. 한편, 개인적인 이야기까지 공유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마음이 맞는 친구들이 있는 동아리 공간에서 편안함과 소속감을 느꼈던 경우도 있었다.

> 학내 언론 동아리였는데, 한 학기 동안 취재하고 글써서 책자 형태로 한 학기에 한 번 발간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걔네랑은 일단 기본적으로 언론을 하는 친구들이니까 사회문제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이어서. 그런 사회적인 문제들에 대한 고민들도 얘기를 하고. 사실 막 그렇게 개인적인 얘기를 깊게 나누는 그런 집단은 아닌데, 관심사나 가치관이 비슷해서 그런 거를 공유하고, 뭐 “이런 활동 있는데 같이 해볼래?” 하면서 같이 활동하고. 그러면서 만남이 계속 이어지는 거 같아요. 사실 저 말고는, 다들 웬만큼은 사는 애들이기는 했어요. 걔네들은 뭐 “남을 도와주어야지, 이래선 안돼.” 이런 느낌으로 하는데, 저는 그게 피부에 와닿는 거죠. 사실 저는 그렇게 티를 내지는 않았고, 그냥 동조하면서, “아 맞아 그게 문제야.” 이렇게 얘기하고. 저를 드러내지는 않았던 거 같아요. (참여자 B)

참여자 B의 경우 학내 언론 동아리에 소속 되어 활동하면서 평소 가지고 있었던 사회 문제에 대한 고민을 동아리 친구들과 함께 나누면서 소속감을 느낄 수 있었다.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참여자들과 달리 동아리 친구들은 사회 문제에 대해 “남을 도와주어야지, 이래서는 안돼”라는 생각으로, 즉 사회정의를 위한 명분을 가지고 접근했지만, 참여자의 경우

대게 “피부에 와닿는” 문제들이었다. 이렇듯 당사자로서 사회문제를 의논할 때 다른 “느낌”을 받기는 했지만 그것이 모욕적이라던가 친구들이 자신과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구별 짓는 근거가 되지는 않았다. 참여자는 오히려 마음에 맞는 친구들을 만나 동아리에서 신나게 지냈다고 회고했으며, 10년 째가 되는 지금까지도 돈독한 우정을 다지고 있다고 말했다.

> 소속감은 많이 느꼈고, 그냥 이 사람들이랑 나랑 한 공동체라고 지금도 느끼는 게, 다들 대학원 다니고 일하고 바쁜데도 아직도 10년째 알고 지내는데도 한 달에 한 번 모이자고 하면 엄청 많이 나와요. 서로를 좋아하고, 서로를 필요로 하는구나. 그런 데서 간접적으로 느끼고 있는 거 같아요. (참여자 B)

위에서 보았듯이, 참여자들은 학과 안팎에서 자신과 “잘 맞는” 친구들 찾을 수 있었다. 이러한 원만한 교우관계는 학교에 대한 ‘소속감 형성의 마중물’의 되어주었으며 참여자들이 안정적으로 대학 생활을 이어나가는데 중요한 지지체계로 작용하였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든 그렇지 않든, 학과 친구들이든 동아리 친구들이든 간에 원만한 교우관계와 소속감을 느낄 수 있었던 이유는 이들이 자신의 가정배경을 굳이 관리하거나 숨기지 않아도 편하게, 친구들과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참여자들은 이때 사귄 친구들, 선후배들을 통해 실질적인 진로 정보를 얻기도 하고,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지금까지도 참여자들의 진로를 개척해 나가는 데 든든한 지지가 되어주고 있었다.

(3) 동료집단의 효과: ‘다 하니까, 나도’

참여자들은 명문대학교에 소속된 학생으로서 가까운 지인들을 포함한 동료집단의 영향력을 받았다. 특히, 명문대학교의 특성상 일반대학원 및

유학, 전문대학원으로 진학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직간접적 관련 진로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 그래서 저는 들어갈 회사의 초봉? 영끌, 그러니까 영혼을 끌어모았을 때, 연봉에 대해서 대충 알고 있는 상황 이구요. 아무래도 반도체는 돈을 많이 받으니까. 거기서 몇 년 일한다고 했을 때 제가 학비를 모을 수 있을 거 같고. 또 박사유학은 아예 쌩으로 가는 게 아니니까. 펀드 받고 그런 거 있잖아요. 아직 거기까지는 자세히 못 알아보긴 했는데, 아무래도 공대 박사 쪽은 연구 같은 거 수주하고 하면 돈 받을 수 있고, 장학금 같은 것도 있다는 걸 들은 게 있어 가지고. 그냥 ◇◇(학교 온라인 커뮤니티)나 대학원 다니는 친구들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참여자 G)

> 법전원은 일단 동기도 많고, 선배도 많고, ◇◇(학교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많이 올라오고 하니까 뭐 딱히 말씀 안 드려도 될 거 같고. 일반 대학원은 제가 한 학번 선배 누나들 3명이 ◇◇학과 대학원에 들어가서요. 제 동기 형도 조기 졸업하고 들어간 상태여서, 제 후배들 몇 명도 대학원 준비하고 있어서 다 물어봤죠. 왜 대학원을 가려고 하느냐, 어떤 일을 할 거냐를 많이 물어봤던 거 같아요. 왜 하느냐? 그래서 뭐 어떤 연구를 할 거고, 뭐 제가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는 물어보진 않았고, 어떻게 하면 가느냐, 입시과정은 어떻고 뭘 준비해야하느냐, 어떤 시험보느냐 이런 거 많이 물어봤어요. (참여자 H)

참여자 H와 I는 가까운 친구들, 선배들뿐만 아니라 학교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자신의 진로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탐색했다. 참여자 G는 주변에 대학원을 다니는 친구들을 통해 석사과정 이후의 진로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으며, 석사학위 후 의무적으로 입사해야 하는 회사의 “영끌” 연봉에 대해서도 이미 알고 있었다. 현재 참여자는 박사유학을 염두 하고 있었는데 박사유학 시 재정문제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에 대해 정보를 미리 잘 파악하고 있었

다. 참여자 I 또한 주변에 “법전원”을 준비하는 가까운 지인들도 많고, 학교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워낙 많기 때문에 진학을 준비하는 데 있어 실질적인 진로 정보를 비교적 쉽게 얻을 수 있었다. 일반대학원의 경우에도 학과에서 이미 재학 중인 선 후배 및 동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진학 정보를 얻는 데 어려움이 없었다. 특히, 참여자 F의 경우 대학원 생활뿐만 아니라 대학원 이후의 구체적인 진로 정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수집하는 모습을 보였다.

> 국내 박사를 나와서, 저희 연구실에서 나와서 연구원 들어가는 케이스도 봤고, 그담에 저희가 ◇◇니까 희귀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전공에 한해서 박사는 그래도 취직이 잘 된다고 들어서. 아까, 제가 그 대학원에 관심 있는 선배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선배한테 많이 들었어요. 그 선배가 저랑 학과는 같은데 전공은 달라요. 다른데, 그 선배가 말하는 것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연구에 열의를 가진 거나, 아니면 대학원에 관한 희망적인 이야기 그런 거를 들어가지고. ‘연구원이 좀 멋있구나, 괜찮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거 같아요. 대학원에 대한 부정적인, 회의적인 말들도 물론 많이 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사실 고민도 참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도 그냥 박사 따고 진흥청 가도 정말 적은 월급을 받는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도, 저는 제 전공이 좋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소득은 많으면 좋지만, 안정적이기만 하면 상관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연구원이면 뭐 괜찮은 사회적 지위이기도 해서. (참여자 F)

참여자 F는 연구실에서 졸업한 선배들의 진로 현황에 관해 긍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부분들에 대한 정보 또한 골고루 수집했다. 연구에 열의를 가진 선배를 보며 “연구원이 좀 멋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동시에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그렇게 큰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도 직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공에 대한 애정과 직업에 대한 안정성이라는 자신의 기준과 가치관을 중심으로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진학

포부를 형성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주변 동료들로부터 진로 정보습득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는 모습을 보면서 영향력을 받기도 했다.

> 그냥 너무 주변에 퇴사를 하는 사람을 많이 본 거 같아요. 일단은 제가 얹혀살았던 집의 언니도 퇴사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었고, 그즈음에 과 선배들도 그렇고 동아리 선배들도 그렇고 퇴사하는 사례를 여럿 봤어요. 대기업 다니다가 퇴사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니까 뭔가 일이 그냥 당연히 돈 벌고 하면은 너무 좋은데, 이게 1, 2년 다니고 진짜 못해먹겠다 하고 때려 칠 그런 일이면 시간 낭비 잖아요. 사실은, 사실 뭐 생명이야 하루에 5000원 가지고도 연명할 수 있는데, 그래서 아닌가 보다를 너무 많이 봤어요. 그 시점에. 일단 저랑 같이 살았던 언니도 대학원 갔어요. 그 언니는 유학을 갔어요. 자기가 결국에는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을 다시 시도를 하더라구요. 위험을 무릅쓰고. 근데 진짜 괴로워하긴 하더라구요. 준비하면서, 같이 괴로워했죠 뭐. (참여자 C)

참여자 C는 졸업 후 바로 대학원에 입학하지 않고 유예의 시간을 가졌었다. 어려운 경제적 상황으로 아는 언니 집에 얹혀살며 진학 준비를 하면서도 대학원 진학에 대한 포부를 확신하지 못하던 시기였는데, 이 언니를 포함한 학과 선배들과 동아리 선배들이 줄줄이 퇴사하고 대학원 진학 등 자신만의 진로를 다시 찾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참여자는 주변 사람들이 “결국에는 진짜 하고 싶었던 일”에 용기 있게 도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돈을 버는 것도 좋지만 “위험을 무릅쓰고”, “괴로워하면서”라도 자신의 길을 가보자고 마음을 다시 다잡았다.

다. 가족과의 상호작용 경험

대학생을 포함한 청소년들의 진로발달 과정 연구에서 가족의 영향력은 명백하다(Whiston & Keller, 2004). 이러한 가족의 영향력은 그 배경에

상관없이 모든 집단에서 발견되며, 문화적 배경과 정체성에 따라 그 양상이 매우 다양하다(Fouad & Kantamneni, 2008). 저소득층 대학생에 관한 진로 연구에서도 가족의 영향력은 가장 중요한 변인 중 하나로 다루어져 왔으며 특히 해당 집단에 대한 가족의 영향력을 연구하는 것은 중요한데, 전통적인 학생들과의 차별성이 가족 배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Tate et al., 2015). 이에 본 연구에서도 참여들의 가족과의 상호작용 경험을 면밀하게 살펴보았다.

(1) 정서적 지지: '친밀감'

우선 참여자들은 정도는 그 조금씩 달랐지만 기본적으로 가족에게 정서적인 지지를 받으며 친밀감을 형성하고 있었다.

> 엄마. 엄마랑은 밤마다 되게 얘기를 많이 나눴어서. 고민을 많이 얘기했고 (참여자 A)

> 가족은 정서적인 지원의 역할이 가장 컸구요. 뭔가 거의 다 생활비나 이런 거 까지도 지원받을 수 있는 경로들이 이렇게 저렇게 있었어요. 그래도 모자란 것이 있으면 제가 첫째여서 그런지 약간씩 지원을 해주시기는 했어요. 그런...물심양면이라고 해야겠네요. 어렸을 때부터 대화는 많이 하는 편이에요. 지금도 그렇고 부모님이랑 대화를 많이 하는 편이라서. (참여자 C)

> 그런데 가족들은 저의 결정을 지지해주시고. 그 가치들에 동의를 해주시고. (참여자 D)

> 엄마랑 사이가 되게 좋아요. 이런 얘기를 하면, 그래 엄마가 너보고 돈 벌어오라고 했냐고, 알아서, 하느님이 너를 쓰시겠다고 하는데 엄마가 그걸 방해할 거 같냐고, 엄마는 그런 식으로 지지를 많이 해주셨죠. (참여자 E)

> 일단 대화도 많이 하고,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게 가족이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대학 생활하면서 공부하기 힘들고 약간 상처받을 때도 있고 하지만, 전화하면 항상 따뜻하게 말씀해주시고. 주말에 내려가면 맛있는 밥 해주시고 그런 게 정서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었던 거 같아요. (참여자 F)

가족과의 관계에서 우여곡절이 있었던 참여자도 있었고, 관계를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어렸을 때부터 주 양육자인 부모님과 친밀감을 잘 형성해왔다. 참여자들은 평균적으로 부모님과 대화를 많이 나누고, 부모님들은 참여자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진로 방향에 대해서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였다.

(2) 제한된 지지: '각자도생'

한편, 가족들에게 필수적인 정서적 지지를 받으며 안정감을 얻기는 하지만 재정적 지원이나 진로에 관한 조언 등 실질적인 지원을 받기는 힘들었다. 우선, 저소득층 가정 출신으로 명문대에 입학한 참여자들과 부모님의 세계는 이미 너무 달라져 있었으며 부모님에게 실질적인 진로 조언을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이러한 모습은 기존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저소득층 명문대생들은 가족과 생애 경로의 차이로 인해 대학 생활의 힘든 점을 토로하고 공감을 받기 힘들었다(Tate et al., 2015; Gable, 2016; Landers, 2018).

> 그래서 굉장히 답답했어요. 부모님한테 말해봤자 소용 없으니까 말 안 하고. 아빠는 사실 공부 쪽은 아니었고 기술 하셨던 분이라. 저랑 결이 좀 다르긴 하거든요. 아빠는 그야말로 기술 배워서, 먹고살기 위해서 대학 나온 느낌이라. (참여자 B)

사실 부모님이 제 전공을 잘 모르셔 가지고. 그냥 뭐 이런 일이 있었다 하면, 아, 그렇구나. 과목이 어려웠다 하면, 아 어렵구나. 그렇게 반응해주시는 정도라서 딱히 진로나 학업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지는 않는 거 같아요. 구체적인 얘기를 해도 어차피 잘 모르시니까. (참여자 F)

가족들이랑은 진로진학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안 했어요. 얘기를 해도 공감을 할 수 있는 부분, 말이 통하는 부분이 전혀 없으니까. 엄마랑은 그냥 일상적인 얘기, 동생 얘기, 그냥 시시콜콜한 얘기를 하고. 아빠랑은 사실 제 얘기는 하지 않고 그냥 제가 아빠가 하는 얘기를 그냥 다 잘 들어주는 착한 딸. (참여자 G)

엄마는 모른다 그래요. 알아서 해라. 나는 모른다. 그리고 너 알아서 잘해라. 왜냐면 엄마가 사는 세계랑 제가 사는 세계랑 너무 다르고. 다른 친구들은 가족뿐만이 아니고, 엄마 아빠뿐만이 아니고 친척들이 잘하는 사람도 많고, 자기가 가려는 방향으로 이미 진출해 있는 친지도 있고, 지인도 있고 그런 커넥션이 많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제 집안 양가를 통틀어서, 그렇게 서울 10위권 안에 있는 대학을 간 사람이 저 하나 뿐이고. 또 오히려 연구라고 하면은 더 그런 거 같아요. 더 이해를 못하니까. 취업이라고 하면은 차리라 누가 어디 갔다더라 그런게 있는데. 저희 집이 책이라는 거랑은 동 떨어져 있다보니까. 그게 좀 그거에 대해서, 엄마는 오히려 대학원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 하시더라구요. (참여자 H)

참여자들의 대학 생활이나 진로에 대해 가족들에게는 “말해봤자 소용없는” 일이었다. 참여자들의 대학에서의 경험, 그리고 지금까지의 교육 수준이 부모와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이다. 참여자들이 부모님께 구체적인 얘기를 해도 “어차피 잘 모르시고”, 얘기를 해도 “공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었다”. 어느샌가 참여자들에게 있어서 나는 아버지와는 “결이 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고, “엄마가 사는 세계와 내가 사는 세

계가 너무 달라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특히, 참여자들이 지닌 진학 포부에 대해서 가족들에게 설명하는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많았다. 부모를 포함하여 주변 친척들이 대학원에 진학하거나,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가족들의 입장에서 더 이해하기 어려운 진로였기 때문이다.

특히 참여자 B는 "결이 다르다"라는 표현을 참여자의 가족뿐만 아니라 앞에서 대학에서 만난 친구들에 대한 언급에서도 사용했었다. 즉 참여자들은 중산층 위주의 대학 생활문화 속에서 배제되는 경험과 함께 자신이 명문대생이 됨으로써 가족들과도 완전히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는 "이도 저도 아닌(betwixt and betweeen)" 정체성(Wildhagen, 2015)을 경험했다.

다음으로 참여자들은 재정적인 부분에서도 가족에게 거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 서로가 조금씩 도움을 주고받기는 하지만 결국 자기 자신의 생존은 전적으로 각자에게 달려 있었다. '각자도생'이었던 것이다.

> 엄마가 현금이 없는데 빌려달라, 엄마 월급 받으면 줄게. 그러면 제가 1, 20만원 빌려드렸다가 다시 받고. 동생이 2살 차이라서 고등학생이니까, 동생 참고서 산다고 하면은 그냥 기분 내듯이 용돈으로 좀 주고. 그리고 동생 친구들 과외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동생한테 고마우니까 과외비 받으면 가방 하나 사주고, 운동화 사주고, 그 정도였지. 그거를 뭐 부양을 해야되거나 했던 건 다행히 없었어요. (참여자 E)

> 약간 있는데, 그래도 저희 대학원은 등록금을 지원해주고 인건비도 줘서, 제가 혼자 딱 먹고 살 정도는 되니까 그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참여자 F)

> 그거는 사실 지금도 제가 제 벌이만 하는데도 잘 살잖아요. 그니까 저희 집 마인드가 그래요. 엄마도 젊으신 편이라서 지금 베이비 시터하면서 그래도 넉넉하진 않지만 먹고는 사니까. 저도 이렇게 큰 돈이 드

는 일 아니라면 가족 부양에 대한 부담이 없었고, 동생도 뭐 사지멀쩡하니까. 뭐 제가 막 먹여 살려야겠다 이런 생각은 없지만. (참여자 H)

아무래도 형이 있기도 하고. 아 그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부양을 해야 할 상황은 아니에요. (각자도생이신가요?) 네네 맞아요, 어, 딱 이느낌. 정말 가끔씩 용돈을 형이 주기는 하는데, 지속적으로 매달 주지는 않고, 생일이나 주거나 이 정도. (참여자 I)

참여자들의 부모들은 "넉넉하진 않지만 먹고는 사는" 수준의 소득이 있었기 때문에 대학시절 참여자는 스스로의 의식주만 일단 해결하면 생활에 큰 문제는 없었다. 재정적으로 도움을 받지도 못하지만, 도움을 주어야 할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참여자들은 "혼자 딱 먹고 살 정도"만 되면 자신이 원하는 진로로 나아가도 된다고 판단했다. 즉, 각자 살길은 각자가 알아서라는 '각자도생'으로 대학 시절부터 지내왔기 때문에 대학원 진학 시에도 크게 부모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지는 않았다.

엄마, 아빠가 형편이 어렵긴 하셨지만, 당장에 제가 돈을 보내 드려야 하는 상황은 아니 었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좀 자유로웠던 거 같고. 언니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고, 언니가 저의 결정을 들었을 때 너무 답답해하긴 했지만, 몇 년간은 조금 더 참을 수 있고, 나중에 너가 같이 부담해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참여자 A)

워낙 어릴 때도 막 경제적인 거 쪼들리고, 학부 때도 계속 쪼들리는 상황이 반복이 되었다가, 이제 그때는 조금 집안이 안정이 되었어요. 아 그리고, 학부 때 제가 돈 번 거랑 장학금 받은 거 막 몇 천만원 씩 집에다 갖다 주고 했단 말이에요. 계속 쪼들렸던거죠. 이제는 엄마, 아빠 살만한 거 같으니까, 나 하고 싶은대로 살래 싶어서, 딴 거 안 하고 그냥 대학원도 갔다가, 코이카도 갔다가, 약대도 갔다가 '인제 쫌 내맘대로 할래.' 그런 생각으로. (참여자 B)

부모님과 상의를 해봤는데, 일단 이건 제 인생이니까 제가 선택할 일이고, 그다음에 저한테 지원을 못해준다뿐이지 스스로 생활하실 수는 있으니까 최대한 고려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참여자 F)

모든 참여자들이 대학원을 진로로 고려할 시기에 부모님의 생계를 당장 부양해야 하는 경우는 없었다. 참여자 B는 대학생 때 몇 천만 원씩 집에 가져다 주어야 하는 시기도 있었지만 대학원에 진학할 즈음에는 부모님이 살 만한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나 하고 싶은 대로 살래”라고 하며 자신의 관심사와 가치관에 집중하여 진로포부를 형성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모습은 기존의 저소득층 명문대생 연구와도 일치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김효진, 2010). 해당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오히려 “안 주고 안 받는다는 원칙”을 철저히 지키기 때문에 어떤 진로를 추구하던 부모의 개입이 없었으며, 부모님의 지원을 받는 중산층 가정의 친구들의 경우 오히려 부모님의 철저한 “관리” 하에 놓여있어 자신의 진로를 자유롭게 개척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가족에 대한 부양 부담은 근본적으로 해소된 것이 아니라 유예에 가까웠기 때문에, 대학원 입학 이후부터 시간이 흐르면서 현실적인 고민으로 다가와 참여자들의 진로과정에 큰 영향력을 미치기도 했다.

(3) 가족 부양에 대한 책임감: ‘부정적 감정’

참여자들은 가족이 정서적으로 지지가 되기도 하고 친밀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기도 했다.

엄마 아빠는 저에 대해서 답답함을 느끼시긴 했죠. 왜냐면 진로 결정을 애가 대학 끝나고 뭘 해야 하는데, 끝나고도 안하니까. 본인들도 사실 근데 저한테 실질적으로 조언을 하실 수 없는 상황에서, 저는 좀 엄마 아빠에 대해서 제가 하고 싶은 거를 막으시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답답함을 느꼈었고, 엄마랑은 관계가 좀 나쁘지 않았는데, 아버

지랑은 좀, 어렸을 때 아버지가 그렇게 훌륭하셨던 아버지는 아니셨어서, 술도많이 드시고, 사실 실질적 가장 역할을 거의 안하셨어 가지구요. 또 아버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우호적이지 않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학부 때는 오히려 가족이 아니라 바깥에 더 많이 의지했던 거 같아요. 제가 부모님이 저를 책임져줄 수 없다는 생각이 너무 많았어 가지고, 물론 제가 돈을 보내드려야 했던 상황은 아니었지만, 제 삶에 대해서 전혀 책임을 못 지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서, 어떻게보면 제 진로결정에 대해서도 전혀 상의를 안한거죠. 어차피 책임 못지실거니까.(참여자 A)

가족들이랑 친밀감을 느낄 수 있겠지만, 책임은, 그냥 오히려 제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이지, 저를 책임져 준다라는 생각은 아무래도 안들죠. 어렸을 때부터 제가 부모님을 부양하고도 부담을 느끼지 않을 만큼만 성장을 해야겠다. 그냥 부모님 부양하는 게 짐이 되지 않는 사람이 되야겠다. 근데 일단은 박사 되기 전에 회사에 들어가니까, 그때는 돈을 어느 정도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될 거 같아서. 제가 박사되기 전까지 부모님께 지원을 못 해주고 그런 상황은 아닐 거 같아서. 당장은 괜찮을 거 같아요. (참여자 G)

참여자들은 어렸을 때부터 가족들과 친밀감을 느끼긴 했지만 가족은 참여자들의 삶을 책임질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 특히 참여자 A는 가족과 관계를 회복하기 전까지, 대학 시절 동안 “가족이 아니라 바깥에” 더 많이 의지했으며, 자신이 진로를 개척하는 과정에서 가족이 오히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막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참여자 G의 경우에도 가족들과 친밀감을 느끼지만 오히려 자신이 “책임을 지어야 한다”는 생각에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부양하는 게 “짐”이 되지 않도록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다. 이렇게 부모님에 대해 느끼는 양가적인 감정과 함께 압박감이 심했던 참여자의 경우 학내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기도 했다.

일단 객관적으로 상황이 나아진 것도 있었고, 또 제가 대학원 가기 전에, 대학 생활문화원에서 상담 1:1로 해주는 거 하면서, 부모님 이슈에 대해서 상담을 좀 했었어요. 거기서 답을 좀 찾았던 거 같아요. 아 굳이 이제는 내가 이 정도까지 해줄 필요가 있나. 냅두면 잘 살 거 같은데 라는 생각이 상담하면서 정리가 된 거 같아요. 그 전에는 압박감이 정말 심했어요. 내가 막 맥여 살려야 할 거 같고, 막 그런게 되게 심했거든요. 경제적인 거 때문에 압박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뒤늦게 인지를 했고. 아, 이상하게 부모님이 저를 뭐 그렇다고 너무 방임하거나 학대하거나 이런 거는 없으셨는데 이상하게 부모님이 너무 불편한 거에요. 막 얼굴 보기도 싫고, 이유가 뭘까, 내가 얻어맞은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해서 상담을 갔는데, 나중에 그런 부담감에 대해서 깨닫게 된 거 같아요. (참여자 B)

참여자 B의 경우 가족과의 관계에서 부정적인 경험을 계속 경험하면서 상담센터를 찾아가게 되었다. 부모님이 참여자를 너무 방임하거나 학대하거나 한 적이 없었는데도 이상하게 부모님이 너무 불편하고, 얼굴을 보기도 싫을 정도로 부정적인 감정이 들었었고, 상담을 통해 자신이 그동안 가족을 “맥여 살려야 할 거” 같은 경제적인 압박감이 심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참여자는 상담을 통해 자신의 책임감을 조금 내려놓고, 부모님과 거리를 두면서 부모님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정리할 수 있었다. 최근에는 사회적으로 부모에 대한 부양의식이 예전과 달리 많이 약화 되고 있지만, 여전히 빈곤 가정에서 부모님 부양에 대한 책임이 자녀에게 사회적인 의무로서 강력하게 부과되고 있다(윤선웅, 2015). 빈곤층 부모님들은 자녀의 도움 없이 복지정책만으로는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살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명문대생으로서 기대를 받아왔던 참여자들의 경우 더 큰 책임감을 느꼈을 가능성이 높다(김효진, 2010). 게다가, 연구참여자들 중에서도 부모님이 자신을 책임져 줄 수 없다는 느낌을 아주 어린 시절부터 느껴왔던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부모님을 챙겨야 한다는 도덕적 의무감으로 더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요컨대, 참여자들은 가족에게서 정서적인 안정을 얻기도 하고 친밀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자신의 진로에 관해서는 전혀 실질적인 지원을 해줄 수 없었던 부모님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특히, 일단은 재정적으로 각자 알아서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참여자들이 자신이 진로과정에 대해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지가 생길 수 있었다. 이러한 모습 중산층 이상의 학생이 가족들의 경제적, 정서적 지원 속에서 대학원 진학을 선택하는 것과는 구별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김기헌, 2004; 김희순, 2006; 채창균, 2007; 이영민, 임정연, 2011; 2017). 저소득층 명문대생들은 오히려 가족들과 일정 수준의 거리감을 유지하고, 부양에 대학 책임을 최대한 지연함으로써 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었다.

2. 저소득층 명문대생 진학 포부 형성과정의 양상

이번 장에서는 진학 포부 형성과정에서 저소득층 명문대생이 처한 사회경제적 조건으로 인해 두드러지는 양상을 분석하였다. 이들에게 있어서 진학 포부 형성과정은 첫째, 자기 스스로에 대한 허락의 과정이었다. 참여자들은 높은 성취동기를 바탕으로 더 성장하고 싶다는 열망이 있었으며 대학 생활 동안 객관적으로 우수한 성취를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상황으로 인해 쉽게 진학 포부를 지닐 수 없었다. 둘째, 사회공헌 의지의 실현 과정이었다. 특히, 어린 시절에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든 경험을 했었던 참여자들에게서 두드러지는 점이었다. 셋째, 중도가 없는 진로과정이었다. 이들의 진학과 그 이후 진로에 대한 계획은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느린 전개 과정을 보여주었다. 넷째, 삶의 지속가능성과 이상적 포부의 줄다리기 과정이었다.

가. 자기 스스로에 대한 허락의 과정

이들은 자신이 처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열망을 따라 대학원에 진학해도 괜찮을지,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허락'을 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 '나도 논문 읽어보고 싶고, 책 읽고 싶고, 앉아서 학습하고 싶고, 사람들이랑 토론하고 싶은데.' 그런 거에 대한 갈망을 다시 깨닫게 되면서, 그때 연구한 거 논문을 학술대회에 발표도 했던 시기라서, 이제 뭔가 두근두근한 마음도 있었어요.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 보고 사람들이랑 결과 논의를 할 때 마음이 되게 막 떨리고, 이런 걸 하는 게 이제 되게 재밌구나 하는 게 6학년 말쯤이어서. (참여자 A)

그거를 가는 게 그때도 경제적으로 도움되는 선택은 아닌 거잖아요. 당장 사실은 동기들 졸업해서 대기업가서 돈 잘 버는 애들이 생기기 시작할 때였으니까? 그렇게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생각. 그런 고민을 그때도 했던 거 같아요. 그렇게 머리 싸매고 혼자 고민을 하다가도, 그런 수업시간에 에세이 써서 내라고 하면은 그거 하면서 '그래 역시 내가 할 일은 이거다.' 하면서, 막 울면서, '그래 내가 이 길을 가겠어.' 뭐 이런 과정들을 엄마한테 얘기하는 편이었어요. (참여자 E)

3학년 때부터 취업이랑 대학원을 고민했었는데. 원래는 진짜 취업을 하려 했었죠. 왜냐면은 학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근데, 제가 그래도 대학원을 가고 싶은 거에요. 그니까 계속, 지금 아니면 공부를 더 못할 거 같다. 그런 생각도 있었고. 제 성향상 제가 계속 성장하고 싶다 그런 게 있었잖아요. 아직 까지 공부에 대한 그런 거를 못 버렸구요. 오히려 취업해야지, 취업해야지 하면서 그 미련이 더 커졌던 거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취준도 생각하고 있다가, 제가 가려는 학과가 사실 회사랑 계약한 학과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제가 등록금을 안 내도 되거든요. 제가 일부러 이 학과를 그래서 찾아 가지고 가게 된 거거든요. 회사에서 등록금 다 내주시고 매달 생활비 내주시고, 기타 혜택 사항들이 있어요. (참여자 G)

참여자 A는 대학 재학 중 교내에서 우수연구논문발표대회 수상, 성적우수자 선정, 학과 심포지엄 개최 등의 성취[8]를 보이는 등 전공학문에 대한 적성과 우수성을 보여주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교 4학년 때까지도 대학원 진학에 대한 포부를 형성하지 못했다. 이에 휴학 후 종교활동과 봉사 활동에 더욱 집중하다가, 뒤늦게 "나도 논문 읽어보고 싶고, 책 읽고 싶고, 앉아서 학습하고 싶고, 사람들이랑 토론하고 싶은 갈망"을 깨닫고 그러한 갈망을 마침내 인정하게 되었다. 참여자 E 또한 대학교 과정 중 1학년 때부터 자신의 글쓰기 능력에 대한 교수자의 긍정적이고

8) 여기서 서술된 참여자 A의 성과는 참여자가 제출한 전문대학원 진학 자기소개서를 참조하였다.

직접적인 피드백을 받아왔으며, 자신의 학문적 관심사를 다양한 대외 활동[9]을 바탕으로 더 구체적으로 발전시켜왔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원 진학에 대한 포부를 쉽게 자신에게 '허락'할 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참여자 G의 경우에도 계속 성장하고 싶은 열망, 공부에 대한 열망을 "취업 해야지, 취업해야지"하면서 애써 억눌러가며 취업 준비로 자신의 진로를 변경하려고 했었다. 다행히 이공계열 학생이었던 그녀는 등록금 및 제반 비용과 혜택을 제공하는 계약학과를 발견하게 되었고 진학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위와 같이 이들은 자신이 더 성장하고 싶은 열망, 공부하고 싶은 열망을 가지고 있었으며 대학 생활 동안 충분히 대학원 진학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적성과 열정을 보여왔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상황 때문에 자신의 진학에 대한 포부를 쉽게 인정할 수가 없었다.

나. 자신의 삶에서 기인한 사회공헌 의지 실현 과정: '배워서 남 주자'[10]

위와 같이 이들이 경제적으로 제한된 환경에도 불구하고 소신을 가지고 진학 포부를 형성할 수 있었던 데에는 이들이 확고한 내재적 동기를 지녔기 때문이었다. 즉, 이들은 대학원에 진학해서 자신이 사회에 기여하고 또 자신이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일종의 보상으로 작용하고 있었으며, 진로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특히, 사회공헌을 진로의 중심에 두는 참여자들은 자신의 사회경제적 배경에서 기인한 빈곤과 불평등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진학 포부를 구성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

9) 여기서 서술된 E의 성과는 참여자가 제출한 대학원 장학금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를 참조하였다.

10) 해당 어구는 참여자 A와 H가 제출한 자기소개서에서 발췌하였다.

고2 때 제가 몽골에 해외 단기 선교 봉사를 갔다 왔어요. 그때 약간 제가 마음으로 울림이 있었던 거가 사람들한테 먹는 거가 되게 중요한데, 미디어로만 노출되었던 그런 환경뿐만 아니라, 실제로 근처에 이렇게 잘 먹지 못해서 삶이 송두리째로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 사람들을 위해서 힘쓰고 싶다. 제가 느낄 때, 저가 어쨌든, 어려운 환경에서 컸지만,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저는 잘 먹고, 그런 1차적인 것들은 채워졌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했어 가지고. 그 사람들의 꿈을 지지하고 싶다. (참여자 A)

그때도 이제 보건 쪽에서는 건강 불평등 이런 말을 쓰거든요. 이게 소득에 따라서 건강이 결정되는? 그런 거에 관심이 있다. 그래서 그런 거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데이터를 제공한다든지 그렇게 활동을 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고. 공부 자체가 저랑 맞았던 거 같아요. 적성이. 그래서 공부하는 게 대학와서도 그렇게 나쁘지 않으니까. 아, 내가 이쪽에도 적성이 맞나보다. 그러면 그거를 살려서 학사로 끝내지 말고 공부를 좀 더 해보자라는 욕심이 있었고. 거기에 제 관심사까지 좀 맞아 보이는 학과가 있어서. 제가 사실 그냥 사기업 취업하는 거보다는 좀 제가 공부한 거를 사회에 공헌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어서. 사실 없었는지, 몰라서 못 받았는지, 어릴 때 그런 혜택을 되게 못 받았는데, 그냥 나 같은 사람이 조금 적어졌으면 좋겠다. 줄어들었으면 좋겠다. 저는 진짜 다행히도 뭐 적성이 맞는 일을 찾아서 어찌어찌 살아가고 있는데, 사실 대다수에 그런 환경에 처한 사람들은 도움까지 없으면 그럴 수가 없잖아요. (참여자 B)

그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싶고, 그러기에 나는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적합한 사람이고. 교육이, 어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게 하는 힘이 나는 교육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보다 많은 사람한테 그런 기회가 돌아갔으면 좋겠고, 그걸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나는 ◇◇학 공부를 해야 한다. 그리고 어쨌든 남들이 예를 들어, 가난과 빈곤과 불평등이라는 문제를 보고 한 10만큼 신경을 쓴다면, 저는 당사자이기도 하고 점점

더 자랄수록 생각이 커지니까, 저는 그보다 훨씬 더 50, 뭐 100만큼 굉장히 신경 쓰이는 문제라는 말이죠. 그러면은 인제 이게 내가 뭔가 투신 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했고. 내가 더 남들보다 더 뼈저리게 느낀 거가 있으면, 그걸 위해서 내가 뭔가 할 일도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 사실 지금까지도 그건 저한테 영향이 있는 거 같아요. 그게 오히려 저의 진로선택의 기준이었던 거 같구요. (참여자 E)

그래서 좋은 정책을 만들어서 사회를 더 좋게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아, 이건아니지.'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 사회가 될 수 있게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거 같아요. 먹고사는 게 힘들지 않은, 그런 거를 걱정 안해도 되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어렸을 때부터 생각했던 거 같아요. 사실 그것 때문에 사회적 갈등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중략) 들려주고 싶다기보다, 제 경험을 녹여내고 싶었던 거 같아요. 이 사람들이 진짜 필요한 게 사실, 뭐 분배 좋아요. 분배가 좋지만 지금 빈민층들은, 수급자들은 진짜 사실 뭐, 그게 돈이 진짜 충분치 안 잖아요. 먹고 살기 굉장히 빠듯한 금액인데, 이거는 그러면 내가 요 생활을 그냥 유지해서 살라는 거 밖에 안되는 거잖아요. 내가 뭔가 나의 그거를 위해서 투자를 해야 하고 그런 상황인데 그게 안되니까. (참여자 H)

참여자 A는 고등학교 때 우연한 기회에 몽골에 선교 활동을 가게 되어 절대적인 빈곤 상태에 놓인 사람들을 마주하게 되었고, 기본적인 영양 상태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 빈곤 계층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을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소외계층의 영양 및 건강에 대한 관심은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대학교 때 저소득층 계층 영유아의 식습관 문제를 갖고 소득분위와 영유아 식습관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를 진행하기도 했다.[11)]

다음으로 참여자 B는 IMF 이후 실직하고 노점상을 전전하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 경제적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어린 시절 빈부격차가 심한

11) 여기서 서술된 참여자 A의 성과는 참여자가 제출한 전문대학원 진학 자기소개서를 참조하였다.

곳에서 살면서 빈곤과 불평등에 관한 문제 인식을 지니기 시작했으며 대학 활동을 통해 문제 인식을 더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대학 진학 후 3년 동안 동아리 활동을 하고 편집장을 역임하면서 주로 노인 등 취약계층을 주 관심사로 두고 취재를 했으며[12], 해당 경험은 그녀가 진학 포부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참여자 E의 경우에도 수급자 가정의 학생이었으며 어린 시절부터 빈곤과 불평등의 당사자로서 이러한 사회문제에 천착하게 되었다. 교육의 힘을 누구보다 더 절실하게 느꼈던 참여자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빈곤을 뼈저리게 경험했던 참여자는 그렇지않은 사람보다 더 빈곤과 불평등 문제에 관심을 쏟게 되었고 이런 그녀의 생각은 항상 “진로선택의 기준”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참여자 H 또한 수급자 가정의 자녀로서 사람들이 “먹고사는 게 힘들지 않은”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했으며 자신의 경험을 녹여내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되기 위해 대학원 진학에 대한 포부를 가지게 되었으며, 구체적인 진로영역이 조금씩 바뀌고 있지만 지금도 사회공헌은 가장 중요한 진로선택의 기준이 되고 있었다.

위와 같은 사회 정의에 대한 관심은 이들의 출신 배경이 1차적으로 가장 주요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 네 명의 참여자는 다른 참여자들에 비해서도 어린 시절 경제적 사정이 매우 좋지 못했다. 실제로 9명의 참여자 중에서도 소득인정액이 가장 낮은 참여자들이었으며, 가정불화로 아버지가 없거나 아버지가 계셔도 전혀 책임감이 없어 사실상 모든 경제적 부담을 어머니가 지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한 농촌 지역이 아닌 수도권 지역과 중소도시에 살았기 때문에 도시 빈민으로서 삶의 질이 더 떨어지는 면도 있었다. 그들은 이러한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자신과 비슷한, 혹은 자신보다 더 좋지 않은 상황에 있는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을

12) 여기서 서술된 E의 경험은 참여자가 제출한 약학 대학 진학 시 작성한 자기소개서를 참조하였다.

가지게 되었으며 그들의 진학 포부 형성의 중심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다. 중도가 없는 전개 과정: '너무 빠르거나, 너무 돌아가거나'

4년제 대학 졸업자의 진로과정에 관한 연구에서 사회경제적 배경이 낮은 가구의 학생일수록 경제적 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가장 효율적인 진로를 물색하고, 서둘러 구직하여 소득을 확보하는 데 비중을 두며, 사회경제적 배경이 높은 학생일수록 노동시장으로의 '전략적인 이행 지연' 활동을 통해 더 나은 일자리를 획득하려는 경향이 있음이 밝혀졌다(안재희, 2005; 안중기, 배호중, 2011; 이찬영, 2013; 변금선, 2015; King, 2011; Havering & Roberts, 2011). 이러한 이행 지연 활동 중에서 대학원 진학은 특히 상위권 대학의 학생들, 그리고 중산층 이상의 학생들이 선택하는 활동으로 나타났다(Reimer, Pollack, 2005; 김형만, 2002; 진미석, 2006). 이러한 사회문화적 상황 속에서, 저소득층이면서 동시에 명문대학교에 속해있었던 연구참여자들은 진로과정이 좀 더 복잡한 양상으로 드러났다.

(1) 매우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진학 및 진로 계획: '선택과 집중'

먼저 참여자 F, G, H는 가장 최적의 경로로, 노동시장 진입까지의 교육 연한을 최단시간에 마치는 계획을 아주 구체적으로 세우고 있었다.

> 아무래도 집에서 경제적 도움을 받기 어려우니까. 저한테는 그러니까 주어진 기회가, 뭐라 해야하지, 실패했을 때 재도전할 기회가 별로 남아있지 안잖아요? 그래서 좀 길을 바꾸었을 때 리스크가 크니까. 조기졸업을 왜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냐면, 대학원을 빨리 가서, 빨리 졸업해서, 빨리 돈을 벌고 싶어서 하는 것도 맞아요. 졸업해서 포닥하면서

돈 벌고, 연구원이 되겠다는 생각으로. 부모님도 제가 30살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거 같아요. (참여자 F)

아무래도 제가 졸업이 늦어지고, 뭔가 이리저리 제 진로를 찾으면서까지 여유를 부리고 저를 기다려주는 상황이 안 되잖아요, 저희 가족은. 그래서 원래 그렇게 엇 학기로 졸업하는 게 힘들어요. 하려면 1년을 휴학하던가 하는데, 아무래도 할 수 없이 힘들어서 휴학을 한 학기 했지만, 빨리 졸업을 해야하니까, 빠르게 졸업을 하고 대학원에 입학하려고 했어요. 그냥 진로는 불호는 빨리 소거하고, 제가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거죠. (참여자 G)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는 행시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경제적 부담이 너무 크잖아요. 리스크가 엄청 크니까. 그리고 시간도 들여야 하고 돈도 들여야 하는데, 된다는 보장이 있으면 하겠는데 그게 아니니까. 또 박사까지는 아마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했던 거 같아요. 박사 기간이 정확히 언젠지는 모르겠는데 대부분 서른 중반에 졸업하고 그러더라구요. 그때까지 제가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은 없었던 거 같아요. (참여자 H)

참여자 F와 G의 경우 대학원에서 학비 및 소정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이공계열 학생들로 공백없이 박사과정까지 가장 최단시간에 빠르게 졸업하여 안정적이고 사회적 지위가 괜찮은 일자리를 얻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참여자 F는 7학기 조기 졸업을 앞두고 있었으며 현재 인턴을 하고 있는 연구실에서 석박사 취득 후 관련 분야 연구소에 취직을 하거나 박사후 과정을 통해 30살 전에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또한 참여자 G의 경우에도 학과 특성 상, 상반기 졸업을 하기 힘든 학과에 있지만 여유 부릴 시간이 없어 졸업을 서둘렀다. 가정 상황 때문에 이리저리 여유를 부리고 있을 시간도 없었으며, 실패했을 때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도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자들은 “빨리” 진로를 선택하고, “빨리” 졸업을 하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만 했다.

이러한 모습은 기존의 저소득층 대학생 진로과정 연구에서 보여주는 졸업 후 취업을 택하는 '최적 경로 이행'의 모습과 닮아 있는데(이지혜, 황매향, 2017), 다만 본 연구의 경우 취업이 아닌 진학을 선택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참여자 F와 G 같은 경우는 둘 다 이공계열 학생으로 대학 졸업 후 바로 취업하는 것보다 안정성과 사회적 지위가 높은 직업을 얻을 수 있었고, 이들의 경우 가장 효율적이고 빠르게 교육 연한을 채우는 방식을 택했다. 한편, 참여자 H의 경우 인문계열 학생으로 그 양상이 조금 다르게 나타났다. 사회 정의에 기여 하는 공공 정책을 수립하는 데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고등고시를 생각했으나, 시간과 비용을 감당할 수도 없거니와 된다는 보장도 없는 시험을 무턱대고 준비할 수는 없었다. 일반대학원 진학도 마찬가지로 경제적 부담감과 긴 교육 연한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결국 가장 짧은 시간 내에, 가장 적은 비용으로 다른 진로보다는 꽤 안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는 전문대학원진학으로 방향을 돌렸다. 요컨대, 이들에게 있어서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진학은 리스크 및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하면서도 동시에 명문대학교 학생으로서 자신의 진로에 대한 포부를 만족시킬 수 있는 최적의 진로 대안이었다.

(2) 막연하고 추상적인 진학 계획: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 부족'

반면에 나머지 참여자들의 경우 오히려 자신의 진학 포부를 형성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으며, 특히 위의 참여자들과 달리 구체적인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와 계획 없이 막연하고 추상적인 목표를 가지고 진학을 한 모습을 보였다.

> 엄청, 결국에는 대학원에서 저의 구체적인 진로가 결정되었어요. 저는 진로상담을 누구랑 할 데가 없으니까. 교회나 기독교 공동체에서 얘기를 많이 해도 그 분들은 저를 지지해주는 거였지, 구체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줬던 건 아니었어서, 그래서 되게 오래 걸린 거 같아요. 유대감으로 이 삶을 버틸 수 있고, 살아갈 수는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이런 고민을 같이 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대학교 때는 진짜 근데 의대나 의전으로 친구들이 많이 빠졌던 거 같아요. 근데 갔었던 친구들이 다 아버지가 교수님이시거나, 뭐 어떤 사업에 이사장이시거나, 아니면 회사원이시긴 한데 부모님이 둘 다 맞벌이를 하셔 가지고 넉넉한 경우가 있었고. 그래서 처음에 봤을 때는 제 진로라고 생각을 안 했었던 거 같고. 제가 의대에 가고 싶고 이런 공부가 저한테 잘 맞다라는 것을 사실 제가 다 경험해 보고 나서야, 학부도 경험하고, 현장에서 사람들을 오롯이 돕는 역할을 했을 때 연구를 하고 싶다는 마음을 알게 되었고, 또 연구를 하다보니 연구만 하기에는 또 제가 현장에 대한 감각을 갈망하게 돼서, 이렇게 결국에 다 경험하고 나서 알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진로에 대한 어떤 저의 상황을 잘 알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너는 의사를 하면 이러한 기여도 할 수 있고, 연구도 할 수 있다고 누가 말만 해줬어도 이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주변에 의대를 제대로 간 사람이 없어서. 그리고 의대를 가는 애들도 저처럼 이런 고민을 해서 가는 것 같지 않았기 때문에. (참여자 A)

위와 같이 참여자 A는 주변 친구들이 의대나 의전으로 향하는 모습을 많이 보아왔지만 당시에는 자신의 진로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참여자 A의 눈에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하는 친구들은 부모님이 교수 혹은 이사장이거나, 맞벌이 대기업 부부 등으로 경제적인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사회경제적 배경이 높은 학생들이었으며, 자신과 같은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공헌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없어 보였기 때문이다. 또래집단을 통해 볼 수 있는 직업의 세계는 이렇듯 매우 제한적이었으며, 참여자는 실제로 해당 직업군에서 활동을 하고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전혀 부재했기 때문에, 의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매우 제한적인 시각을 가졌던 것이다. 이에 참여자 A는 누군가가 의사가 되면 적극적으로 사회 공헌도 하고 동시에 연구도 활발하게 할 수 있다고 말

만 해줬더라면 지금처럼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을 것이라며 아쉬워했다. 참여자 C의 경우에도 자신의 강력한 내재적 동기를 따라 학과에 진학했지만 당시 구체적으로 어떤 목표들을 이루고 성취할 지에 대한 그림을 전혀 그리지 못했었다고 진술하였다.

> 뭔가 대학원에 와서 실제로 그 사람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어떻게 논문을 쓰고, 어떻게 굴렀고 하는 거를 같이 구르면서 보니까, '아, 실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일말의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는 석사는 마쳐갈 때가 거의 되어가고, 박사를 해야 되지 않겠냐고 지도교수님도 얘기하고, 다른 교수님들하고도 관계가 있으니까, 당연히 올 것처럼 말씀하시고 하는 거를 들을 때, 그냥 선배들이 졸업하고 하는 걸 보면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거든요. 어떻게 보면 진로를 거의 정한 거잖아요. 이 정도의 시간을 보내고 여기에서 있으면. 이제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성취는, 지금부터 어떤 포부를 더 갖게 되는 케이스인 거 같아요. 이 일도 하고 하면서 경제적인 기반도 생기고, 앞으로도 내가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이라던가 그런 게 눈에 선하게 보이고, 이렇게 하면은 살길이 있겠다는 거에 대해서 여기서 명확하게 보게 되니까, 경우의 수를 보기 시작하는 거죠. '아 이렇게하면 이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이렇게 해야겠다.' 이제 그거를 생각하는 거 같아요. 대학원 지나고 코스 워크 끝나고 거의 이제야. (참여자 C)

위와 같이 참여자 C 또한 대학원을 수료하고 나서야 어떻게 자신의 진로를 이어갈 수 있을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대학원에 진학 후 실제로 이 분야의 사람들과 "같이 구르면서" 보기 시작하니, "실현 가능성"도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자신의 분야에서 대학원에 진학한 후 실제로 어떤 과정을 거치는 지, 또 어떤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성취를 이루고, 직업 세계로 나아가는 지에 대한 감각은 진학 포부를 형성할 당시에 전혀 가지지 못했다. 본인이 직접 이 세계에 와서 경험하고

나서야 그 길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참여자 E의 경우에도 아래와 같이 막연한 계획을 가진 채로 진학 포부를 가지게 되었으며, 구체적인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고 진술했다.

> 되게 막연하고 컸어요 범위가. 지금 말씀드린 자소서에 있는 정도의 지향이었고, 어떤 직업,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가 너무 없었던 거 같아요. 또 진로 조언을 구할만한? 그럴만한 어른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 봉사 활동하면서 만난 그쪽 업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공식적인 프로필을 보면 이런 코스를 밟았고, 그 정도로 제가 미루어 짐작해서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거를 느낄 정도였지. 이게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되고, 그런 걸 알기도 어려웠고, 물어볼 데도 없었고, 사실 물어볼 생각도 못했던 거 같아요 그때는. 사실 교수님들이 문을 두드리면 안 해주실 분들은 아니잖아요. 근데 인제 그런 공식적인 채널이 없었고, 그거를 교수님들한테 물으면 답을 해주신다는 거에 대해서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질문을 드리지는 못했던 거 같아요. (참여자 E)

참여자 E에게는 구체적으로 해당 분야에 대해 진로 조언을 구할만한 “어른”이 없었다. 이에 참여자 E는 “자소서에 있는 정도의 지향”을 가지고 진학을 하게 되었고, 구체적인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와 계획이 없는 진학은 이후 참여자가 자신의 진로과정을 전개해 나가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

요컨대, 연구참여자들은 명문대라는 환경적 조건 안에서 대학원 진학에 대한 양질의 정보를 얻을 수 있었으며,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진학 포부를 자연스럽게 형성할 수 있었지만, 제한된 이들이 사회경제적 조건으로 인해 그 양상이 복잡하게 드러났다. 이들은 가정 경제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가장 빠르고,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구체적인 진학 경로를 선택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인적 네트워크의 부족으로 인해 구체적인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와 계획 없이 막연하고 추상적인 수준에서 진학 포부를 형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라. 내 삶의 지속가능성과 이상적 포부의 줄다리기 과정

현실적인 삶에 대한 고민 없는, 막연한 사회공헌에 대한 목표를 바탕으로 한 진학은 저소득층 명문대생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되게 분명하고, 다른 애들에 비해서, 예를 들어, 공무원일이 정말로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비했을 때, 또 사교육에 가거나 그런 애들에 비했을 때 그래도 나는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간다는 생각을 그때는 했었죠. 거기에 더 집중해서 간다.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른 거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리로 간다. 지금은,,,그니까 다시 돌아간다고 해서 제가 다른 선택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왜 교직 이수 안했지? 나는 왜 그냥 대기업 안갔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때 내가 너무 자신만만했구나. (참여자 E)

위와 같이 자기 성장과 사회공헌에 대한 자신의 목소리를 따라 진학에 대한 포부를 지녔었던 참여자 E는 대학원 진학 및 졸업 이후 경제적 어려움에 부딪히면서 대학 진학 당시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자신의 선택에 대해 후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진학 포부를 지녔던 당시에는 현실적인 외재적 조건에 맞춰 진로를 선택하는 동기들에 비해 자신이 추구하는 내재적 가치를 따라 진로를 개척하는 자신의 모습을 뿌듯하게 여겼었지만, 졸업 이후 현실적 어려움에 부딪히기 시작한 참여자 E는 자신이 과거에 자신이 "너무 자신만만" 했었다며 취업을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였다. 참여자 E가 대학을 졸업하게 되면서 대학원 2학기 때부터는 '탈수급'[13]하여 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었고, 그 와중에

13) 기초생활수급자 대학생의 수급 경험에 관한 연구에서 탈수급 문제는 사회 복지 분야 연구에서 중요한 이슈로 다루어지고 있다. 수급 대학생들의 대학 졸업 그리고 취업은 단순히 본인의 수급 혜택만 줄어드는 상황이 아니라 부모님과 형제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제도도 같이 변경 되어 오히려 수급을 받을 때보다 경제적으로 더 힘든 상황에 처하

어머니가 질병을 앓게 되는 등의 어려움을 겪으며 예전처럼 자신의 이상적 포부만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위와 같이 참여자 E는 석사 졸업 후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기 시작하면서 과거 자신이 진학을 한 것에 대해 후회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공부에 대한 미련”, 불평등 문제에 기여하고 싶다는 마음을 지니고 있었으며, 자신의 삶과 이상적인 포부 사이의 균형을 맞추고 싶다는 의지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 제가 계속 공부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는 거 같아요. 석사 끝날 때도, 내가 석사까지만 할거다. 박사 영원히 안 할거다 결심을 하고 나온 건 아니었고. 공부하는 게, 잘하든 못하든 떠나서 그냥 재밌었고, 그런 생각이 계속 있었고. 그리고 또 지금 일을, 박사를 하고 싶어서 지금 일을 더 오래 안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일만으로 내가 나를 경제적으로 은퇴하고, 은퇴 이후까지 책임질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안들어요. 그래서 인제 그러면 내 살 길을 내가 마련 해야하는 사람이고, 나는 근로소득밖에 없는 사람인데, 그러면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될 것 같은 그런 생각 때문에 고민하고 있죠. 저는 그러니까 대학원 졸업하고 일자리 얻고, 지금 이직을 하면서도, 어쨌든 저의 줄기는 그거거든요. 불평등한 거 나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불평등에 되게 여러 가지 수준이 있는 거죠. 어쨌든 그거를 해소하는 데 나는 조금이라도 기여를 하고 싶고, 그러면서도 내 삶도 지속 가능했으면 좋겠고, 그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고 싶은 게 가장 달성하고 싶은 지점인 거 같고. (참여자 E)

참여자 E가 말한 이러한 내 삶의 지속가능성과 이상적 포부의 줄다리기 과정은 참여자 H의 진학 포부 형성과정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다.

> 주위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긴 해요. 선배나 아는 형들이나, 집 어려우

기도 한다. 이에 빈곤청년들은 탈수급을 매우 두려워 하는 모습을 보이며 큰 스트레스를 받는 모습을 보여준다(윤선웅, 2015).

면 솔직히, 사실 현실적인 이야기죠. 좋은 데 가서 많이 버는 게, 안정적인 데 가서 버는 게 좋은 방법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고민을 했는데. 어쨌든 저는 할 수 있는 거, 해보고 싶은 거, 일단 그 길이 딱 있으니까, 사회공헌 기여 이쪽으로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살다 보니까, 취업은 진짜 뒷전이었죠. 그래서 정책대학원도 생각했었던 거 같아요. 석사하다가 행정고시 같이 하면서 공직 쪽으로 가보자 생각을 했어서. 강사 활동도 하고 하면서, 뭐 박사 선생님들도 강사하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디든 길이 있겠지 하고 생각을 하긴 했지만, 제가 갈 수 있는 길이 많기 때문에, 아주 그렇게 학문에 대한 큰 사명감이 있지도 않았고, 구체적으로 뭔가 방향이 딱 정해져서, '아 이거 아니면, 이 길 아니면 안된다.' 였으면 갔겠지만 그건 아니었던 거 같아서. 그래서 법전원 쪽으로,,, 일반대학원보다는 활용도가 높은 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 같아요. 오히려 제가 알기로 일반대학원은 장학금도 잘 안 나오고 아예 법전원은 다 무료에요. 등록금은 아예 다 무료고, 생활비 장학금은 그게 학교마다 달라서, 그거야 뭐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범위라면 더 좋은 데 가면 되지만. 일반대학원은 그렇지도 않고 국가나 다른 기관에서 나오는 건데 받기도 힘들다고 알고 있어서. (참여자 H)

참여자 H의 경우 사회 정의에 기여하는 정책 전문가가 되고 싶다는 자신의 이상적 포부와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현실적인 문제 사이에서 고민하며 자신의 진학 포부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 그는 주변 사람들의 현실적 조언과 자신의 포부 사이의 균형을 맞추어 일반대학원이 아닌 전문대학원으로 진학을 선택하게 되었다. 전문대학원은 "활용도"가 높으며 동시에 자신의 사회 기여에 대한 포부도 유지할 수 있고, 게다가 전문대학원 진학 시 오히려 가정배경이 좋지 않은 참여자의 경우 등록금뿐만 아니라 생활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등 현실적인 여건이 훨씬 좋았기 때문이다. 또한 처음에는 자신의 지적 호기심과 사회공헌 의지에 따라 일반대학원에 진학했던 참여자 B 또한 현실적인 생계에 대한 압박을 받기 시작하면서 약학대학 진학을 선택하게 되었다.[14)]

생계적 이유가 한 80%이고, 그래도 약사가 되고서도 사회 공헌하는 것도 오히려 더 용이해지니까. 그런 자아실현도 동떨어져 있지 않다고 그렇게 판단을 해서. 확실하진 않고 아직 고민 중인데, 일단 평범하게 지역 약사가 되면은 또 약국마다 그런거 붙어 있잖아요. 소녀돌봄 약국이라든지, 도우미약국이라든지, 그런 것 좀 활발하게 참여하면서 지역사회에 공헌을 좀 하고 싶고. 아직도 사실 국제보건의 꿈을 못버려서. 사실 그 쪽을 포기한 이유가 진짜 거기는 세전 120 이렇더라구요. 그래서 안되겠다 싶어서 포기를 했는데, 약사 되면은 이제 국경없는의사회 그런 데도 알아봤거든요. 그런걸 해볼까하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돈이 많았으면 그냥 원래 하려던 거 하지 않았을까. (참여자 B)

참여자 B는 대학 시절 사회공헌에 대한 의지를 바탕으로 보건계열 대학원에 진학했으며, 졸업 후에도 국제개발협력기구에서 국제 보건 향상을 위해 1년간 동남아시아에서 봉사 활동을 하는 등 자신의 이상적 포부를 향해 나아갔었다. 그런데, 그 이후 관련 연구소들을 이리저리 옮겨 다니며 일했던 참여자는 너무나 작은 경제적 보상 때문에 더 이상 해당 분야에서는 자신의 생계를 꾸려갈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다. 특히 국제보건 활동은 “세전 120” 밖에 받을 수 없었으며 “국제 보건의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여전히 참여자 B는 “건강 불평등”에 대한 문제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약사가 되면 “소녀 돌봄 약국”, “도우미 약국” 등 소외계층을 위한 약국 정책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싶다고 밝혔으며, 기회가 된다면 국경없는의사회에서도 활동해보고 싶다며 사회공헌에 대한 “이런저런 생각”들을 여전히 하고 있었다.

14) 참여자 B의 경우 약학전문대학원이 현재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수능을 다시 본 후, 약학대학에 진학한 경우이다. 이 경우 전문대학원 진학은 아니지만 전문직업인 양성 기관으로서 다시 재편입했다는 점에서 전문대학원 진학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Ⅴ. 논의 및 결론

1. 요약

본 연구는 저소득층 명문대생의 진학 포부 형성과정을 밝히기 위해서 수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저소득층 대학생들의 성장과 진로과정에 대한 제도적 지원 및 교육적 개입에 관한 시사점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저소득층 명문대생의 진학 포부는 어떠한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가? 둘째, 저소득층 명문대생 진학 포부 형성과정의 양상은 어떠한가? 두 가지 문제를 통해 저소득층 명문대생의 대학 생활경험에서 드러나는 진학 포부 형성과정과 그 양상을 분석하였다.

첫 번째 연구문제를 통해 저소득층 명문대생의 진학 포부 형성과정을 크게 학업 경험, 학업 외 경험, 그리고 가족과의 상호작용 경험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첫째, 학업 경험에서 드러나는 저소득층 명문대생의 진학 포부 형성과정을 살펴보았다. 이들은 우선 사교육 및 선행학습 부재로 인해 학업적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학업적 어려움은 전공과목에서보다는 영어나 학문의 기초 과목과 같은 사교육 및 선행학습이 중요한 과목에서 두드러졌다. 특히, 영어는 참여자들에게 있어서 진학 포부를 형성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었으며 이들의 학업 효능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한편, 수학, 일반물리학, 경제학 원론과 같은 학문의 기초 과목에서의 어려움은 대학입학 전 고등학교에서의 선행학습의 영향력이 매우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참여자들은 성장마인드셋을 바탕으로 점차 학교생활에 적응하면서 학업성취를 이루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학업성취는 진학 포부형성의 토대가 되었다. 더 나아가 보고서 작성, 논문 작성, 연구 참여 등의 고효과 프로그램 참여

및 교수와의 상호작용 경험을 통해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인 성장 경험을 이루었으며 마침내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진학 포부를 형성하게 되었다.

둘째, 학업 외 경험에서 드러나는 저소득층 명문대생의 진학 포부 형성과정을 살펴보았다. 이들은 처음에 중산층 위주의 명문대학교에서 친구들과 자신을 '구별 짓기'하며 소속감 형성에 어려움을 느꼈다. 대학입학 후 참여자들은 부모님의 직업, 대학 입학 전 교육 경험, 어학 실력 등의 측면에서 친구들과 자신과의 사회경제적 배경의 현격한 차이를 인식하였으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다. 게다가 이러한 차이는 가장 기본적인 생활양식과 소비 수준 등 일상생활에서도 '살갗으로' 느껴지는 경험이었다. 이러한 대학 환경에서 이들은 소속감을 좀처럼 느끼기 어려웠으며 친구들과 자신을 '구별 짓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동아리 및 학과에서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원만한 교우관계를 형성하게 되었고, 이러한 원만한 교우관계는 '소속감 형성의 마중물'이 되었다. 자신의 가정배경을 굳이 관리하거나 숨기지 않아도, 편안하게 어울릴 수 있는 가치관이 맞는 친구들과의 교우는 이들이 대학 생활을 이어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정서적 지지체계로 작동하였다. 또한 명문대학교라는 특성상 주변 친구들이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으로 진학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진학에 대한 직간접적인 정보를 얻는 등 진학 포부 형성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기도 했다. 한편, 이렇게 가까운 지인이나 친구뿐만 아니라 이들은 명문대학교라는 환경에서 동료집단의 영향을 받기도 했다. 동료집단을 통해 실질적으로 진학 준비를 어떻게 하는지, 진학 후 생활을 어떠한 지에 대한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결국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여자들도 자신만의 진학에 대한 포부를 형성할 수 있었다. 동료집단을 진학 포부를 형성하는 데 있어 자신의 적성과 능력을 확인하는 준거집단으로 적극적으로 참조했던 것이다.

셋째, 가족과의 상호작용 경험에서 드러나는 저소득층 명문대생의 진

학 포부 형성과정을 살펴보았다. 우선 참여자들은 가족들에게 기본적으로 친밀감을 느끼고 정서적인 지지를 얻었으며,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와 진로 방향에 대해 지지를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가족들의 지지는 어디까지나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지지였다. 즉, 이들은 가족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이나 진로에 관한 조언 등의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명문대생으로서 자신의 진학 포부를 형성해 나가고 있었던 연구참여자들과 부모님의 세계는 이미 너무 달라져 있었다. 한편, 참여자들과 그 가족들은 경제적으로 각자의 생존은 각자에게 달려있는 '각자도생'의 삶을 살았는데, 이로 인해 오히려 참여자들은 자신의 진로과정에 대해 독립적인 판단을 할 수 있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각자도생의 삶은 언제까지나 지속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으므로 참여자들은 가족 부양에 대한 책임감으로 인해 큰 스트레스를 경험하기도 했다. 요컨대, 저소득층 명문대생이 진학 포부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가족들은 정서적인 지지체계의 역할을 했지만, 이들은 가족들과 깊이 상호작용하기보다는 오히려 일정 수준의 거리감을 유지함으로써 진학 포부를 형성할 수 있었다.

두 번째 연구문제를 통해 저소득층 명문대생 진학 포부 형성과정의 양상을 분석하였다. 이들의 진학 포부 형성과정은 첫째, '자기 스스로에 대한 허락의 과정'이었다. 참여자들은 높은 성취동기를 바탕으로 더 성장하고 싶다는 열망이 있었으며 대학 생활 동안 객관적으로 우수한 성취를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상황으로 인해 쉽게 진학 포부를 지닐 수 없었다. 이에 이들은 자신의 진학에 대해 스스로 정당화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했다.

둘째, '자신의 삶에서 기인한 사회공헌 의지의 실현 과정'이었다. 특히, 어린 시절에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든 경험을 했었던 참여자들에서 더 두드러지는 지점이었다. 그들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자신과 비슷한, 혹은 자신보다 더 좋지 않은 상황에 있는 소외계층에 대한 따뜻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빈곤과 사회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진로로서 진학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셋째, ‘중도가 없는 전개과정’이었다. 연구참여자들은 명문대라는 환경적 조건 안에서 대학원 진학에 대한 양질의 정보를 비교적 쉽게 얻을 수 있었으며 진학 포부를 형성할 수 있었지만, 이들의 제한된 사회경제적 조건으로 인해 그 양상이 복잡하게 드러났다. 이들의 진학과 그 이후 진로에 대한 계획은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느린 전개 과정을 보여주었다. 이들은 가정 경제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가장 빠르고, 비용이 가장 적게 들며,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진학 경로를 선택하는 모습을 보이이거나, 인적 네트워크의 부족으로 인해 구체적인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와 현실적인 계획 없이 막연하고 추상적인 수준에서 진학 포부를 다소 더디게 형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넷째, ‘내 삶의 지속가능성과 이상적 포부의 줄다리기 과정’이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이상적 포부와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현실적인 문제 사이에서 고민하며 자신의 진학 포부를 형성해 나가고 있었다. 특히 이들은 삶의 경험에서 비롯한 사회공헌 의지와 자기 성장에 대한 자신의 목소리를 따라 진학에 대한 포부를 지녔지만 자기 자신과 가족들의 현실적인 삶의 압박은 생각보다 강력한 것이었다. 이러한 줄다리기는 진학 전, 진학 중, 진학 후에도 계속되는 것이었으며 참여자들은 줄다리기의 적정선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2. 논의 및 제언

이번 절에서는 연구의 결론으로서 본 연구의 의의와 교육적 시사점을 살펴보고, 연구의 한계와 이를 기반으로 후속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저소득층 명문대생의 진학 포부 형성과정 사례를 통해 저소득층 명문대생의 대학 생활 경험과 진학 포부 형성과정의 양상을 살펴보았으며 그 의미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도출된 연구의 의의는 첫째, 기존의 국내연구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었던 연구 대상인 저소득층 명문대생의 진로과정을 조명 했다. 특히, 기존의 저소득층 대학생의 진로과정 연구와 달리 이들이 처한 어려움뿐만 아니라 성장 경험을 함께 포착함으로써 좀 더 실질적인 교육적 개입의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었다. 둘째, 저소득층 명문대생의 진학 포부를 살펴봄으로써 4년제 대학 졸업자들의 대학원 진학 과정에 대한 이해를 확장했다. 기존의 연구는 주로 패널 데이터를 활용한 양적 연구로 이루어져왔으며, 이에 따라 대학원 진학을 통상 인적자본론의 관점에서 연구해왔다. 본 연구는 어떤 과정으로 학생들이 대학원 진학 포부를 형성하는 지, 질적으로 그 양상을 밝힘으로써 대학원 진학의 의미를 다른 각도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가 주는 교육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정지원 제도뿐만 아니라 이들의 심리적 요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육적 개입 및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저소득층 학생들의 진로과정에서 재정지원은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재정적인 지원만으로는 이들의 학습과 성장을 담보할 수 없다. 이들은 재정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놓이기 쉽기 때문이다. 더 좋은 조건과 배경을 지닌 친구와 대비되는 상대적 박탈감, 가족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부담감, 사회경제적 배경으로 인한 낙인효과는 이들의 성장을 저해한다. 이러한 부정적인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서는 가족 이슈

와 관련해서 학생들의 심리적 지원을 위한 상담 제공,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이 어울릴 수 있는 공동체 문화 형성 등의 적극적인 개입이 요청된다. 다행히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스스로 자신의 공동체를 찾고 소속감을 느끼며 학교생활에 적응 했지만, 중산층 위주의 대학 문화와 낙인효과의 이중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이러한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미 '대학 첫 세대 저소득층 학생(First Generation Low Income Students)'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된 미국에서는 학내에 같은 배경을 가진 학생들의 커뮤니티가 학교 차원에서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해당 커뮤니티를 통해 저소득층 명문대생 학생들이 성공적으로 대학에 적응할 수 있었다(Gable, 2016; Landers, 2018). 저소득층 명문대생들은 FGLI 커뮤니티를 통해 학업 및 진로에 대한 지원을 받거나 거주 및 생활비, 장학금에 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기도 했으며, 자신과 같은 배경에 있는 친구들 및 선후배들과 깊게 교류하며 대학 생활에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한 학교 차원에서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명문대생들의 낙인효과를 덜어낼 수 있었으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학생들이 스스로를 인정하고 자존감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이러한 문화 속에서 학생들은 불편한 마음 없이 자신의 배경을 드러내며 대학 생활에 잘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Making it by faking it"(Granfield, 1991)'이 아니라 'Making it by sharing it'의 공동체 문화가 요청되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적 개입은 이들의 대학 생활경험 전반에서 성장 경험을 촉진할 수 있으며 진학뿐만 아니라 이들의 전반적인 진로과정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저소득층의 진로과정에서 대학교육의 책무성에 대한 시사점을 준다. 참여자들은 명문대라는 환경에 있었기 때문에 진로준비 과정에서는 동료들과의 사회적 관계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경제적인 어려움은 이들에게 끊임없이 자신

의 목소리를 따라가는 것에 대한 정당화 과정을 요구했으며, 사회적 지위가 높은 직업군에 대한 인적 네트워크의 부재로 인해 진학 포부를 형성하고 실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결국, 중등학교에서 높은 학업성취를 이루었더라도 이들의 제한된 조건은 지연되어 드러나지 않고 있었을 뿐, 실질적인 진로과정에서 다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이들의 발목을 붙잡았다.

대학은 학생들을 선발할 시에 이들에게 인류에 기여 할 순수한 지적 호기심과 정의로운 사회공헌 의지를 갖추고 있을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대학입학 후 이러한 포부를 키워가고 실현 시키는 과정은 온전히 학생 개인에게 달려 있었으며, 특히 사회경제적으로 불리한 환경에 처해 있던 참여자들은 제한된 여건 속에서 자신의 순수한 열정과 포부를 지키기 위해 더 많은 의지와 노력이 필요했다. 이들의 현실적 여건 자체를 해결하는 것이 어렵더라도, 대학은 이들의 제한된 조건을 이해하고 자신의 개인적인 성장과 동시에 사회에 공헌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조력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를 토대로 후속 연구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을 포함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이들의 학습과 경험을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포착된 진학 포부에 영향력을 미치는 학습 경험들이 저소득층 명문대생에게 더 유효한 요인인지, 일반 학생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작용하는 지에 대한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 가령, 본 연구에서 포착된 대학 생활경험 중 고효과프로그램 및 교수와의 상호작용 등은 일반적으로도 대학생의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가정에서 충분한 사회자본을 획득할 수 없는 저소득층 명문대생의 경우, 학교에서 교수와 동료와의 관계에서 획득한 사회자본의 역할이 더 두드러질 가능성 있으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비교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저소득층 명문대생의 다양한 진로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명문대생의 주요 진로 대안 중 하나인 진학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이들의 진로과정에 대한 제한적인 이해를 제공하며, 진학 외 진로과정을 선택한 학생들의 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는 진학의 경로로서 일반대학원과 전문 대학원을 한 카테고리에 포함하여 연구를 진행했지만, 연구참여자 모집의 한계로 인해 다소 일반대학원 진학 과정에 치우친 점이 있었다. 연구에서도 살펴볼 수 있었듯이 일반대학원 진학 과정과 전문대학원 진학 과정에서 나타나는 차이점이 있었으며 이들의 진로과정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경로를 나누어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탐색한 영향요인이 어떤 방식으로 진로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 더 자세히 밝히기 위해서는 각 영향요인에 초점을 맞춰서 좀 더 세부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경우 연구 대상 자체에 대한 기존의 연구가 부족했기 때문에 설명적인 부분보다는 기술적인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었다.

참고 문헌

고미나, 박재황 (2011). 대학생의 내・외적 진로장벽,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포부,진로결정수준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직업교육연구, 30(4),** 259-279

구인회, 김정은(2015). 대학진학에서의 계층격차: 가족소득의 역할. **사회복지책, 42(3),** 27-49.

국가인권위원회(2015). 「대학원생 연구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김기헌(2004). 가족 배경이 교육단계별 진학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학회 사회학 대회 논문집**, 331-354.

김미란(2014). 대학생들은 부모의 사회계층에 따라 어떻게 다른 대학생활을 경험하고 있는가?. **교육사회학연구, 24,** 25-65.

김영철(2012). 대학 진학 격차의 확대화 기회형평성 제고 방안. **한국개발연구원.**

김한나(2016). **청소년의 진로포부 형성에 관한 사례연구 - 구조적 제약에 의한 포부수준 격차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효진(2010). **신자유주의적 상황 아래 대학생의 연애와 생애기획: 저소득층 명문대생 사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길혜지, 백순근, 양현경, 신은주(2018). 4 년제 대졸 직장인의 대학원 진학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아시아교육연구, 19.**

노경란, 윤수정(2012). 입학사정관제 전형 입학생의 대학 적응 특성에 대한 이해: 4년제 여자대학교의 입학생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연구논총, 33(1)**, 91-118.

노법래 (2013). 후기청소년의 진로발달 궤적에 관한 종단연구. **한국청소년연구, 24(3),** 171-193.

변금선(2015). 가구 소득계층에 따른 청년 노동시장 성과의 차이: 취업 이행기간 및 임금수준을 중심으로. 고**용직업능력개발연구, 18(1)**, 129-16

배상훈, 한송이(2015). 대학생의 수업 외 활동이 능동적・협동적 학습 및 대학 몰입에 미치는 영향. **교육학연구, 53(2)**, 323-356.

선혜연(2011). 대학 학부생과 대학원생, 성인학습자 간의 진학목적 및 진로성숙도 차이. **인간이해, 32(2)**, 165-179.

선혜연, 이제경, 김선경(2012). 진로미결정 대학생의 진로고민 내용 및 원인과

합의적 질적 분석을 중심으로. **아시아교육연구**.

심경섭, 설동훈(2010). 대학생의 사회적 자본과 문화적 자본이 직업 포부에 미치는 효과 분석. **한국인구학, 33(2),** 33-59.

안선영, 김희진, 박현준, 김태령(2011).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Ⅱ.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3-17.**

안선영, 장원섭(2009). 한국청소년패널조사 (KYPS) Ⅶ: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3-5.**

엄미정, 박기범, 김형주, 이윤지, 박동오(2012). 이공계 대학원의 특성화 발전을 위한 정부지원정책 개선방안. **정책연구, 1-215.**

오창환, 정철영(2009).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의 대학원 진학 선택 결정요인.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41(4)**, 199-218.

유기웅 외(2018). **질적연구방법의 이해.** 박영사.

윤선웅(2015).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대학생의 수급경험에 관한 질적사례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영민, 임정연(2011). 4년제 대졸자의 대학원 진학 결정요인 분석. **고용직업능력개발연구, 14(3)**, 233-258.

이영민, 임정연(2017). 4년제 대졸자의 대학원 진학 결정요인 분석. **2017 고용패널조사 학술대회 발표자료**. 263-285.

이인규, 한국교육연구소(2015). 대학원생 연구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이전이, 유지현, 강영민(2017). 4년제 대학졸업자의 졸업유예 효과: 졸업 후 취업 및 임금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2017 고용패널조사 학술대회 발표자료**. 367-385.

이정미(2013). 대학원 교육 운영 실태 및 발전방안 연구. 연구보고 RR 2013-11.

이지혜·윤형주(2015). 대학장학생이 경험한 대학2학년: '불안한 긍정'의 현재 진행. **인문과학논총, 34(3),** 29-56.

이지혜, 황매향(2017). 저소득층 대학생의 진로준비과정 사례연구. **평생학습사회, 13(3),** 57-83.

이찬영(2013). 근로유형에 따른 재학 중 근로의 노동시장 초기성과. **경제연구, 31(1),** 85-106.

장미혜(2002). 사회계급의 문화적 재생산. **한국사회학, 36(4),** 223-251.

장상수(2000). 교육 기회의 불평등. **한국사회학, 34(가을),** 671-708.

장상수(2007). 가족배경, 문화자본, 성적.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153-170.

전상진, 정주훈(2006). 한국 후기 청소년 세대의 발달경로와 성장유형-서울지역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0(6),** 261-285.

전홍주, 권현조, 조미숙(2017). 기회균형선발 전형 입학생의 대학생활 적응. **교육문화연구, 23(6A)**, 87-111.

진미석(2006). 석사학위자들의 진로결과와 학위 효용가치 인식을 통해 본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의 기능. **교육학연구, 44(2)**, 135-159.

차성현, 엄문영, 민병철(2014). 대학원 진학 결정의 영향요인 분석. **교육재정경제연구, 23(2)**

천세영, 이석렬, 이선호(2004). 대학생의 사교육비 규모와 차이 분석. **교육재정경제연구, 13**, 1-24.

채창균(2007). 청년패널 종합분석보고서. **서울: 한국고용정보원.**

최샛별(2003). 한국 사회에서의 영어실력에 대한 문화자본론적 고찰. **사회과학연구논총, 11,** 5-21.

최샛별, 최유정(2011). 문화자본론의 관점에서 본 영어의 한국적 의미와 구조. **문화와 사회, 10**, 207-252.

최샛별, 이명진(2013). 문화자본 지수의 개념화와 측정, **한국사회학, 47(2),** 31-60

최윤미, 류정현, 이상훈, 박한림, 오헌석(2015). 사회적기업가정신의 구성요소와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HRD연구, 17(1),** 189-221.

최진영·이광호(2012). 대학생의 진로과정에 대한 질적 연구. **청소년학연구, 19(9),** 189-213.

하문선, 김지현, 김복환(2014). 후기 청소년 직업포부의 종단적 변화와 영향요인. **상담학연구, 15(4),** 1495-1513.

한미희(2011). 대학생을 위한 진로교육 교과목의 개발 및 효과. **진로교육연구, 24(2)**, 95-113.

홍미소 (2017). **빈곤 청소년들의 진로와 대학 진학 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홍지인(2017). **대학생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고효과 프로그램 참여가 학습 성**

과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Abelev, M. S. (2009). Advancing out of Poverty: Social Class Worldview and its Relation to Resilence.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24(1),* 14-141.

Babany, S. T., Krieshok, T. S., Black, M. D., & McKay, R. A. (2008). College students' perspectives on their career decision making.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6(2),* 177-197.

Bea, Megan Doherty, and Youngmin Yi. 2019. "Leaving the Financial Nest: Connecting Young Adults' Financial Independence to Financial Security."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81(2): 397-414.

Beal, S. J., & Crockett, L. J. (2010). Adolescents' occupational and educational aspirations and expectations: Links to high school activities and adult educational attain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46(1),* 258.

Blackwell, L. S., Trzesniewski, K. H., & Dweck, C. S. (2007). Implicit theories of intelligence predict achievement across an adolescent transition: A longitudinal study and an intervention. Child development, 78(1), 246-263.

Blau, P. M.,& Duncan, O. D. (1967). *The American Occupational Structure.* New York: John Wiley& Sons Inc.

Blustein, D. L. (2006). *The psychology of working: A new perspective for career development, counseling, and public policy.*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Chemers, M. M., Zurbriggen, E. L., Syed, M., Goza, B. K., & Bearman, S. (2011). The role of efficacy and identity in science career commitment among underrepresented minority students. Journal of Social Issues, 67(3), 469-491.

Claro, S., Paunesku, D., & Dweck, C. S. (2016). Growth mindset tempers the effects of poverty on academic achievement.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13(31),* 8664-8668.

Dalton, P. S., Ghosal, S., & Mani, A. (2015). Poverty and aspirations failure.

The Economic Journal, 126(590), 165-188.

Engle, J., & Tinto, V. (2008). *Moving Beyond Access: College Success for Low-Income, First-Generation Students.* Pell Institute for the Study of Opportunity in Higher Education.

Fingerman, Karen L., Kyungmin Kim, Eden M. Davis, Frank F. Furstenberg, Kira S. Birditt, and Steven H. Zarit. (2015). "'I'll Give You the World': Socioeconomic Differences in Parental Support of Adult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7(4): 844-865.

Filkins, J. W., & Doyle, S. K. (2002). First Generation and Low Income Students: Using the NSSE Data To Study Effective Educational Practices and Students. Self-Reported Gains. AIR 2002 Forum Paper.

Finley, A., & McNair, T. (2013). Assessing Undeserved Students' Engagement in High-Impact Practices. With an Assessing Equity in High-Impact Practices Toolkit. Association of American Colleges and Universities.

Genicot, G., & Ray, D. (2017). Aspirations and inequality. *Econometrica, 85(2),* 489-519.

Granfield, R. (1991). Making it by faking it: working-class students in an elite academic environment. *Journal of Contemporary Ethnography 20(3),* 331-351.

Hill, N. E., Ramirez, C., & Dumka, L. E. (2003). Early adolescents' career aspirations: A qualitative study of perceived barriers and family support among low-income, ethnically diverse adolescents. *Journal of Family Issues, 24(7),* 934-959.

Jack, A. A. (2014). Culture shock revisited: The social and cultural contingencies to class marginality. *Sociological Forum, 29*(2), 453-475.

Jack, A. A. (2015). Crisscrossing boundaries: Variation in experiences with class marginality among lower-income, black undergraduates at an elite college. In E. Lee & C. LaDousa (Eds.), *College Students' Experiences of Power and Marginality: Sharing Spaces and Negotiating Differences* (pp.83-101). New York: Routledge.

Jack, A. A. (2016). (No) harm in asking: Class, acquired cultural capital, and academic engagement at an elite university. *Sociology of Education, 89*(1), 1-19.

Kilgo, C. A., Sheets, J. K. E., & Pascarella, E. T. (2015). The link between high-impact practices and student learning: Some longitudinal evidence. *Higher Education, 69(4),* 509-525.

Kuh, G. D. (2008). Excerpt from high-impact educational practices: What they are, who has access to them, and why they matter. *Association of American Colleges and Universities, 14(3)*, 28-29.

Landers, K. (2018). *Post-secondary Education for First-Generation and Low-Income Students in the Ivy League [electronic Resource] : Navigating Policy and Practice.*

Lohfink, M. M., & Paulsen, M. B. (2005). Comparing the determinants of persistence for first-generation and continuing-generation students.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46(4), 409-428.

McLoughlin, P. (2012). The transition experiences of high-achieving, low-income undergraduates in an elite college environment. *Journal of The First-Year Experience & Students in Transition, 24(2),* 9-32.

Pascarella, E. T., Wolniak, G. C., Pierson, C. T., & Terenzini, P. T. (2003). Experiences and outcomes of first-generation students in community colleges.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44(3), 420-429.

Pascarella, E. T., Pierson, C. T., Wolniak, G. C., & Terenzini, P. T. (2004). First-generation college students: Additional evidence on college experiences and outcomes. The *Journal of Higher Education, 75(3),* 249-284.

Pike, G. R., & Kuh, G. D. (2005). First-and second-generation college students: A comparison of their engagement and intellectual development. The *Journal of Higher Education,* 76(3), 276-300.

Raque-Bogdan, T. L., & Lucas, M. S. (2016). Career Aspirations and the First Generation Student: Unraveling the Layers With 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57(3),*

248-262.

Rondini, A. C. (2010). *Negotiating identity: Elite institutions, low-income first generation college students, and their parents* (Doctoral dissertation). Retrieved from ProQuest Dissertations and Theses Database (AAT 3403348).

Simmons, A. (2014, Jan. 16). *The danger of telling poor kids that college is the key to social mobility,* The Atlantic.

Stake, R. E. (1995). *The Art of Case Study Research.* (홍용희, 노경주, 심종희 역, 2000, 질적사례연구. 서울: 창지사).

Tate, K. A., Caperton, W., Kaiser, D., Pruitt, N. T., White, H., & Hall, E. (2015). An exploration of first-generation college students' career development beliefs and experiences.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42(4),* 294-310.

Tate, K. A., Fouad, N. A., Marks, L. R., Young, G., Guzman, E., & Williams, E. G. (2015). Underrepresented first-generation, low-income college students' pursuit of a graduate education: Investigating the influence of self-efficacy, coping efficacy, and family influence.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23(3), 427-441.

Tough, P. (2013). *How children succeed: Grit, curiosity, and the hidden power of character.* New York: Houghton Mifflin Harcourt

Weiler, L., Haddock, S., Zimmerman, T. S., Krafchick, J., Henry, K., & Rudisill, S. (2013). Benefits derived by college students from mentoring at-risk youth in a service-learning course.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52(3-4),* 236-248.

Wildhagen, T. (2015). "Not Your Typical Student": The Social Construction of the "First-Generation" College Student. Qualitative Sociology, 38(3), 285-303.

Yoshikawa, H., Weisner, T. S., Kalil, A., & Way, N. (2008). Mixing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research in developmental science: Uses and methodological choices. *Developmental Psychology, 44(2),* 344.

Yeh, T. L. (2010). Service-learning and persistence of low-income,

first-generation college students: An exploratory study. *Michigan Journal of Community Service Learning, 16(2),* 50-65.

Yin, R. K. (2009). Case Study Research: Design and Methods. (신경식, 서아영 역, 2011, 사례연구방법. 서울: 한경사).

서울대학교 자료 수집 웹사이트

서울대학교 공식 홈페이지 https://www.snu.ac.kr/
서울대학교 포털 https://my.snu.ac.kr/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https://ctl.snu.ac.kr/
서울대학교 국제협력본부 http://oia.snu.ac.kr/

연세대학교 자료 수집 웹사이트

연세대학교 공식 홈페이지 https://www.yonsei.ac.kr
연세대학교 입학처 https://admission.yonsei.ac.kr
연세대학교 학부 장학제도안내 https://www.yonsei.ac.kr

고려대학교 자료 수집 웹사이트

고려대학교 공식 홈페이지 https://www.korea.ac.kr
고려대학교 인재발굴처 https://oku.korea.ac.kr
고려대학교 포털 https://portal.korea.ac.kr
고려대학교 학부 장학제도안내 https://kupa.korea.ac.kr/scholarship/

Abstract

A Study on the Educational Aspirations Formation Process of Prestigious University Students from Low-income Families

Lee, Hye Ji
Major in Lifelong Education, Department of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educational aspirations of prestigious college students from low-income families are formed and to obtain implications for institutional support and educational intervention for career courses of them. In pursuit of this goal, I interviewed 9 of students who have an experience in graduate schools or are willing to continue their education after their graduations.

The main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The college life experiences of students were divided into academic experiences,

non-academic experiences, and interaction experiences with their families to examine the process of forming educational aspirations. First, on academic experiences, they had both challenges and achievements. When entering college, they experienced academic difficulties due to lack of private education and prior knowledge compared to other students. Despite of this, they could grow academically with their "growth mindset", participating in "high impact practice" such as writing a long paper, conducting research as undergraduate students, and studying abroad as visiting students. This achievement led them to have aspirations for higher education.

Second, on non-academic experiences, they found it difficult to form a sense of belonging at a prestigious university, where most students are from a family with a high socio-economic status. Amicable friendships with people they met in their department or club had a significant role in forming their sense of belonging in college. Besides, they were able to obtain practical information about career path from nearby peer groups. By actively referencing prestigious college students as a reference group for their abilities and aptitudes, they could keep pursuing their educational aspiration.

Third, on interaction experiences with their families, they were able to feel intimacy and get emotional support from family. However, they could not get any practical supports for their career plan since their parents had no clue of experience on elite university. Also, students felt the responsibility of providing support to their family, which prevented them from forming educational aspirations. In this regard, students were able to maintain their ambition by placing a certain level of distance rather than interacting deeply with their families.

And there were four characteristics distinctively presented in this study. First, it was “a process of permission for oneself”. Even if they had a strong desire to grow further and achieved excellent results at a prestigious college, it was not easy for them to pursue career path and satisfy their educational aspirations. Their pursuit had to be justified due to their economic difficulties. Second, it was “a process of realizing their aspiration of social contribution. In particular, it was a more prominent feature in the participants who went through adversity in their childhood. Stemmed from their private experience, they had become interested in the marginalized who have a similar background. Therefore, they chose further education as a career path that could cope with the problem of poverty and social inequality. Third, it was “a process of too fast or to slow”. Their time lines of plans for subsequent career path were either too fast or too slow. They chose the most efficient way so that they can support their family as fast as possible or they were lost because they had set their plans vaguely due to the lack of career network. Fourth, it was “a process of tug of war with the sustainability of their life and ideal aspirations”. They were following their inner voice to hone their intellectual curiosity and make dedication to society despite of their marginalized background. But the reality is significantly more complex. They had to make a living and suffice for their family. It is quite overwhelming experience for them to balance between their aspiration and the reality of life.

This study has the following significance. First, it shed the light on the career course of prestigious college students in low-income families, which are difficult to find in precedent studies in South Korea. In particular, unlike previous low-income college students'

career course studies, it contains more practical implications for educational intervention by exploring both challenges and success of low-income students at elite school. Second, it can draw attention to accountability of college education in the career process of students of low-income families. Even if they made a significant academic achievement in secondary school and at college, they had no choice but experienced hardship in pursuing their own career path.

Keywords : **Low-income Students at Prestigious College, Educational Aspirations**

Student Number : **2016-21538**